

星武

제36호 | 2008. 1.



제36호
星武

空軍士官學校總同窓會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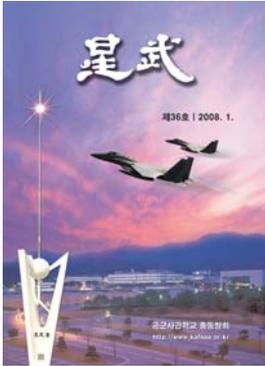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대표기업, KAI-
항공우주의 새로운 미래,
KAI가 열어갑니다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과
국내 최초로 완제 항공기 수출시대 개막을 이끈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개발업체, KAI-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Global KAI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미래 항공우주 기술!
그 중심에 자랑스런 우리의 KAI가 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http://www.koreaaero.com>



여명의 공군사관학교

星武

Contents

연 하 장

신 년 사

공 군 소 식

모 교 소 식

총동창회 소식

회원기고



블랙이글스 고별비행



성무제 "보라매 향연"

발행일자 2008년 1월(제36호)
 발행인 공사총동창회장
 발행처 공사총동창회
 전화 02-823-1091 (군) 923-7570
 편집·디자인·인쇄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해년 · 가을의 기도	정해영 22
공사 1기생회 UN묘지 참배 소감	최규순 23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송대성 28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윤석문 30
공사총동창회를 말한다	이은봉 32
하늘을 고향 삼은 작은 리더십	최병운 36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회고하며	채관석 41
지금, 가장 그리운 것	배기준 45
조기정보와 북한 핵위기	장호근 51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강대회 57
Operations Enduring Freedom	권 울 62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문호 64
전역 후의 보람된 여생을 위하여!	구정희 68
꿈의 사회, 삶의 길	명영남 77
아침의 산책길에서	정민남 86

성공하는 선택 비결	금기연		87
건강을 위한 하버드 의대 8가지 지침	안홍균		92
융단폭격과 왜관 낙동강	이영순		100
날개없는 천사	이선미		102
안나푸르나 트래킹	최광섭		104
인도 속으로	이봉길		113
가보자, 해보자, 달려보자	김성덕		119



공사 총동창회 이사회

각 기생/지회 동정

1~16기 동정		124
지회 동정(아시아나항공)		130



3사 총동창회 친선모임

총동창회 알림

총동창회 이사회		132
평생 회비 적립현황		134
제15차년도 찬조금 현황		138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139
전역자 현황		142
결혼/부음		143
주소변경		144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145
편집후기/기고안내		147



선·후배 합동등산



謹賀新年



신년사



공사총동창회장 김 주 식(15기 사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우리공군 및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의 발전과 동창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 없이 우리 공군과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성심껏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15차년도 운영기수가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주요 역점사업을 포함한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단체이든 간에 그 단체의 발전여부를 좌우하는 주요 관건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회원 개개인의 참여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체 일원으로서의 마땅히 이행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사총동창회 회원들께서는 대체로 잘 참여·협조해주시는 덕분으로 현재까지 운영상엔 별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안들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 줄 자립운영기금 적립실적이 너무 저조한 편으로 목표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 있음을 함께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새해연도에도 후배기수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오며 많은 이해와 더불어 협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15차년도 운영기수는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戊子年 새해에도 동창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룩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08. 1. 1.

‘제15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개최

공군은 2007년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5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7(서울에어쇼 2007)’ 행사와 연계하여 ‘항공우주력 건설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공군참모총장회의 2007’ 개최

공군은 10월 15일(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6개국 공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군참모총장회의 2007(Air Chiefs Conference in KOREA 2007)’을 개최하였다.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인도네시아, 이라크, 노르웨이, 싱가포르, 태국의 6개국 참모총장이 참가하여 각국의 ‘공군 비행교육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효율적 비행교육 체계 확립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한시적 활동 중지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0월 21일 '서울에어쇼 2007'에서 고별비행을 하였다. 전국을 무대로 공군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드높였던 블랙이글스는 '서울에어쇼 2007'을 끝으로 한시적인 활동중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블랙이글스와 함께했던 A-37B는 조종사들의 안전과 더욱 역동적인 에어쇼를 선보이기 위해 국내기술진에 의해 제작된 초음속항공기 T-50에게 바통을 이어 주었으며, 이번 고별비행에서 신구 블랙이글스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고별비행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A-37B에 탑승, 블랙이글스 편대를 이끌고 지휘비행을 실시, 공군의 수장으로서는 A-37B로 운영된 블랙이글스를 역사의 뒤안길로 안내하고 T-50 블랙이글스를 인도하였다. 2년 후 차기 에어쇼에서 T-50 블랙이글스의 새로운 면모를 기대해 본다.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한국이 만든 훌륭한 기종이 아닌가 한다.



공사, 육·해사 4학년 생도 초청 친선행사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2007년 7월 2~5일까지 육·해사 4학년 생도들을 초청하여, 각 군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사관생도간 우의를 다지는 3군 사관학교 친선행사를 개최하였다.



육·해사 4학년 생도들은 3박 4일의 행사기간 동안 각 중대별로 공군사관생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투비행단을 방문,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고속 질주하는 Hi-Taxi, 비행체험 등 공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체육대회와 친선의 밤, 음악회 등 다양한 친목 행사를 함께 하며 서로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2학년 생도들은 육사에서, 3학년 생도들은 해사에 모여 친목을 다졌다.



한국전 참전 美 예비역 조종사, 공군사관학교 방문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 공군 예비역 조종사 9명이 9월 14일(금) 공군사관학교를 방문, 사관생도와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사를 방문한 한국전 참전 美 조종사들 중에는 100회 이상 출격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공을 세운 칼 슈나이더(Carl Schneider) 예비역 소장, 소련의 미그-15기 4대를 격추한 클리블랜드(Chuck Cleveland)

예비역 중장이 참석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한국전 당시의 감회를 청취하였다.

공사, 사회저명인사 초청 인성교육특강 실시

공군사관학교는 2007년 9월 14일(금)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학년별 인성교육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에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가 2학년을 대상으로 ‘한계와의 싸움’을 주제로, 7막7장을 집필한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Unlimited Risk-모험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은 4학년을 대상으로 ‘신념과 행복’을 주제로 자기 분야에서 체득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였다.



공사, 육군참모총장기 공도대회 1위 수상 쾌거

공군사관학교 국공반 생도들이 2007년 9월 8~9일 이틀간에 걸쳐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된 “제9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 남녀 공도대회”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1위라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공도인의 저변확대와 전통무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개인전·단체전으로 나누어 거행된 이번 대회에서 공사는 생도 24명이 출전, 개인전·단체전에서 우승, 국내 최고의 명궁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출전 성적은 개인전 통산 4회 우승, 단체전 통산 6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얻어냈으며 공사 생도의 국궁 수준이 국내 정상급임을 입증했다.



제6회 대학생 안보토론회 참가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대학생 안보토론회가 2007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안보토론회에는 각 군 사관학교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35개 대학 167명이 참가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의 미래', '고구려 대외 전략의 현대적 함의' 등 6개 주제를 두고 분과별로 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공군사관학교 공사 임병주 생도(4학년)가 최우수상을, 그리고 안병수 생도(3학년), 안준용 생도(3학년)가 각각 우수 발표자로 선정되어, 육군사관학교, 숙명여대와 함께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7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2007년 10월 23일(화) 사관생도와 대학생, 군내·외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인성교육 발전을 위한 '제7회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01년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인성교육 심포지엄은 사관생도 인성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써, 올해는 '항공우주시대의 도전정신'이란 주제 아래, 학계와 기업계, 연예계 등 군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美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강영우 박사가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의 저자 서진규 박사, 허반신 마비의 중증장애를 딛고 일어나 재기에 성공한 휠체어 댄스가수 강원래, 불굴의 노력으로 계약금도 없던 연습생에서 한국 프로야구 간판타자로 거듭난 장종훈 선수((현)한화이글스 코치) 등 심포지엄 주제인 '도전정신'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이 대거 연사로 참석, 생생한 삶의 경험과 철학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공군사관학교측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탁월한 지적능력과 더불어 건전한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비롯한 생도 인성함양 프로그램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07 성무제’ 성황리에 종료

건전한 생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사생도들의 가을축제인 2007년 ‘성무제’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종 전시, 공연활동을 성황리에 마치고 종료되었다.



생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자, 건전한 생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성무제’는 지난 1년간 공군사관생도 인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총 결산하는 무대로, 서양화·공예·모형항공기·프라모델 등의 전시회와 연극제·음악제·탈춤공연·그룹사운드 공연 등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금년도 성무제에는 충북재활원 장애인 30여 명을 초청해 축제를 함께 즐기는 등 뜻 깊은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

공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이 2007년 11월 1일 김은기 공군참모총장과 역대교장, 공사총동창회장, 공사발전후원회 임원, 지역기관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이임하는 39대 교장 박종현 소장은 제20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하여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각종 작전·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인 정예사관생도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이임하였다.

40대 교장으로 취임한 황원동(54세, 공사24기) 중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사는 미래항공우주군의 주역을 양성하는 우리 공군의 핵심교육기관”이라며, “정예공군장교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계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최상의 교육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공군 4대 핵심가치(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기반으로 智, 德, 體를 겸비한 장교양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원동 신임 공군사관학교 교장은 강릉 출신으로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교육사령관,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하였고, 각종 작전 및 국방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있으며, F-4E(팬텀) 전투기 3,000시간의 비행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이다.

부대 방문



제15차 총동창회 회장단은 2007년 7월 19일 모교를 방문하여 공군사관학교 발전방향과 향후 교육계획 및 공사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8월 13일에는 공군본부를 예방하여 공군의 당면과제와 범공군적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함께 하고, 공사총동창회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공군의 위상을 높이자는데 뜻을 모았다. 8월 7일에는 작전사령부를 방문, 실제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제공 훈련 및 지원체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철통 같은 영공방위 태세에 마음 든든하였으며, 또한 역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선배들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본부 재직 후배동문들과의 좌담회



제15차 공사총동창회 운영임원(회장 외 7명)은 2007년 8월 13일 공군본부를 예방하여 공본 재직 현역 후배기수 기생대표 16명과 오찬을 갖고, 총동창회의 활동사항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당면한 문제와 고충사항을 알려주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다.

특히, 후배 동문들의 평생 회비 납부방법(자동이체)과 조기납부를 당부한 바, 동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약속이 있었다.

총동창회 동참 적극 권유(ASIANA)

총동창회 임원진은 아시아나항공 공사출신 조종사 동문회원들을 초청하여 11월 7일 수원비행장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같이 하였다. 이곳에서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운영 및 사업을 설명하



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아시아나항공 재직 동문들은 총동창회 활동에 모두가 동참토록 할 것이며, 적극 권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모임을 위해 애써주신 운항본부장 및 공사동문회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친선모임



공사총동창회는 3군 사관학교 친선모임을 10월 10일 한성대 골프장에서 가졌다. 모처럼의 만남이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곧바로 친숙해져 폭소를 자아내며 그칠 줄 모르는 대화의 장 속에서 즐겁고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대화의 주 의제는 역시 서해지역 NLL 관련 안보사항이었고, 총동창회 운영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류도 있었다.



공사총동창회 주관 동문 선·후배 합동등산



공사총동창회 주관 최초로 공사 출신 선·후배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하여 2007년 10월 23일 북한산 등산을 실시하였다.

제15차 운영기수를 중심으로 12기 지도근무 선배기수에서부터 메추리 기수 18기까지 각 기수별 대표 2명과 15기 9명으로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하여 대남문을 경유, 구기계곡-구기동에 이르는 등산로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흐뭇한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런 모임을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의견일치를 보았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번 등산 행사를 훌륭히 마칠 수 있게 동참하여 주신 선·후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공사총동창회 주최 2007 친선 바둑대회 실시



2007년도 공사총동창회 주최 친선 바둑대회를 지난 11월 21일 공군 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경기 참가는 윤자중 전 총장님을 비롯한 1기 회원부터 19기 회원이 막내로 참가하였으며, 5기와 11기가 주력기수로 가장 많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직접 출전하진 않으면서도 본 행사에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1기 사관 최규순 회장님과 2기 사관 김경태 장군님을 비롯한 원로회원님들 덕분에 대회 분위기가 더욱 고양되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공사총동창회 기우회 지도사범인 김수장 9단께서 다면기를 통해 회원들의 기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드린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개인전에서 A조 : 김성규(8기), B조 : 이승오(1기), 단체전에서는 A조 : 윤자중(1기) · 강영진(8기), B조 : 송중호(10기) · 이재기(16기) 회원이 차지하였다.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성명



2007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가 주관하고 범국민 구국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성명 발표에는 역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예비역 장성, 북핵 반대 및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에 참가한 222개 단체 대표, 66개 향군 참전 친목단체 회장단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 성명서 내용

- NLL은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이다.
- NLL을 양보하는 것은 서해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서해 평화협력 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NLL을 허물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서해 영토를 강점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 우리는 2002년 6월 29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1기 사관 정해영

정해년 · 가을의 기도

한라산 자락을 휩쓸고 동해로 빠진
 태풍 나리의 매정한 가을 홍수
 기어코 22명의 목숨을 빼앗고
 활취고 간 아수라장은 악몽 같아라.
 그럴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전지전능자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피병처럼 속히 아물게 하옵소서.

상귀 먹구름이 가시질 않는 이 가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발 부치고 사는 대한민국이
 거짓 평화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랑자를 기다리지 못한 부심(浮心)
 수치를 부끄러워 할 줄 모르면 몰라도
 큰 아들 몰래 꾸린 선불꾸러미가
 창녀들 배만 불리는 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폭압 포주의 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 대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꽃피워
 저들의 민주화를 주도하게 하옵소서!



공사 1기생회 UN묘지 참배 소감

1기 사관 최규순

제62회 UN의 날을 맞이하여 공사총동창회(회장 김주식, 사무총장 최영상) 후원으로 1기 사관(F-51전투기 출격조종사 총 34명 중 생존자 22명) 조종사 및 참전용사 18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고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참전 16개국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UN묘지를 전 참모총장 장성환 장군을 모시고 참배하게 되었다.

2007년 10월 24일 09:30에 K-16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일행은 15비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정각 10:30에 CN-235수송기(VIP용)에 탑승, K-1(김해비행장)에 11:30에 도착, 제5전술공수비행단장(강대휘 준장/25기)과 참모들의 영접을 받으며 단본부 대회의실 도착,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활동사항 및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등 참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들이 현역에 있을 때



비해 많은 발전과 전력이 향상되었음을 피부로 느끼며 후배들에게 잘해달라는 부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단본부 앞에서 단장과 기념촬영 후 부대 버스를 타고 UN묘지로 출발했다.

소요시간은 약 50분 정도였으나 단본부에서 안내장교로 여군조종사(대위와 중위) 2명과 사진기사 1명, 의무병 1명 등이 탑승하여 안내장교가 설명과 안내를 잘 해주었으며, 특히 부대에서 음료수와 간식을 많이 준비해줘서 감사할 뿐이었다.

UN묘소 주차장에 도착, 묘소관리소장의 안내로 “추모관”에 도착하여 설명을 듣기 위해 좌석에 앉았다.

“추모관”은 참전국별 의식행사 및 참배를 드리는 장소로 각국 귀빈들이 오면 묘역에 대한 개요와 참배요령 및 경내순시에 대해 설명하는 장소로 되어 있다. 관리소 행정실장 송길현 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참배를 하게 되었다.

우리 1기생회 일동은 설명을 듣고 참배 장소로 이동하는데, 참배 장소는 참전 21개국 국기와 대한민국 국기, 유엔기가 연중 게양되고 있는 상진구역과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주 묘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기생회 명의의 조화를 장성한 총장님과 1기생 회장이 같이 헌화하고 일동 묵념 후 기념촬영을 하고 아래 지역인 녹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녹지 지역에는 1978년 한국정부가 건립한 유엔군 위령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정부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비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4만여 명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이름을 벽에 새긴 추모 조형물로, 2006년 10월 24일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UN묘지는 대지 5만 평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에 위치하며 한국전쟁 중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전투 병력이나 전투장비 등을 지원한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전투지원 16개국과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 등을 지원한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등 의료지원 5개국을 포함하여 총 21개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하였고 그 참전으로 약 4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한국전 참전군 및 유엔 기념공원 안장자 현황〉

국명	전사자수	봉안 유해수	국명	전사자수	봉안 유해수
호주	346	281	비전투요원	-	11
캐나다	516	378	무명용사	-	4
프랑스	270	44	벨기에	106	-
네덜란드	124	117	콜롬비아	213	-
뉴질랜드	41	34	에티오피아	122	-
노르웨이	3	1	그리스	186	-
남아공	37	11	룩셈부르크	2	-
대한민국	※	36	필리핀	120	-
터키	1,005	462	태국	136	-
영국	1,177	885	총계	40,896	2,300
미국	36,492	36			

※ 대한민국 전사자수 : 237,686

이 곳 묘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유엔군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히 기증하고, 아울러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국 정부로부터 국회 의결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1955년 12월 15일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59년 11월 유엔과 대한민국 간에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유엔 기념묘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후 1974년까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즉 UNCURK(영커크)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1974년 UNCURK(영커크)가 해체됨에 따라 관리업무가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 위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UN묘소 참배 후 버스에 탑승하여 해운대 회 정식 식당으로 향했다. 오찬은 일본식 회 정식으로 김현천, 홍순상, 이부식 3명이 공동 스폰서로 1기생회 동기생을 위해 성대히 오찬을 베풀어준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김현천 동기는 UN묘지 참배계획을 제일 먼저 제의했고, 초대 5공수단장을 역임한 관계로 5공수단장과 긴밀한 협조로 안내장교, 사진기사, 의무병까지 협조 받아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고, 홍순상 동기는 전립선암환자로 방사선 치료 중에도 자기가 스폰서라는 책임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 고맙기는 하나 혹시 병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며 빠른 쾌유를 빈다. 이부식 회원께서는 1기생회를 위해 찬조해주어 감사를 드린다.

돌이켜보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 유엔군의 이름으로 묻혀있는 이 분들의 희생의 가치는 변할 수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지원으로 보전될 수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구히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다.

오늘 1기생회 회원 일동의 참배도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라고 본다.

우리는 아쉽게도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만 참배했고, 나머지 분들은 조화만 보냈다는 관리소장의 설명을 듣고 참전 21개국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표시로써 일년에 한 번 UN의 날에 대통령이 참배토록 건의하고 싶다. 왜냐하면 UN기념공원(UN묘지)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관리부서가 묘지를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도록 하여 참전국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은혜를 아는 의리 있는 국가라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배가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엔 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10개국과 대한민국은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든든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유엔 기념공원이 잘 관리된다는 것은 혈맹관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1기생회 회원일동이 참배한 뜻은 비록 노병이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아직도 남아 있고, 우리 1기생회는 UN기념공원을 항상 기억하고 추모하겠다는 것이다.



자아의 발견

자신의 몸이나 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은 우리의 일부일 뿐, 결코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과 통찰력, 직관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과 통찰력과 직관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 모리 슈워츠 교수의 메시지 중에서 -



17기 사관 송대성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

본인은 공군사관학교 제17기생으로 입교하여 임관한 후 군복무, 전역 후 생활 등 42년이란 세월을 공군사관출신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는 한 구절은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라는 공군사관학교 교가 중 한 구절이다.

‘우리들 영원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라는 구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본인에게 느껴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we-feeling)’라는 의미이며, 그 두 번째 것은 ‘영원의 기지(eternal base)’라는 의미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해 선발된 ‘우리들’이다. 엄격한 선발기준은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리고 사상적인 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엄격

한 선발기준이다.

육체적으로는 외모,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혈압, 맥박, 피, 내장 등 우리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결격이 있으면 절대로 선발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을 의미하며 이러한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통과된 우리들이다.

정신적인 면도 철저히 검정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선발될 때 철저한 뇌(腦)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정신건강 여부가 검사되었고 우리들은 그러한 치밀한 검사에 합격한 우리들이다.

사상적인 면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튼튼하고 건강한 사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및 형제들 보유 여부 등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적행위를 할 수 있는 오염된 사상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절대로 선발될 수 없는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두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히 교육받은 우리들이다. 4년이란 교육

기간을 통해 국가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문성 교육과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품을 갖추기 위한 인격교육을 받았다.

4년이란 교육기간은 마치 용광로에서 광물질을 담금질하듯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품질 재고를 목표로 녹여지고 두들겨진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명제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다. 우리들을 모집한 대목표가 그것이었고, 우리들을 교육시킨 대목표가 그것이었다.

‘영원의 기지’란 단어 속에도 3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과 함께 유구하게 존속함을 의미한다.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존속이 유구하듯이 우리의 모교 공군사관학교도 대한민국과 함께 유구히 존속함을 의미한다.

‘영원의 기지’에 대한 그 두 번째 의미는 대한민국의 수호투사를 길러내는 영원한 기지임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영광을 영원히 수호하는 수호투사들을 길러내는 영원의 기지임을 의미한다.

‘영원의 기지’의 마지막 의미는 대한민국 및 세계무대에서 일등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양성하는 영원한 기지임을 의미한다.

본 영원의 기지에서 배출된 ‘우리들’은 대한민국 및 세계 어느 곳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일등 국민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이러한 ‘우리들’을 부단히 생산하고 있는 ‘영원의 기지’로서 공군사관학교다.





8기 사관 윤석문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어떻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토록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너는 세월에 끌려 다니고 혈떡이며 살고 있지만 나는 세월에 끌려 다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월을 요리할 수가 있어서이니라.”라고 대답했다.

내 나이 벌써 고희(古稀)를 넘기고 하늘(空)과 인연을 맺은 것이 반세기나 흘렀다.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떻게 살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없다. 더구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해방(解放)을 맞이했으나 일제의 만행이니 민족의 울분 같은 것은 직접 체험은 못하고 자라면서 다만 지식으로 알았다. 중학생이 되면서 한국동란도 겪었으나 고향이 격전지가 아닌 비교적 조용한 시골이어서 서울이 수복되기까지 약 3개월가

량 수업을 쉬었을 뿐, 어려웠지만 평탄한 가운데서 중·고등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1956년 3월, 진해 공군사관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교훈과 생활덕목인 공사십훈(容儀端正, 清廉潔白, 誠心服從, 責任完遂, 信義一貫, 公平無私, 沈着果敢, 信賞必罰, 率先垂範, 恩威兼備)의 지엄한 가르침 속에서 4년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긴 비행생활이 시작됐다.

비상(飛上)을 위한 긴 활주로 중앙선을 따른 날갯짓, 이륙 후의 궤도 같은 장주비행, 장주이탈 후는 정해진 항로비행(계획된 경로비행, 주어진 임무완수)의 반복과 연속 속에서 그간의 긴 세월이 다 흘렀다. 1960년부터 시작한 비행생활은 전역 후(’85년)에도 1992년 초봄까지 대한항공(기초비행훈련원/제주)과 삼미항공(전북고창)을 전전하면서 계속됐다. 항로비행은 좁은 공간(COCKPIT 내) 밖의 환경(正風, 背風, 左右側風, 空氣搖亂… 等)의 변화에

상응한 부단한 싸움을 해야만,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했으며, 항로이탈 방지를 위한 침로(針路)의 변경과 유지가 가능했고, 계획된 도착 예정시간의 산출이 가능했다.

내가 불문(佛門)에 들어선 것은 1978년, 정신 전력(精神戰力)이란 기치아래 전 장병 일인일종교(一人一宗教) 갖기 운동이 펼쳐지던 시절이어서 당시 비행대대장이던 나는 선뜻 불교를 택했다. 모든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란 마찬가지로이다. 외부환경(境界), 즉 다섯 가지 욕심(五欲 財, 色, 食, 名, 睡)과 여덟 가지 바람(八風 利-利得, 衰-損害, 毀-뒤에서 험담, 譽-뒤에서 칭찬, 稱-면전의 칭찬, 譏-면전의 비방, 苦-괴로움, 樂-즐거움)에 끌려 다니지 말 것과 내부의 자기성찰과 점검(點檢/ 五十有五而于志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規)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은 공군사관학교 4년의 생도생활과 항로와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긴 비행생활과 더불어,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고 또 존재이유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중항법이나 인생방법의 원리, 즉 진리란 하나로구나 하는 도리(道理)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항로이탈방지를 위한 여러 개의 CHECK POINT와 TURNING POINT(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等)들을 거쳐, 목적지(七十而從心所欲不踰規) 상공까지 그래도 탈 없이 항로비행을 마쳤다. 목적지 상공에서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강하비행이 이미 시작됐다. 정상을 향한 힘겨운 등산길보다 하산길은 더 조

심해야 하며 어려운 법이다. 이웃으로부터 존경이나 추앙은 못 받더라도 노추(老醜)만은 보이지 말고 연민(憐憫)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극히 평범하셨던 보통(普通)사람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친지와 선·후배들이 고맙다.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연인의 품과도 같고 어머니의 품안과 같았던 파란 하늘에서의 삶, 30여 년의 나날이 자랑스럽다. 늦게나마 불법(佛法-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감히 허공(虛空)을 안아보고 싶다는 어줍잖은 생각을 내보는 것도 가상(嘉尙)하다. 바람이 있다면, 요즈음 첩보처럼 난무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지식에 끌려 다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수면(水面) 위의 조그마한 섬(峯巒)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밑 천혜의 비경(秘境)과 갖가지의 보고(寶庫)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혜(智慧)의 눈과 높은 안목(眼目)을 갖추는 것이다.

‘꽃을 꺾어 벌에 두면 얼마를 가나’ 라는 말이 있다. 깊이 음미(吟味)해 볼 일이다. 이제는 내부 성찰을 바탕으로 항로비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경계(境界)들에 끌려 다니지 않고, 구경(究竟)의 목적지에 연착륙(軟着陸)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노후에 할 수 있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그마한 봉사인 동시 영원한 공사인(空士人=士官=騎士=선비)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도리(道理)며 명예(名譽)요, 긍지(矜持)일 터이다. “하늘이 좋아 하늘에 살았고, 지금도 하늘(空)만 먹고 사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다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10기 사관 이은봉

空士總同窓會를 말한다

공군사관학교가 문을 연 지도 어언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모교인 공사는 무궁한 발전을 거듭하여 “하늘로 우주로” 도약하는 공군의 간부를 많이 배출하였다. 여기에 모교의 초석이 되어 왔던 공사총동창회가 함께 해 왔음은 자랑스런 일이다.

공사총동창회, 그냥 동창회라고 하면 됐지 앞에 왜 “총”자를 붙였는가. 이는 공사 전체 기수(期數)를 망라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우리 공사총동창회의 오늘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하고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6·25전쟁 시기에 처음 동창회가 발족되었으나 곧바로 해체됐었고, 휴전 후 다시 동창회가 복원되었다가 4·19민주 혁명의 여파로 인해 해체, 그 후 다시 동창회가 문을 열어 10여 년간 계속 지탱해 오다가, 1973년 군내 또는 군 관련 친목단체는 둘 수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동창회 운영은 오랫동안 수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인들의 혼을 한데 뭉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군의 간성으로서 계속적인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을 살려 나가

기 위해서는 결집체가 필요하다는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오늘의 총동창회가 탄생케 된 것이다. 공사총동창회가 탄생할 때는 몇몇 회원들의 뜻만 있었을 뿐 운영 예산도 한 푼 없었고 일을 꾸려나갈 사무실은 물론 집기류도 전무했었다. 그 때문에 어느 독지 회원의 도움으로 영등포 지하상가 어둠 킁킁한 코너 방 한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대방동 공군 회관 옆 보일러실이 있던 건물 한쪽 빈칸을 할애 받아 이용하기도 했었다. 공군 측에서도 총동창회 살림살이가 딱하게 보였던지 서울지구대 건물 2층 한 칸을 사무실 공간으로 배려해 주

서 상당기간 이곳에서 회무를 총괄해 왔었다. 지금은 공군 복지단(옛 항공의료원 자리) 건물 4층 한쪽 방에 공사총동창회의 간판을 걸어 놓고 있다. 다 아는 바 대로 공사총동창회는 매 기수별로 1년간의 기간씩을 담당 운영해 오고 있다. 금년('07. 7. 1.-'08. 6. 30.)은 15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김주식 회장을 비롯해서 전 15기 사관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몇 년 전 10기 사관이 총동창회를 맡아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동기생 회장단이 수고를 하고 있는 터라 그때는 총동창회 사무실에 가끔 들리곤 했었다. 그 시절 어느 날 후배인 P란 사람은 본인(필자)과 대화 도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총동창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전체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총동창회는 실제 예비역 회원들 위주로 운영되면서도 현역 후배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총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스스로 홀로서기식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총동창회는 매년 각 기수별로 순차적으로 계승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요? 이 같은 운영 방식을 바꾸어 보는 것도 고려 해 볼 만한 시기가 된 것 아닙니까? 또 다같이 공사를 졸업한 사람이면서도 총동창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하면 총동창회 운영기금이 되고 있는 회비 납부에도 비협조적이고 소위 회원 노릇을

못하는(안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요?』 등등의 질문을 던졌다. 본인은 이같이 한 후배가 던진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해결을 시도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이야기를 흘려 들었을 뿐이다.

단재(丹齊) 신채호(申采浩)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정의했다. 본인은 단재의 역사관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 총동창회가 한 역사학자가 말한 “아”라는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 보고자 함이다. 단재(丹齊)가 말한 아(我)는 개체로서 “나”일 수도 있고 집단으로써 “우리”일 수도 있다. 이 글이 발표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여기서 말한 단재의 아(我)는 복수형으로서 “우리”이다. 본래 “우리”란 울타리를 뜻하는 말이란다. 즉, 돼지나 소의 “우리”나 위례성(慰禮城)의 “위례”가 같은 뜻에서 연유됐단다.

울타리의 일차적 기능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 들어온 무리가 “우리”이면 그 밖에 남겨진 무리는 “남”이 된다. 따라서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낱(個體)”를 뜻한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이다. 울타리를 먼저 두른 이후에야 우리와 남, 주체와 객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총동창회의 “우리”는 무엇이겠는가? 공군사관학교란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요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총동창회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체인 친목단체다. 사실 동창회의 일반적인 의미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구성된 정(情誼)적인 1차 집단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거늘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개인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 즉 사회의 좌표상(座標上)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를 매우 중시한다. 내가 어느 집단의 출신이며 현재 어느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심리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다.

어느 학교의 동문(同門)이다, 또는 동기, 동창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사회의 관심거리인 학벌과도 상호 연관지어져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또는 동문이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사회적 가치를 준거(準據)하는 척도(尺度)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공사 동창이라 했을 때 사회적인 가치척도에 견주어 보면 어떨까? “공사출신이다” 하면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척도상의 위상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의 중추적인 교육목표가 군사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는 곳으로서 일반대학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핵심간부를 길러내는 특수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벌중시 풍토 속에서 사관학교는 사회적 위상(Social status)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교육기관이라 생각된다. 이런 까닭에 본인은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더더욱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공사총동창회는 일반사회학교의 동창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모두가 다 공군의 제복을 입고 장교로 근무하게 되어 졸업 후 하는 일의 동질성이 제일 큰 특성이다. 군이란 서열이 존중되는 조직이고 종적인 인간관계가 매우 엄격하다. 그러므로 개개인간의 인간관계면에서 자율성과 친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계급에 의해서 군 조직 전체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같은 동창, 또는 동기이면서도 늘 경쟁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렇다면 조금은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진 사관학교 출신자들로 구성된 총동창회를 어떻게 하면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총동창회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총동창회와 모든 회원들을 모두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일반학교와는 다른 국가 안보의 역군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남다른 공공(公共)에 대한 열정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든 회원들은 총동창회가 모든 회원 각자에게 골고루 가시적인 보탬이 되는 일 해 줄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은 발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각 회원 자신이 자랑스러운 공사총동창회 회원임에 대해서 긍지

와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요, 총동창회의 존립가치가 있다고 본다. 즉, 총동창회가 회원인 나 개인의 복리(福利)를 위해 뭘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나는 총동창회 회원임으로 해서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끼는 그 마음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회원들이 이 같은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질 때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훨씬 높아지리라 확신한다.

반면 총동창회를 맡아 운영하는 측에서도 개선할 점은 있다. 현재 공사총동창회는 군을 떠난 예비역 회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분상 민간인으로서 또 민간인 친목 단체로서의 기틀을 잡아가야 한다. 언제까지나 현역 군 후배들의 그늘에서 총동창회를 운영해야 하는가. 총동창회가 아직은 “홀로서기” 독자적인 운영을 해 나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줄 안다. 그로 인해

매년 기생별 책임 운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하기에 총동창회의 운영초점을 예비역 회원들에게 맞추어야 된다고 본다.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소식 매체인 “총동창회 회지”의 편집에 있어서도 공사출신 예비역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해 이를 전파함으로써 총동창회의 궁극적인 존재의의와 수행해야 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필자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총동창회 운영방안의 정답이다라고 제시하기란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뽀족한 제안도 쉽지가 않다.

다만, 총동창회가 앞으로 걸어 가야 할 목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회장단이 더욱 고민하고 미비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언젠가는, 아니 가까운 장래에 소기의 성과는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명언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용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안겨준다.

- 로버트 뮐러



22기 사관 최병은

하늘을 고향 삼은 작은 리더십

하늘은 나의 일터요 고향이다.

하늘처럼 파란 공군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장병들을 보면, 참 잘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보고 또 본다.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늘은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진 운명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37년 전 메추리 시절부터 불렀던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고향이요 또 무덤”이라는 공군가의 가사는 예비역이 된 나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 하늘이 나의 싸움터요 무덤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일터였고 고향이 된 하늘은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늘의 일은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인 동시에, 하늘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하늘은 나에게 거짓과 꾸밈이 없는 깨끗한 삶의 비전이다.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리더는

다른 사람의 숭고한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거짓과 꾸밈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현역시절을 생각해 보면, 나의 리더십은 계급과 직책에 따르는 권한과 선배로서의 권위만을 내세웠을 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전역을 하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예상했지만, 과거에는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고 나와 놀아주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끄는 것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선택하는 마음의 생기도록 나를 가다듬는 것을 <작은 리더십>이라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작은 리더십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작은 성취

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대화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는 편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대화의 중요성과 그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그에게 주라는 상호주의 원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얼마 전, 워크숍에서 리더십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발표 중에 집행부에서 진행의 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심하게 항의했었다. 편을 뽑아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입장에 동조해서 그 날은 내가 옳은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나는 전 날의 언행에 관하여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설령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였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불화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할 경우와,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5년 동안 사용한 프로그램에서 대화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모든 대화는 갈등적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거나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여러 유형의 이해관계는 갈등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화는 언제나 안전 편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둘째로, 모든 대화는 감정적이라고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잘 못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셋째로, 모든 대화는 자아의식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고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성품과 인격 및 언어습관과 스타일에서 비롯된 장애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는 야구에서 폭투, 강속구 그리고 변화구처럼 상대방이 받기 어렵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볼을 던지는 캐치볼(catch ball)처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캐치볼의 즐거움은 받기 좋게 잘 던지고 또 잘 받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캐치볼처럼 대화하는 리더십을 간직하고 싶다.

가끔 결혼주례를 받을 경우가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이야기 다음에 주례사의 본론으로서 나는 대화의 3가지 요령으로 <부탁하기>·<경청하기>·<칭찬하기>를 실천하도록 당부한다. 이 세 가지 요령은 신혼부부를 위하여 특별히 생각해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리더십의 대가들이 말하는 교훈을 종합한 것이며, 가정이나 집단 및 조직 등 어느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의 단순한 원리이기도 하다.

〈부탁하기〉

군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은 상명하복의 관습에 따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다.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은 의사전달의 본류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의사전달의 원칙은 양 방향적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조차 하대하는 것을 몰상식한 것으로 여기는 오늘의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즉각 반응을 해야 된다고 기대하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 되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과거의 일방적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면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화방법의 대안은 무엇일까? ‘부탁하는 것’이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권위 의식 때문일 것이다. 리더십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의 집단은 물론 군대조직과 같은 엄격한 위계조직에서도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탁하는 것이라고 한다. 군대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부탁할 줄 아는 능력은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의 전부라고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이 일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이 일에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전문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한다.

권위 있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고맙다〉·〈감사하다〉·〈미안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게 될 것이다. 나는 부탁과 함께 감사의 말로 “내가 또 신세를 졌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빚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다.

명령은 절대로 사람을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나는 동의한다. 그래서 편을 뽑은 수류탄을 던질지라도 아버지가 아이에게 또는 남편이 부인에게 받기 좋은 볼을 던지는 캐치볼(catch ball)처럼 대화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폭언과 강압적인 명령, 상대방을 비꼬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말, 그리고 화풀이 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습관은 야구에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강속구와 폭투와 변화구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언어게임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청하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점은 ‘경청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듣는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가치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오래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거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정하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은 경청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서로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함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에 관하여 어렵게 말을 꺼낸 사람을 혼내고 나서 성공적으로 대화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짜르고 끼어들 기회만을 노린다. 그래서 경청하기의 반대말은 ‘끼어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화하는 중에 끼어들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다고 한다. 끼어들기 전에 ‘하나-둘-셋’을 센 다음에 개입하라는 것이다. 이것만 잘 실천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기술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밝은 얼굴로,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겠군요’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여기에 추가한다면 메모를 하면서 듣는다면 더 없이 큰 신뢰감을 준다

는 것이다.

어느 유명한 세일즈맨은 세일즈에서 구매자로 하여금 대화시간의 80%를 말하게 한다면 그 판매와 협상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한다.

〈칭찬하기〉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여 보상해주라는 것을 뜻한다. 리더십 문헌들은 인간관계의 〈황금률(golden rule)〉을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그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면 자신이 먼저 그를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이며, 그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챙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하들의 공과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베풀고 칭찬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 일의 공로자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은 리더 자신의 이름이라고 한다. 인천상륙작전 하면 맥아더 장군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만약에 현역시절의 나를 다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었고 교만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들어내는 것이

다. 칭찬이란 단순히 입에 발린 공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어려운 실천을 의미하는 동시에 잘못된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잘되면 내 탓, 잘 못되면 네 탓’이라는 말은 보통사람들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잘되면 네 탓, 잘 못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리더 중의 하나일 것이다.

조그만 나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역시절에 나는 이러저러한 일로 여러 번 시말서를 쓴 적이 있었다. 파렴치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었다. 한번은 관례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정에 저촉되어 상당기간 동안 부하들이 조사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사안이 종결되었을 때 나는 지휘관께 이 일의 책임과 관련하여 나를 처벌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서 별 받기를 간청했던 적이 있었다. 지휘관께서는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랍 속에 그 간청서를 넣으셨다. 사실상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와 구성원을 기꺼이 책임지려고 했던 그 일은 지금 생각하여도 즐거운 추억이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씩씩한 것은 없다.

맺음 말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리더십을 꿈꾸는 나의 소망이다. 이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리더십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나는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가족과 부모형제, 그리고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짐이 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계급과 직책, 그리고 선·후배라는 엄격한 조직과 달리 개방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 내는 것은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부탁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습관적으로 끼어들려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은 나의 선입견과 고정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추임새를 넣어 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며, 곧 책임져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을 고향 삼아 작은 리더십을 꿈꾸며 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



31기 사관 채관석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회고하며

붉은 줄은 정열의 표시! 우리는 남아다운 공사의 투사
볼을 쥐고 달려 나가면 우리들 눈앞에는 거칠 것 없네
세이빙! 세이빙! 빅토리! 빅토리! 태클! 태클!.....

이 노래는 공군사관학교 응원가로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이하 3사 체전)에 참가하는 럭비부 주제가이다. 필자도 럭비부 생도로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노래를 열정적으로 불

렀으며, 생도시절 젊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3사 체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땀과 눈물이 젖어있는 대방동 연병장이 떠오르고 서울운동장의 그 함성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3사 체전은 지난 1954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공·육·해군 사관생도들이 서울운동장에 모여 축구, 럭비 경기와 조직적이고 패기 있는 응원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관생도들의 멋진 모습을 보이는 축제행사였다. 특히 이 행사는 생도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는 물론 사관학교 동문 선후배 장교들도 참석하여 사관학교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생도 생활에 대한 향수, 그리고 모교에 대한 긍지와 애교심을 갖게 하는 일종의 홈 커밍 행사와도 같았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3사 체전이 열리는 10월 초에는 화려한 장면들이 서울시내에서 연출되곤 하였다. 공사와 해사는 각각 대방동과 해군본부에서, 육사는 태릉에서 출발하여 3사 체전을 알리는 응원단과 선수생도를 태운 버스가 시내 중심가를 누볐다. 헌병 백차를 필두로 하여 멋진 망토의 응원단장을 태운 오픈카와 응원생도들을 태운 10여 대의 버스들이 일렬로 하여 군가를 부르면서 주행하는 모습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서울운동장 외형 벽면에는 각 사관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포스터가 형형색색으로 붙어 있었고, 운동장 내부의 국기 게양대에는 대형 태극기를 비롯해

공사·육사·해사 교기와 각 군 본부, 사령부 등 각급 부대기가 장엄하게 휘날리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각 군의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관학교의 위상을 높여주는 의전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축구, 럭비경기과 더불어 각 군 의장대의 시범이 펼쳐졌고, 경기 중간에는 공사 생도들의 모형항공기 비행, 육사의 농악대, 해사의 거북선 행진 등 각종 이벤트 행사로 3사 체전은 각 군의 문화와 체육이 혼합된 행사임을 보여주었다. 응원의 규모와 형식도 대단했다. 학교별로 대형 현수막과 애드벌룬을 응원석에 설치했고 스탠드에는 군악대, 응원생도 400~500여 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위치했다. 응원단은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응원복과 응원도구를 갖추고 카드섹션, 조직적인 박수와 우렁찬 함성, 울동적인 춤사위를 절도 있고 패기 있게 보여 주었으며, 서로 지지 않으려고



더 크게, 더 열성적으로 응원했다.

사관학교 옆 응원석에 앉아 있는 동문들도 마찬가지였다. 3일 간의 열전 동안에 관중석 여기저기서는 무리를 지어 구호를 외치는 선후배 장교들로 가득찬다. 공사 응원석 옆에는 A-dash 구호를 외치는 선후배 장교들의 합성이 공사 응원단에 가세하여 한층 더 힘을 불어넣는다. 얼굴도 모르는 선후배 동문, 가족 등 모든 성무인들이 경기 후 차려 자세를 취하고, 학교 교가를 함께 부르면서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끼며 연계 되는 혼연일체의 순간도 좋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멋있고 사관학교다운 장면은 상대방의 학교 교가가 울려 퍼질 때, 다른 학교의 모든 응원단은 응원을 중단하고 그 학교를 향하여 교가를 불러 주면서 예의를 표하는 장면이었다. 이렇듯 신사답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사관생도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면서도 상대 학교의 응원에 밀리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응원하는 모습은 젊은 사관생도들만이 갖는 패기 그 자체였다.

3사 선수 생도들 간의 운동경기는 응원보다도 더 치열하고 힘들면서 드라마틱했다. 서로의 실력은 거의 대등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경기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경기는 거의 간발의 차이로 1골 또는 1·2점 차의 박빙의 승부로 끝났다. 어떤 학교가 더 우월하다고 장담할 수 없었으며 최선을 다하는 페어플레이에 만족해야 했다.

이들 대부분의 선수 생도들은 사관학교 입교 후부터 운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술 수준은 뛰어나지 않았다. 부족한 기술 수준을 보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체력 훈련을 시행하였다. 경기는 기술보다는 생도다운 패기와 정열, 그리고 투지력이 더 우선되었다. 그 결과 매끄럽고 부드러운 플레이보다는 거칠고 투박하며 반칙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었다.

또한 3사 체전은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1년 농사”였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많았다. 사흘간 연속된 체육대회는 경기일 하루하루를 긴장의 연속으로 만들었다. 축구, 럭비 두 종목을 세 학교 간의 대항으로 시합해야 하기 때문에 총 여섯 경기가 개최되었고, 선수 생도들은 이를 연속으로 경기를 치러야 했다. 선수들은 극도의 긴장과 압박감으로 체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으며, 응원단 생도들도 3일간의 열전 후에는 거의 목소리가 실 정도였다.

3군 군악대의 경쟁적인 북소리와 나팔소리, 운동장이 떠날 갈 듯한 생도들의 합성과 박수 소리, 일사불란한 카드섹션, 울동적인 춤 동작 등은 3사 체전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그 열기로 심판의 휘슬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양교의 선수생도들과 응원단 생도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껴안고 서로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경기에서 이기면 사기가 충천하게 된다. 종료 휘슬소리와 함께 승리가 확정된 순간 서로

를 끌어안으며 저절로 터져 나오는 환성과 환희 때문에 온 몸으로 기쁨과 희열을 느낀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기억들이 일순간에 사라진다. 기나긴 합숙 훈련과 30도를 넘는 뜨거운 피약별, 설 새 없이 흐르는 땀, 동료 선후배들의 거친 숨소리 등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기에 패배한 해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3사 체전 준비과정에서 훈련량이 더 많아졌고, 심적인 부담도 가중되었다. 선수생도들은 훈련 이외에도 학업을 위하여 지친 몸을 추스르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여야 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후배 생도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한여름 오후 훈련이 종료된 후, 시원한 음료수를 들고 찾아오는 선후배 생도들의 “수고했다”는 한마디 말은 하루 훈련의 피곤함을 이겨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내무반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내무생활을 도와준 동기생의 도움은 지친 운동부 생활에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1년을 준비한 후, 승리하는 날에는 모든 것들이 값진 추억으로 남게 된다. 지금 돌이켜 보면 3사 체전은 선수생도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기도 하였지만 생도 서로 간의 이해와 화합을 제공해 주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기도 하였다.

필자가 4학년 시절, 육사와의 럭비 경기에서는 29:10이라는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하였다. 4년의 선수생활 중 8번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7패 후 1승을 올렸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승리의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3사 체전 과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지만 다음과 같은 교훈은 지금도 필자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승과 패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으면 이길 때가 있다. 그러나 매번 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겼다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 나가는 자세이다.”

이제 3사 체전은 우리들 기억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의미 있는 대회였음은 틀림이 없다. 생도들의 젊음과 패기의 발현, 필승과 감투정신 함양의 장이었고, 경기 규칙 준수를 통해 페어플레이 정신, 정정 당당함,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얻게 해주었다. 다만 승리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그 때의 환경이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쉽다. 지금은 3사 체전이 없지만 많은 선배들은 그때의 추억과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가장 그리운 것

- 비행단 창단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



12기 사관 배기준

단장님!

낮은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9월 중순, 완연한 가을 햇살입니다.
군무(軍務)에 수고 많습니다. 부대원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일전, 비행단 창단 기념일을 맞아 역대 단 지휘관을 초대하여 편안한 즐거움과 잊지 못할 감동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행은 한때 비행부대를 다스렸던 노병들로 60대에서 70대를 지나고 있지만 군용 수송기로 예천을 향할 때부터 사뭇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단장(Wing Commander)이라는 직책보다 오히려 전투조종사(Fighter Pilot)로 오래도록 하늘을 날았다는 것이 더 크게 마음을 들뜨게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에서 수 만년 살아 진화해 온 사람이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을 향한 호기심과 모험을 건 새로운 도전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비행 환경은

어쩌면 더욱 더 위험하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선 빠른 속도로 생각할 여유마저 재촉 받고, 그러면서 어떤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몰인정스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급기동 중에는 지상 중력(G-force)범위를 훨씬 넘어 혈류를 가로막아 눈앞이 캄캄한 블랙아웃(Black out : 비행 중 일시적 의식, 시각상실)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핏줄까지 터지는 중압을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물속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 땅에서는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사는 산소(Oxygen)가 숨 쉴 때 제대로 나오는지?

한 번 비행하는데 적어도 열 번 이상 눈이 가는, 피보다 더 긴요한 연료(JP-4)를 걱정해야 하고 구름 속이나 야간같이 시각이 모호한 날이면 안전하게 머물러는 본래의 인체 평형감각을 여지없이 파괴해 버리고 다시 혼돈스런 비행 상태로 몰아넣는, 소위 악명 높은 어지러움증(Vertigo)에 빠지면 알면서도 얼른 믿음이 오지 않아 고함도 지르고 입술을 깨물며 살아남기 위해 생리 본능을 냉정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가혹한 역경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프로(Professional)적인 연금술사가 바로 전투조종사이며, 그 과정이 곧 하늘을 난다는 경험적 의미이지요.

돌이켜 보니 여러 가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초인적인 침착과 인내로 극복하였기에 쉽사리 잊혀 지지 않고 항상 그 자부심은 삶의 한가운데에 자리하였습니다. 거기에 공군시절, 하늘에서 살아 온 날보다 더 값진 소중한 일(業)이 평생에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드니 어찌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오래간만에 기지를 둘러보니 군대 문화도 많이 바뀌어 전 장병들의 손길이 옛날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생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홀쩍 커 버린 가로수에 세월을 느끼며 나무가 나무 같지 않고 우리를 알아보는 증인으로 다가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아무 말이 없는 활주로나 무뎠직한 격납고는 고향 동네처럼 정겨웠습니다.

시동을 걸면 언제라도 살아 생명을 갖는 저 항공기는 여전히 뜨거운 애정을 느끼게 합니다.

멀리 관제탑(Tower)을 보니 '90년도 1월 초순, 마지막 지휘 비행을 마치고 서해 상공에서 '푸른 boy' 관제소와의 무선 교신이 아스라이 메아리칩니다.

‘푸른 boy, 푸른 boy, Airforce Old Eagle, mission complete R.T.B request radar vector to 예천 Airforce Base’ (*R.T.B : Return To Base)

조국과 공군에게 오랫동안 하늘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영원히 모기지, 땅으로 돌아간다는 한 군인의 귀향(歸鄉) 보고였습니다.

‘Old Eagle, cleared to land’

타워 관제사의 착륙 허가는 조국과 공군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해 주는 마지막 따뜻한 안내였습니다. 정중한 배려였습니다. 한 군인에게 보내는 고별 인사였습니다.

그 후 무지개 꿈을 안고 성무대의 문을 두드린지 33년 만에 군복을 벗고 공군을 떠났습니다.

오후에는 담 넘어 논밭과 초가가 보이는 체력

단련장에서 푸른 잔디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행이 없던 날, 운동을 하면서 온갖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 주던 골프놀이는 비행규정과 절차의 딱딱한 객관적 지성(知性)에서 전우애의 부드러운 주관적 감성(感性)으로 곧잘 완화시켜 준 촉매였지요.

“Old boy Not bad!”

“그래 선배가 친 공이 나쁘지 않아! 아직 늙지 않았어. 누가 골프도 인생 역정이라 그랬지!”

꺾가에 웃음소리 날리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지나간 발자취를 회상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 우리를 사람과 군인으로 만들어 준 사관생도 생활에서부터 30여 년 비행하다가 전역한 날까지 – 크고 작은 영광과 좌절의 발자국은



결국 모교 공군사관학교가 배워준 대로 깜깜한 밤하늘에 한 줄기 횃불을 들고 조국 하늘을 지키며 살아 온 나날들, 그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때 조종사 식당 만찬장에 들어서니 뜻 내기 조종사 시절, 고난도 비행 임무를 앞두고 긴장으로 얼룩졌던 오찬하며, 어느 날 비상대기(Alert)를 교대 하려 바쁘게 스쳐 달려가던 모습도, 가면무도회처럼 왁자지껄 소란스럽던

연말 파티 장면도 다 흘러 간 잊지 못할 명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배와 후배, 예비역과 현역이 한잔 두잔 주고받는 술잔 속에 비친 것은 결국 지금 가장 그리워지는 ‘비행’이었습니다. 작별한 지 15년, 그 비행이 눈과 귀로 사정없이 들어 와 가슴에 고동치며 가라앉았습니다.



구름 아래 고향 마을처럼 하늘은 독수리, 너의 영원한 고향

비행(飛行)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복습 바친다’는 군가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이제는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그 비행이 가장스럽다.

어둑새벽, 그 빙음은 차라리 짐승의 울부짖음.

불의(不義)를 잡아 삼키려는 포효.

여명에 핀 불꽃으로 지축을 흔들며 비상(飛翔)하는 자태는

전율(戰慄)이었다. 장엄(莊嚴)하였다. 신념(信念)이었다.

붉게 노을이 질 무렵 헬멧을 벗고 활짝 웃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 시절, 비행편대는 순식간에 올라가 한 점으로 사라져 간 고도에서

날쌔게 달려든 상대를 쫓고 쫓아 물고 늘어지던

전투 기동은 사활이 걸린 처참한 몸부림.

저공으로 숨어 날아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되어 목표물(직도)에 폭탄을 퍼붓고

뒤 돌아 아래를 본다. 검은 화염에서 막 빠져 나오는

어린 요기(Wing man)를 본다. 매견을 본다. 감격을 본다. 희망을 본다.

그리하여 거친 습격 몰아쉬고 활주로에 내리면

조종복은 땀에 젖고 얼굴에는 산소마스크 자국이 길게 패여 있었다.

그것은 자랑스런 흔적이었다. 멋진 훈장이었다.

비행을 사랑했다. 열정도 바쳤다. 희생도 했다.

하늘과 땅만큼 멀어 고독도 했다. 슬픔을 넘어 죽음도 보았다.

그렇다! 한 인생을 배우면서

우리는 20세기 격동의 계절, 조국과 하늘에 약속을 지켰노라!

‘하늘로 우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하늘에서는 순간으로, 우주에서는 영원을 향함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공군의 영원이자 이상(理想)이거늘!

세월은 흘렀다. 후배는 자라고 선배는 늙었다.

그들은 발랄하고 패기 넘치고 당당하였다.

역사와 전통은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인계인수될 뿐이다.

후배, 너희들은 국가의 보배, 일기당천(一機當千)하는 불사조(不死鳥)이니

천리안으로 살피고 찾아 쏘아 보는 매서운 눈(眼),

날카로운 부리와 움켜잡는 발톱, 그리고

억센 날개로 야생의 들판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성난 독수리’가 되라!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이제는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그 비행이 가장 그립다.

단장님!

아침에 우리 일행을 태운 군용 수송기가 별빛과 불빛이 하나가 된 밤하늘을 날아 방금 성남비행장에 야간착륙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겁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추억은 언제나 쓸쓸하지만 보다 더 따뜻하였습니다.

하늘은 독수리 여러분을 관대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급자리 공군, 그 Air Force에게 건투를 빕니다.





17기 사관 장호근

조기경보와 북한 핵위기

I. 서론

북한과 미국은 2007년 9월 1일~2일 제네바에서 6자회담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을 개최하고, 이어서 9월 27일~30일에는 북경에서 제6차 6자회담을 속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에서 미국과 북한은 2007년 말까지 ‘상당 기간 내 복구가 어려운 수준’으로 북한 핵불능화 초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과 남북한 경제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법이나 규약이 아니라 독재자 한사람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곳으로 과연

북한이 금년 말까지 핵불능화를 이행하고 선군정치를 포기한 후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인가는 의문시된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선언과 합의가 적지 않았지만 실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문제의 와중에서,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로 관련국의 반응과 대응책에 관한 것뿐이었다. 대응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루어 져야만 하는 전제사항인 북한에 대한 핵관련 정보수집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조기경보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주로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쟁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념인 예방외교¹⁾에 있어 그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전제조건이기도 한 조기

1) 1992년, 갈리(Boutros-Ghali) UN 사무총장이 “평화를 위한 제안(Agenda for Peace)”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및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UN이 주도하는 노력의 하나로 구상하여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념의 주요 요소가 조기경보, 대응전략 및 행위자이고, 예방외교는 전통외교보다 매우 적극적인 개념으로 조기경보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경보(early warning)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해 간략히 토의하고자 한다.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로 다시 야기된 제2차 북한 핵 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논제에서 제외하고, 1993년과 1994년간의 제1차 북한 핵 위기 때의 조기경보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조기경보의 개념과 문제점

1. 조기경보의 정의

UN의 국제재난 관련 기구인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은 조기경보(early warning)를 ‘위험에 노출되는 개인들에게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확인된 기구를 통한 적시의 효과적인 첩보의 공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s)는 위험에 대한 이해, 미해결과제에 대한 감시와 예측, 정부와 국민에게 이해 가능한 경고의 처리와 전파, 그리고 경고에 대응해서 적시에 적절한 대응책을 시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로 조기경보의 목적은 ‘적시에 신뢰할 만한 분쟁 관련 정보제공으로 분규가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이거나 위기의 초기단계에서 더 이상의 파괴적 발상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 개입하는데 있다.’

2.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

탈냉전시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 분석가들은 첩보를 분석하여 틀린 것과 정확한 것을 최대한 구분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가용한 첩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만일 모든 사실이 가용했다면 미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한다. 어떤 경우에는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가용한 첩보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 것, 도출될 결과의 범위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보판단의 역할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데 대한 예측문제에 있어서, 분쟁 원인이 불확실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시대나 탈냉전시대를 불구하고 중요한 분쟁에서 거의 조기경보가 가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쟁 예방에 있어서 조기경보는 항상 어느 정도 가용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조기경보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보다 작은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경보가 가용한 상황 아래에서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서 경고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

3. 경고에 대한 수용성과 대응의 틀 통합 문제

적시에 조기경보가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정책결정자들이 이를 얼마나 신중하게 받아들이

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의 여러 요소들은 이런 문제인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기본위기 사태에 국내외 국제문제가 겹쳐짐으로써 더욱 그렇다.

그 밖에도 정책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선택은 가능한 한 연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이런 취지 때문에 추가 첩보나 경고로 예방조치를 촉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기사태에서는 정책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현재의 기대, 선호도 또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시키는 첩보를 불신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더구나 새롭게 판단한 첩보분석 결과로 인해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하거나 믿고 있는 것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심을 아직 못하고 있는 딜레마 상태를 악화시켜 새로이 수집되는 첩보를 무시해 버리거나 저하시킬 수도 있다.

유사한 예로서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이득과 손실이 예상될 때, 이득이 예상되면 대체로 ‘위험 수용자(risk acceptant)’ 편에 서지만 한번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실수를 받아들이고 시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손실 반대(loss adverse)’ 편에 서기도 한다. 이 뜻은 큰 이익을 내기 위해 큰 위험을 부담하지만, 반면에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희망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 후에도 오랫동안 실패한 정책에 집착하는 ‘매몰비용 오류(sunk-cost-fallacy)’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런 특성은 정책이 잘못

입안되거나 시행되었을 때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정확한 정책결정과 시행을 꺼리는 지도자의 속성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속성이 정책결정자의 조기경보 수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준비된 대응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간과 정보 제약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신뢰성 있는 조기경보가 적시에 제공되어 이를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여도 경고와 연관된 적절한 대응능력의 수립이 부족할 수 있다는 데에 조기경보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응방안, 즉 대응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조기경보체제를 구성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환경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각적으로 대응정책을 예측하고 실행하며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일들과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어느 일개 부서와 기관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련 정부와 기구들을 효과적인 조기경보속으로 끌어들이어 조기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선행조건은 신뢰할 만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정보는 제공받기 어렵다. 따라서 조기경보가 부족하더라도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는 조기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그 체제가 조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경보와 대응전략에서 군과 민간의 연결 문제이다. 탈냉전 시대의 전략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군의 역할은 새롭고 더욱 복잡해지고, 그리고 비국가교전자(non-state belligerent)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냉전 시대에서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에 대한 군사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강조와, 그리고 몇 년 후(위협 평가)와 더욱 정확하게 몇 주 후(조기경보) 분쟁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군도 국방기본정책에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Ⅲ. 제1차 북한 핵위기(1993년~1994년)의 특징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선언으로 야기되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이 선언될

때까지 북한의 핵 계획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를 조기경보와 이를 중심으로 대응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표준 정보절차인 ‘징후정보체제’를 통하여 북한 핵에 대한 조기경보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북한 핵 계획에 대한 정보판단은, 정책결정부서 및 정보 분야 간에 상반되는 이견이 많았으나, 북한이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1개 내지 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여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서 어느 다른 나라의 핵무장보다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중동과 동북아에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이란과 북한을 지명하고 있었고, 이미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힘겹게 저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지역에 군비경쟁과 핵 확산은 물론 북한 핵이 중동에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강경하지 않고 온건하게 대응해나가야만 했던 이유는 북한과 같이 지도자의 의도가 불투명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냉전시대와는 달리 핵 억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협상을 선호하게 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같이 북한에 강한

경제제재를 가했을 경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주한미군과 군속들을 포함한 엄청난 사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또 다른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탈냉전시대 분쟁예방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제1차 북 핵위기 기간 중 조기경보와 그 대응 정책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표준 정보절차와 수집수단을 통하여 북한 핵과 전쟁징후에 관련된 첩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 정보 분야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역시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것이었다.

둘째, 정보의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한 미국의 조기경보는 물론 어떠한 관련된 정보도 정책결정자들이나 정보전문가들에 의해서 언급된 바가 거의 없었다. 북한의 낙후된 핵기술 수준, 남한의 핵 개발 계획, 남한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기경보 차원에서 미국이 최상의 첨단 국가급 첩보 수집수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이나 관련국제기구가 미국의 정보지원을 받았으므로 탈냉전시대 다른 분쟁에 비하여 조기경보의 전파체제는 성공적이었다.

넷째, 정치적으로 야기된 재난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처럼 북한은 지도자의 의도가 불투명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였으나 주어진 조기경보 상태에서 최선의 적절한 강온의 혼합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분쟁예방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다섯째, 행위자 측면에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 개발을 강행하려고 한 반면에 미국 및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도 각국의 국익에 따라 입장은 달랐어도 북한의 핵 개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효율적인 국제간의 협력이 성공하였다.

여섯째, 언론의 역할로서 1994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이 CNN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시킨 것은 언론을 이용한 정치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일곱째, 경수로 건설비용지원과 같은 재정적 의지가 분쟁예방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즉 관련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선례를 남긴 점도 교훈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제1차 북한 핵위기 기간 중 미국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표준 정보절차와 수집수단을 통하여 북한 핵과 전쟁징후에 관련된 첩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북한을 중동과 동북아에서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수집, 경고와 대응의 틀 통합, 그리고 정보의 수용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제1차 북한 핵위기의 성공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분쟁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의 필수성과 이를 정책결정자들과 연결시켜 적절한 대응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체제의 필요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이루어 져야만 하는 전제조건인 조기경보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주로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사례에서 분쟁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한반도 조기경보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는 ‘한미연합정보체제’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더 나아가 제1차 북한 핵위기 때의

분쟁예방의 성공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동일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유지의 한 방안으로 동북아 다자외교를 위한 어떠한 레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발전적인 구상과 이에 대한 실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탈냉전시대에 다양해져가는 조기경보의 대상과 2012년에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전시작통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한국·미국·일본과 연계된 통합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어 이러한 제도의 설치를 제안한다. 완전한 체제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정책결정자들이 수립하게 강요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한반도에서 분규가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의 제도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25기 사관 강대희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것이다

들어가면서

해외파병은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적극적인 군사외교 활동이다.

대한민국의 해외파병 역사는 1964년 베트남 전쟁을 거슬러 올라가면 40년을 넘는다. 파병된 연 인원만도 32만여 명이고, 지역별로도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카리브해 연안(그루지아, 네팔 등), 중동, 동티모르 등 전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소재 World Trade Center에 가해진 빈라덴의 항공기 테러로 인한 충격적인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아프간 대테러전 지원을 위하여 제57공수비행단을 창설하고 2003년 12월까지 2년간 인도양의 전략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전략물자공수로

해외파병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필자는 제57공수비행단 2대 단장으로서 1년간 해외파병부대를 지휘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졌었다.

다이만부대의 태동

이어지는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해외파병 지원요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육군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고, 전장지역에서의 공중이동 보장과 동맹국 지원이라는 필수적인 요구에 의해 공군의 해외파병이 결정되었다.

당시에 공군의 해외파병 준비위원장으로 명을 받은 필자는 공군본부 지하벙커에서 6명의 소수인원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파병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부대명칭, 부대마크 도안, 부대가 제정 등 작은 일에서부터 사막피복, 장구류 등 군수지원 문제, 그리고 부대원 선발, 항공기 보호장비 장착, 주둔지 결정과 작전계획 작성, 현지 사전조사단 운영, 부대창설,

사전훈련 등 파병 전 과정을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 8월 31일 제58항공수송단이 창설되면서 두 번째로 해외파병부대장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번 다이만부대 파병의 특징은 전장 지역에 전력을 전개시키면서 순수한 한국예산의 투입으로 항공기 운영과 부대 시설공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해외파병작전을 수행하였다는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파병이었다.

참여를 통한 단결도모

다이만 부대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하였던 부분 중 하나가 ‘리더십 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여 년 간의 공군생활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했던 단어는 ‘사고 예방’ 과 ‘안전’ 이라는 단어일 듯 싶다. 과거에는 한달이 멀다하고 비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리기법과 리더십도 그 방향으로 Focus가 맞춰지게 되고 결국 사람관리로 귀결되게 되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먹이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자발적, 능동적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내는 방법이 사람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대창설 이후 주어진 1개월여를 지휘관 본인의 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한 부하의 감동을 이끌어 내기에 중점을 둔 결과 전우애와 단결

력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부대원들이 휴대용 SAM과 Rocket 및 대공화기에 의한 위협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생존성 보장을 위한 탁월한 전술능력 보유가 필요했으며 임무환경을 예측하여 돌발 사태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Tactical Departure 및 Approach 방법으로 출항 및 접근을 실시하고 SAM 회피 기동 전술을 개발하고 실시한 결과 전장상황하 비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환송행사에서의 다짐

일부 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자이툰 부대의 경우 적지에 싸우러 가는 군대임에도 환송식도 없이 성남공항에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국적기를 이용하여 출국을 하였다. 일부 생각을 달리 하는 단체의 반대라지만 목숨을 걸고 국위선양과 세계평화수호라는 명분으로 파병되는 ‘국민의 군대’에 너무나도 배치되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이만 부대는 국방장관을 모시고 거창한 환송식을 가졌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뜨거운 환경, 그리고 적대공위협 하에서의 임무, 주둔지에 대한 테러 등으로 마음의 각오를 다진 상태였지만 153명 가족들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면서 마음은 더욱 굳어짐을 느꼈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파병에 앞서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들, 남편, 아버지를 안전하게 귀국시키겠습니다. 위협지역에는 제가 먼저

앞장서서 확인하고 다이만 부대 장병이 다 귀국한 후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어려운 현지 여건이지만 근무에 전념하도록 큰 성원 당부 드립니다.’ 출발에 앞서 이렇듯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가슴속에 새기며 나는 조국을 떠났다.

파병초기 작전의 어려움

중동지역 인부들의 느린 공사속도로 기지건설 공사가 예상보다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며 부실부분이 많았다. 부대 전개초기에는 미군과 사전협조를 통하여 공사지연에 대비해 준비된 텐트촌에서 주둔생활을 시작하였다.

24시간 주야 작전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은 이국땅에서 잠을 뒤척일 때 더욱 방해가 되었으며, 5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화장실 이용 또한 밤잠을 설치게 하였다. 기지공사를 재촉하며, 전장지역 비행절차 습득과 이라크 지역 대공위협 등급에 따른 임무기지 선정, 주둔국과의 관계유지 등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바쁜 날들이 지나갔다.

50℃에 가까운 모래 더위와 풍속 30KTS가 보통인 모래바람 때문에 마스크와 방풍안경을 착용해도 입안에서는 모래가 씹혔다. 또한 항공기 정비를 위한 주기장 협조와 정비시설 위치 선정 등 너무도 어렵고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아르빌까지의 자이툰사단 공수의 시작은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중동지역 미공군 공수전력 실태

파병 당시 미국은 전세계를 5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관할하는 지역사령부를 두고 있었으며 그 중 중동과 북동 아프리카를 중부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 지역 항공작전수행을 위해 카타르에 연합항공작전사령부를 두고 뷰케넨 중장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적 위협을 회피하며 공수를 담당하는 미군 C-130 항공기는 카타르에 30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 30대 등 약 60여 대를 보유하고 이 중 가동률은 50여 대였으며 일일 공수소요는 60대가 넘는 수준이어서 10여 대의 부족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공군 다이만부대의 C-130항공기 4대는 전장에서 미군의 부족소요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의 경우 항공자위대 전력으로 3대의 C-130이 쿠웨이트에 주둔하였으나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하는 자국군 지원임무만 담당하였고 임무수행 빈도도 미약하였기에 상대적으로 한국공군의 능력이 단기간에 부각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이만부대 파병전까지 자이툰사단 병력 전개를 위하여 미군 C-130 수송기 1대 이용시 1만 5천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군을 포함한 동맹군 임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부대 전개이전까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3개월여 지나니 우리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방작전의 자부심

많은 VIP들이 다이만부대를 방문하여 그분들을 우리 수송기로 자이툰사단까지 모시곤 했으나 그중 가장 긴장되고 영광스러웠던 작전이 동방작전이었다. 2004년 12월 8일 유럽을 순방 중이던 대통령께서 자이툰사단을 전격방문하시기로 결정 하셨고, 다이만부대는 Air Force One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장지역에서 우리 공군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 주시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태극기가 선명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이국 전장지역인 이라크 상공을 비행한 감동의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발전된 국력이요 한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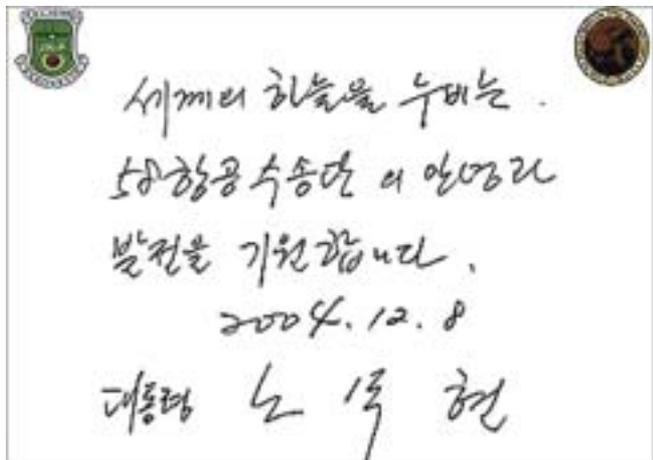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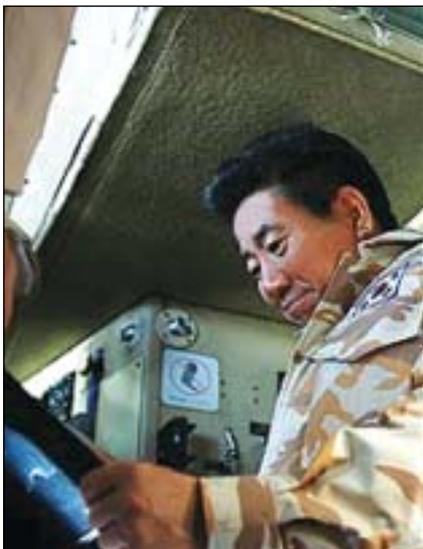
전투임무수행 1,000시간 기록 수립

2004년 10월 12일 파병된 후, 10여 일 후인

10월 25일 작전을 개시하여 12월 29일 약 2개월 만에 1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파병 6개월 만인 2005년 4월 24일에는 전투임무수행 1,000시간 기록을 수립하였다. 임무성과는 9천여 명의 병력과 800여 톤의 군수물자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수하여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우수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단장직을 마치면서 갖는 소회

이렇게 어렵게 시작되어 해외파병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로 이어가면서 초대 단장인 필자는 1진 요원들의 대부분을 귀국시키고 난 후인 2005년 4월말 8개월간의 단장직을 마치고 귀국을 하였다. 현지에 1년 임기의 지휘관·참모들을 남겨두고 떠나와야 했으므로 한편으로는 발이 무겁기도 하였으나 작전운영이 정착되었고 파병장병 생활의 질도 향상되어 큰 걱정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들이 짧았다고 생각되나 한 없이 긴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일들 중에는 임무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자이툰 사단장과 언성을 높였던 일, 어려운 줄 알면서도 참모들을 재촉했던 일, 테러 위협수준이 격상되어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도 쿠웨이트 시내구경 한 번 못한 참모들을 위하여 쿠웨이트 정부와 협조하여 경호 하에 시내 구경을 한번씩 갖게 해 준 일, 사막 중간 중간에 펼쳐져 있는 무기들의 무덤(걸프전 당시 파손된 전차, 야포 등이 끝없이 쌓여 보존되는 지역이 곳곳에 있음), 모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고속도로 중앙 분리 벽에 눈이 쌓인 것처럼 쌓여 있는 모래를 치우기 위해 트랙터가 활동하는 모습, 가나 Catering의 헌신적인 서비스로 미국군과 일본군, 쿠웨이트군에 자랑스럽게 식사초대를 할 수 있었던 점 등 이루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나 무엇보다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부대원들과 한몸 한뜻이 되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과 동맹국, 특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대등하

고 우월하게 임무 완수함으로써 국위를 떨쳤다는 자부심이 가슴 한쪽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열악한 환경과 대공위협이 상존하는 전장지역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된 비행계획과 정비지원, 그리고 우수한 기량을 보유한 한국 공군 조종사 및 승무원이 자랑스럽기 그지없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역사

이제는 2대 하태직 대령, 3대 박장경 장군에 이어서 4대 신종철 대령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부대장이 지휘를 하면서 다이만 부대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희생을 통하여 얻는 보람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희생을 통하여 발전에 기여할 때 우리는 '흐르는 역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오늘의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 가는 역사'의 중심에서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51기 사관 권 올

Operations Enduring Freedom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s Enduring Freedom)”, C-130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대대소속원이려면 이 작전을 위한 파병을 피할 수 없다. 파병이 결정되는 순간 나도 군인으로서 해외 파병에 동참한다는 흥분된 마음과 함께 전장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교차했다. 이라크 파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이라크의 생활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고온, 이라크 저항세력의 보이지 않는 위협,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의 싸움의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야 나도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밟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첫 파병은 7월 초순경 김해기지를 이륙하면서 시작되었다. 김해기지를 이륙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의 연료 재보급, 승무원 휴식과 시차적응을 위한 이틀간의 태국 중간기착, 인도 뭍바이 공항 경유 등을 해야 하는 2박

3일간의 긴 여정이었다. 장거리 비행의 두려움과 외국공항 입·출항, 열대성 기후, 그리고 시차 등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런 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나는 알리 알 실렘 기지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항공기에서 CREW ENTRANCE DOOR를 여는 순간 나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말로만 듣던 무더위와 모래 폭풍이었다. 그렇게 나는 쿠웨이트에서 호된 신고식과 함께 파병부대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쿠웨이트에서 머무르며 보낸 첫 2주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왔지만 이곳에서의 적응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이곳에서의 지상학술 일과도 일과였지만 사막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특히 밤마다 잠을 이루기 위해 잡념과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이라크에서의 첫 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새벽 시간에 대대에서

기상 및 정보 브리핑을 듣고 미군 측 MCC에서 기지 정보사항 등을 확인 후 항공기 STATION 준비를 마쳤다. 한국에서는 늘 지상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비행해왔기 때문에 이곳 이라크 전장의 위협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파병 전 비행 중 지상위협에 대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느낌에 불과했다. 이륙과 동시에 비행은 긴박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어언 파병도 2년에 접어들다 보니 모든 비행절차가 완벽히 SET UP되어 있었고 경험이 많은 고참 기장님을 모시고 비행을 잘 해서 있는지 파병 초년병인 나도 어깨가 으쓱해진다. 항로에서의 미군과의 RADIO CONTACT은 우려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았고 구름 한점 없는 사막 상공에서의 비행은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아르빌 상공에 도착해서는 웬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보이지 않는 저항세력의 대공포, 지대공 미사일과 소화기의 공격 회피를 위한 급강하와 회피기동은 공항 착륙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약간의 긴장이 풀리는 듯하였으나

MAWS가 작동하자 다시 긴장감이 들었다.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를 박격포 공격에 대비하여 지상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지상에서의 TAXI(지상 활주)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인원과 화물의 적하역은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시간만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아르빌 공항을 급히 이륙하여 안전고도까지 상승한 후에야 비로소 승무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들었다. MISSION ACCOMPLISHED!! 전장에서 나의 첫 비행은 이렇게 긴장 속에서 파병 선배들처럼 훌륭히 치러내었다.

힘든 생활환경과 작전환경 속에서 파병생활은 여러 가지 추억과 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으로, 나아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유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에게 감사한다. 뉴스에서 비춰진 이라크의 현실을 보면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다. 단장님의 슬로 건대로 이곳의 사막을 낙원으로 바꾸어 무사히 귀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17기 사관 이문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산업화를 통한 우리나라 발전의 주역이었던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경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념 논쟁이 판을 치고 있다. 국가 안보나 잘 사는 경제 문제보다는 오직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세상을 거꾸로 바꾸려는 세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의 문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터전이었던 공군과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루에 겨우 몇명 정도가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 접속할 만큼 우리는 공사총동창회일에 거의 관심이 없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동창회는 매년 적극 참여하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사관학교 총동창회에는 왜 그리도 무관심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어떤 조직도, 국가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세대 사람들은 변화나 사회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지독한 가난을 직접 체험하면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우리 세대는, 가난이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손 하나 못쓰고 살아오면서 긴 세월 동안 많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 간 좌파 성향의 정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변하였다.

이제 반미를 말하고 친북을 주장해야 대접

을 받는 세상이 되었다.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말하면서 안보를 걱정하면 어김없이 수구골통으로 몰리는 세상이 되었다.

간첩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영웅이나 된 듯 큰소리 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고, 한국전쟁시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른 채 낯선 땅에 와서 죽어간 수천 명의 미군은 모른 척 하면서, 몇 년 전 군사 작전 중 실수로 죽은 미군이, 효순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반미의 단초가 되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 단지 동포라는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이북의 위정자들을 만나보니 핵 개발은 남침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면서 북미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닐 것”이라 했고, “핵무기가 자위용”이라는 북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반미 친북을 교육하고, 한국전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 중 6·25가 언제 일어나고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학생이 50%가 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금강산관광, 개성 경제특구 개발허용 등 경제적인 면에서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만 취했을 뿐 안보에 관련된 군사적 위협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믿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인수, 주한미군정책, 병역기간 단축 등 모든 안보 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한 채 수립되고 있어도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군사전문 집단은 거의 없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북에 다녀왔다. 김대중 대통령 답방으로 서울에 온다던 김정일은 오지 않고, 거만스럽게 우리의 대통령을 안방으로 불러 많은 것을 요구한 듯하다.

당연히 김정일에게 주장했어야 할 북핵 문제, 군포로 및 납북 인사들의 송환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은 공식적으로 언급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니 개혁 개방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들의 눈치를 보며 경제지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북 정책인 듯하다.

경제 지원, 평화 체제 등 선언적인 내용과 백두산 관광, NLL 등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방송과 신문 지상에서는 연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대서특필하였다.

북한에 갔다 온 인사들은 대부분 김정일의 지도력을 칭송하면서 그가 인민들을 굶어죽게 만든 장본임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 대통령은 정당 대표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처음에는 우리 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

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영토도 아닌 그 선을 왜 54년간 지켜 왔으며, 지난 2002년 이를 지키려다가 전사한 6명의 해군 장병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와 같이 혼돈스러운 안보 정책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심란하기 짝이 없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무적으로 왜 군에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보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북한은 근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였다.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친북 좌파 단체와 인사들을 동원해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획책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 의식은 크게 허물어졌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이며, 남남 갈등은 고조되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많은 청소년들은 한국전이 언제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의 가상적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나

의 지식, 친지 등 주변사람들에게 우리의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회에도 학교에도 우리의 안보현실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 전문집단인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안보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군과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갖고 성원하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제 국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군도 발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공중전만으로 전쟁이 종결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공군력 증강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쟁 양상과는 관계없이 군 간의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 확보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상군 위주로 편성된 합참과 국방부의 의사결정체제 하에서 공군력을 증강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모든 항공인이 공군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원하고 지원하며, 현역과 예비역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군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사총동창회 회원 모두가 성무대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닦은 전우애를 바탕으로

로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우리의 세력을 키울 때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더 한층 공고해질 것이다. 선배, 후배가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도움이 되어 주고, 적극적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마지막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역 사회의 일손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봉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를 높이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공군과 항공관련 산업계가 힘을 합쳐

서 한국항공소년단을 창단한 지 2년이 되었다.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항공소년단(young falcons of korea)의 창단 이후 학교와 지역대에서 청소년들에게 항공에 관한 경험을 전해 줄 수 있는 항공인들을 찾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늘과 우주를 좋아하는 항공 과학 인재를 키우고자 했으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우리 항공인의 참여가 너무 적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항공소년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중심에서 있다.

공사총동창회와 공군,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다.



명언

"To Marry is to halve your rights and double your duties."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Arthur Schopenhauer(아더 쇼펜하우어) [독일 철학자, 1788-1860]



18기 사관 구정희

전역 후의 보람된 여생을 위하여!

1. 삶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잘못된 기로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한 행동에 대하여 자책도 하고 후회를 하곤 한다. 특히 국토방위를 위하여 청춘을 바친 후 전역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예비역들이 전역 후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년간 그저 세월을 보내다가, 그동안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자문을 해보는 기회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조우할 경우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수양시가 생각나서 그 구절들을 소개한다.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그리고 근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밀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체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옛날 일들일랑 모두 잊고 잘난 체 일랑 하지 마소.

우리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그대는 뜨는 해 나는 지는 해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우려!

돈,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죽으면 가져 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그렇지만 그것은 걸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 만나거든 술 한 잔 사주고
 손자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아프면 안 되오.

늦었지만 바둑도 배우고 氣체조도 하시구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시구려.

(출처 : '96년 5월 6일 문화일보)

한번 깊게 음미해보면, 늙어서 나이가 든 사람답게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각성시켜 주는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귀한 인격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늙어서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조건들을 제시한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양시라고 생각된다.

과거 현역시절의 자랑스러운 업적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하여 군에서 근무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공명심에 찬 자기자랑보다는 공군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창공의 사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헌신적인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재조명하여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역 후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푸른 제복을 입었던 창공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공군의 모습을 일반사회인들에게 얼마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비역들 가운데는 후배들에게 보여 주었던 현역시절의 멋있는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공군 골프장이나 등산, 테니스, 낚시 등의 활동에 할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데 도전하기보다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한다.

2. 만감의 교차 속에서

우리는 보다 냉철한 마음으로 자신의 최근 생활에 대하여 반성과 평가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나'는 전역한 후에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신을 하려고 몸부림쳐 보았는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한 대부분의 전역군인들은 단절된 사회생활로 인하여 가치관과 인생관의 차이가 사회인과 심하기 때문에 어려서 친했던 친구들이나 중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와의 큰 벽은 선진 각국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경험하였다.

물론 죽마고우나 고등학교 동창생들 간에 환경과 사고의 차이로 인하여 대화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인간적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자주 만나기에도 거북한 입장이다. 이러한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보다는, 현역시절에는 진급과 보직문제로 서로 간에 심하게 경쟁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군대 친구나 동기생들과 만나는 편이 훨씬 좋다. 즉,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원숙한 인격체의 관계로 발전한 전우들과 만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는 말이다. 만남의 매체는 주로 골프, 테니스나 등산이 되며, 각자 부담형식의 간단한 회식자리에서는 특별한 주제 없는 잡담형식과 해답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생활의 모습과 유형이 '나'의 여생을 보람 있게 지낼 모습인가? 그리고 현역시절에 그렇게도 능력 있는 선배로 날렸던 위상은 사라지고, 현재의 공군후배들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나'의 생활은 아닌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여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남아 있는 '나'의 여생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람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냉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체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별로라고 생각되는 현재의 생활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리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변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난하는 그 시간에,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생활의 궤도를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제언을 하기 전에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함께 찾자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만드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꿈은 누구나가 꿀 수 있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성공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인생의 도전입니다.
 행복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무수한 꿈들!
 아름다운 인생!
 그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 봅시다.

골프를 칠 때, OB가 나면 별점을 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관용을 받고 재도전할 기회가 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간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귀한 인생을 위하여, 선현들이나 위인들이 남긴 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여 왔다. 물론 예비역들 가운데는 현역 시절의 모든 영화를 잊고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체력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도전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오락기구들과 눈을 현혹시키는 기술들이 만연되어 시간소일(killing time)하기가 좋은 시대이다. 하지만 삶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은 “당신이 건강한 가운데 적당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생산적인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산적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가지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가 바람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무미건조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걸림돌이 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삶의 핵심요소가 아니고, 그 건강

에 기초하여 어떤 생산적 일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故 John F. Kennedy가 대통령취임사에서 국가를 위한 국민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 유명한 메시지가 생각난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나’라는 인간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이를 자주 잊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 절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를 포기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없었고,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한 후 다시는 존재할 수 없는 지구상에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나’라는 존재가 전역 후에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2007년이라는 귀중한 한 해가 가고 있다. 오늘이라는 귀중한 하루! 어저께 세상을 떠난 망자(亡者)들이 그렇게도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살 수 없었던 귀중한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중한 시간을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예비역들에게는 ‘제2의 인생’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즉,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1960년 53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5년 64세, 1985년 68세, 2004년에 76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10년 79세, 2020년 81세, 2030년 82세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가 전역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세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으로 약 30여 년 간 근무를 한 후, 5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경험도 일천하고, 분별력도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아사리 판 같은 사회에 적응하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50세에 퇴직을 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는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여생(餘生)’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길다. 이는 여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인생을 두 번 산다!’고 하여 어떤 학자들은 이를 ‘이모작 인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예비역들의 현역시절인 제1의 인생을 사는 방식은 대체로 유사-국방안보를 위하여 위국헌신-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2의 인생은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한편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기피 증세 속에서 인생의 후반을 고통스럽게 사는 예비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풍요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예비역들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즐서고 싶은가.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은퇴(retirement)’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은퇴란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삶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퇴직’과 다르다. 50세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퇴직과 은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퇴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륜과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그러므로 공군본부도 전역자들의 대부분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귀중한 무형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역자 자신들도 은퇴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본인도 허송세월식의 노후생활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전역자가 개척하여야 할 제2의 인생의 궤적은 본인 스스로가 결심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 사안이며, 본인의 결정과 변신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삶을 구가할 수가 있다. 전역자 자신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기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부정 행위일 뿐이다. 전역 후에 직장이나 사회봉사를 하다가 재 은퇴를 하는 시기는 본인의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4. 새로운 삶을 모색하면서

이미 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기존 구조의 생활 패턴을 수정하여 다음시기에 적절한, 새로운 생애 설계로 시작하기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전역 이후에 많은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통감하였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모험은 더욱 꺼려진다. 하지만 인생을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첫 걸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군에서 못 이룬 꿈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50은 새싹,
60은 꽃봉오리,
70은 청춘,
80은 한창 때
90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100세에 가겠다고 말씀드리세.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벗있고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가슴 밑에 다 건강과, 꿈과, 사랑을 가꾸며
내일을 향해 힘차게 살아가자...

〈작자 미상〉

그렇다면 제2의 인생에서는 어떤 여생설계의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할까?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가장 조화로운 삶이란 일, 교육, 여가가 균형을 이룬 삶일 것이다.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공부에 전념하였고, 군 생활을 하면서는 국가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휴일도 없이 헌신적인 근무 속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귀중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보낸 세월들은 삶의 균형과 즐거움을 상실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균형은 어느 정도인지’ 자기진단을 해야 한다. 일, 여가, 자기개발, 인간관계, 건강, 봉사활동, 여생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평가하여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숙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삶의 핵심가치와 목표를 정하자. 제2의 인생에서는 삶의 핵심가치와 목표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삶의 목표와 가치가 확고하게 설정되어야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활동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2의 인생에서 일, 교육, 여가의 균형을 잡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나를 받아 줄 만한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전문능력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명심하여야 할 부분은, 자신의 갖고 있는 과거의 경력을 잊어버리고 변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깊이 숙고하여야 할 것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새로운 직업을 모색할 때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물음과 함께 ‘나’의 열정을 진단하여야 한다. 과거 군에서 배웠던 경륜과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신의

강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일하려는 동기, 직업적 가치관, 적성과 타입, 직무역량을 진단해 보고 시도하려는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 회사의 심리검사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이든 사람의 장점은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 통찰력, 무리하지 않는 지혜, 성실성이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한다면 20대 후반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적합한, 꿈에 일치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제2의 인생에서의 직업선택은 70세까지 일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해 가고 있는 요즘은 60대도 일할 욕구가 대단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건강이 유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신의 활동수준을 유지하면서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활력소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은퇴 후의 자원봉사는 아주 좋은 일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은 자신과 남의 건강에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슴에 간직하고 성숙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동기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랑스럽고 또한 본받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삶을 다하는 순간에 그래도 세상은 살아 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준비된 알찬 삶을 실천하고 때로는 수정도 해 가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나'의 삶에는 보람이 충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군의 푸른 제복을 입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서, 전역 후에도 공군의 복지시설을 사용하게 하여준 공군에게 덕만 보는 신세에서 한 단계 넘어 이제는 공군이 국방 안보의 주력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역들과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갖고, 현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신 짐을 지거나 힘을 모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접을 받았던 부분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히 발의를 한다.

5. 오늘 하루에 귀중함을 느끼면서

이 글을 마치면서 3중 불구자이면서 위대한 성자의 반열에 오른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서 고백한,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그녀에게 소중한 시간인가를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하여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제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귀중한 오늘의 큰 가치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 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매일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갖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단 3일의 시간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허송세월 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면서, 보람된 전역 후의 삶을 살기 위한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멋 있는 인생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

“좋은 글 중에서”



11기 사관 명영남

꿈의 사회(社會), 삶의 길

- 목 차 -

1. Dream Society(꿈의 사회)
2. 인간의 수명(壽命)
3. 바람직한 삶, 명품인생(名品人生)의 길
 - 불타는 정열(情熱)
 - 꿈과 비전, 목표
 - 즐거운 몰입(沒入)
 - 혼(魂)과 생명력(生命力) 주입(注入)
 - 인생의 스승, 멘토
4. 지금이 도전(挑戰)할 때이다.

1. Dream Society(꿈의 사회)

-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Dream Society 라는 해일이 밀려온다(JIM DATOR).
 - 정보사회에 이어 곧 드림사회가 도래한다. 바로 꿈과 감성을 사고 파는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ROLF JENSEN).
- 우리 인류는 수만 년의 수렵사회, 3000년의 농경사회, 200년의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

에 도달했다. 그러나 50년 정보사회 다음에는 Dream Society가 해일처럼 밀려올 것이다.

Dream Society는 감성과 이미지, 이야기(Story)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이다. 이야기의 생산, 결합, 유통이 경제의 뼈대가 되며, 이를 토대로 감성적 이야기가 덧붙여질 때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Dream Society에서는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 안에 담긴 이미지, 스토리, 꿈을 판매하고 상품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수단이 된다. 예컨대 나이키는 운동화 자체가 아니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이미지, 스토리를 판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석탄과 철, 석유 등이 국부의 원천이 되었지만 오늘날 정보사회는 정보, 지식과 사회 활동이 핵심 자원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올 Dream Society는 꿈과 감성, 이미지와 이야기가 주축이 될 것이다. 소비자를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정보나 품질이 아니라

꿈과 감성이라는 말이다. 모험, 연대감과 우정과 사랑, 관심, 자아 정체성, 마음의 평안, 신념의 6가지가 이야기를 만들면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미래사회는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며, 사회풍조가 일의 재미, 꿈,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이 들더라도 재미있는 일들을 찾게 될 것이다. 요컨대, 미래는 원하는 사람만 일하는 “자발적 실업의 대중화” 사회이자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면서 자기 집 대신 월세나 텐트 생활을 주로 하는 “신 유목 사회”로 바뀌게 됨에 따라, 일정한 정형과 기준보다는 엉뚱함, 창조성을 강조하는 삶의 길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2. 인간의 수명(壽命)

- 핏속을 헤엄치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로봇이 멀지 않았다(ERIC DREXLER).
- 50대, 20년 버티면 무병장수 한다 (RAYMOND KURZWEIL).
-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인류 시대(新人類時代)가 온다(COREDEIRO).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 생각하는 사람)로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생물학적 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합투성이의 동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시행착오 없이 의도적인 유전자 조작에 의해 더 빠르고 이상적인 진화를 이루게 되면, 인간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 우리 인간은 영생(永生)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학자의 불가능한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를 감안한다면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RAYMOND KURZWEIL은 3단계 수명혁명을 거쳐 무한대 수명연장이 가능해 진다고 전망한다.

- 1단계 : 건강을 위한 노력

현재 알고 있는 건강상식을 당장 실천하면 현 상태에서도 수십 년 생명 연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과 싸우고 활력증진과 수명연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건강한 식사 습관, 적절한 운동, Stress 해소, 뇌 기능 유지를 위한 꾸준한 지적 활동, 유해 화학물질 노출 차단 등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상식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 2단계 : 생명공학 혁명

게놈프로젝트를 1990년 시작하여 이미 인간유전자지도를 완성했으며, 현재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완성단계에 와 있다.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라면 10년 후에는 모든 병의 유전적 해법이 나오고, 15년 후에는 유전자증식과 교체를 통하여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리오

R. 카퍼키(미국 유타대) 교수 등 3명은 특 정유전자가 사라진 쥐를 탄생시킴으로써 인간질병을 유전자(인간은 2만 5,000~3만개) 조작기술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 3단계 : 나노혁명

2020년대가 되면 인공지능을 가진 나노 로봇이 혈관을 따라 돌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나노로봇은 잠수함처럼 혈관뿐만 아니라 세포까지, 궁극적으로는 뇌 신경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이 우리 몸 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쌓여 있는 대사찌꺼기와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DNA를 수리하게 된다. 뇌세포까지 침투한 나노로봇이 뇌신경전달물질(뉴런)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기억력이 재생될 뿐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크게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매년 제곱수로 발전하기 때문에 10년 후에 약 1,000배, 천년 후면 약 10억 배 발전한다. 그러므로 3단계 수명혁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듯 사람의 수명은 3단계의 수명혁명을 통해 무한정 연장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 명품인생의 길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3. 바람직한 삶, 명품인생(名品人生)의 길

-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種)도 가장 현명한 종(種)도 아니요, 변화에 가장 적응하는 종(種)이다(찰스 다윈).
- 정보가 미래에는 거의 값이 없어지면서 물이나 전기처럼 가정으로 배달된다(K.J. 쿠차).
- 챔피언은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 깊숙이 있는 소망, 꿈, 이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무하마드 알리).

우리는 현재 지구촌 정보가 매년 50%씩 급증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에 쫓겨 허둥지둥 보내고, 몇 초 아끼려고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는 데도 뛰어들고, 맛을 느끼기도 전에 음식을 꿀꺽 삼키며, 여가생활도 시간이 아까워 못하게 되는 우유부단과 당황과 stress 속에서 수동적, 피동적 삶을 영위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Dream Society를 맞이하여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지만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선택과 집중으로 정열을 가지고 몰입하지 못하면 허무하고 헛된 삶, 후회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삶은 행동하고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다. 자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무엇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지 반추(反芻)해야 한다. 그것은 일상적 일들을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으로 해보는 몰입이고, 거기서 느끼는 몰입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능동적, 긍정적 삶으로 바꿈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다.

삶은 매 순간 아름답다. 그 순간에 몰입할 때보다 나은 삶이 전개될 것이다.

바람직한 삶의 길, 명품인생의 길은 정열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길이며,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몰입하고 혼과 생명을 불어 넣는 길이며,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 주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길이다.

첫째, 불타는 정열(情熱)을 가져야 한다.

정열은 불이 일 듯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정열이란, 무엇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다.

- 어떤 일을 할 때 명경지수의 심정으로 전심전력하고 전력투구하는 상태이다.
- 자기가 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요, 열중하는 것이요, 심취하는 것이요, 몰두하는 것이요, 몰아의 삼매경에 함몰하는 것이다.
-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상태이다.

Temple大 러셀 코웰 박사가 1차 대전 말 4,043명의 백만장자 인생관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중 고졸 이상 졸업자는 69명(1.71%)밖에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열화와 같은 간절한 소원과 불타는 정열(Burning desire)을 가진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1847~1931)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이상을 새로운 발명품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기 때문에 식사시간과 취침시간을 부인이 일일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평균 10일에 한 개의 발명품을 선 보였으며 큰 발명품은 6개월에 한 번 꼴로 났다. 가장 왕성한 활동시기에는 일년에 400여 건의 발명품을 고안했으며, 일생 동안 고안한 발명품은 무려 1,093가지에 이른다.

- 우리는 정열을 가져야 한다.
- 정열은 인생의 활력소요, 생활의 강장제이다.
- 정열은 우리에게 발랄한 생기를 주고 강한 흥미를 유발하고 끊임없는 활동의 자극제가 된다.
- 정열의 불길이 탈 때에만 인생은 즐겁고 신이 나고 보람 있게 된다.
- 인간의 모든 위대한 예술품이나 발명품은 고귀한 정열의 산물이다.
- 정열이 없이는 고귀하고 훌륭하며 값진 일을 성취할 수 없다.

둘째, 명확한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생즉몽(生即夢)이요, Living is dreaming 이라는 말이 있다. 산다는 것은 꿈을 갖는 것이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가 구체적이며 명확하며 매우 간절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랄케는 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아름다운 꿈을 지너라. 그리하면 때 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 먼 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마음에 끼는 때를 씻어 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다. 아니 그것이 생활을 해치고 나가는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싸움이며 기쁨이다.

꿈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요, 어떤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것이다.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키가 없는 배와 같고 목표가 없는 항해와 같고 의욕이 없는 행동과 같다.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꿈과 생각의 크기만큼 자라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관상어로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5cm까지 크고 큰 강에 방류하면 90~120cm의 대어

(大魚)로 성장한다. 코이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세계의 크기에 따라 조무래기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꿈은 코이가 처한 환경과 같아서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자라게 된다. 꿈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은 항상 커다란 꿈과 함께 시작함을 명심해야겠다. 꿈이라는 밑천은 바닥을 드러내는 일이 없으며 계속 도전하도록 열정을 분출하는 무한의 에너지이다.

셋째, 즐거움으로 몰입해야 한다.

몰입(沒入, Immersion, absorption, engrossment)은 깊이 파고 들어가 빠지는 상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몰입은 즐기는 것이요,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요, 어떤 일에 미치는 것이다. 학문이건, 예술이건, 사업이건, 취미건, 인생만사에는 단계가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첫째는 지(知)의 단계요, 둘째는 호(好)의 단계요, 셋째는 낙(樂)의 단계다. 안다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아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다. 그러나 최고의 단계는 즐기는 단계다. 우리는 이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음악을 알고 좋아하는 단계를 지나 음악에 정열을 쏟고

심취하고 황홀감을 느끼고 음악에 미쳐버린다. 우리는 이런 경지를 삼매경이라 하며, 이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경지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도달하지) 못한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이란 없다. 학문도, 예술도, 사랑도 나를 온전히 잇는 몰입과 몰두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 시대를 열광케 한 지적, 예술적 성취 속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광기와 열정이 깔려 있다.

알젠티의 축구신동 디에고 마라도나는 7세에 축구를 시작하여 15세의 어린 나이에 축구영웅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1986년 MEXICO 월드컵에서 영국선수 6명을 제치고 넣은 골이 '세기의 골'로 선정되어 2006년 독일 World Cup 때는 이 장면이 전광판에 재현되고 영화로도 상영된 바 있다. 그는 작은 키에 짧은 다리의 신체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신이 내린 왼발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는 축구를 알고 좋아하고 즐겼으며 축구에 미치고 축구의 삼매경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삶은 하루 종일 공을 차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축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며, 혼자 있을 때조차 오직 축구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축구인생"이었다.

넷째, 하는 일에 혼(魂)과 생명력(生命力)을 주입(注入)시켜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혼(魂, Soul, Spirit), 생명력(Vital power, Life force, Survival force), 에너지(Energy)를 불어넣어야 한다.

위대한 사업이란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열중하지 않으면 좀처럼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내 영혼을 쏟아 붓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슴으로 감동을 받게 된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가슴속에 영혼과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자의 가슴속에 들어간 생명과 영혼이 살아 숨 쉬면서 깊은 감명과 감동을 일으키고 행동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킨다.

“예술가는 예술에 목숨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벌처럼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가하는 일침(一鍼)에 바쳐야 한다” 미국 시인 Emerson의 말이다.

후쿠사이는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로, 특히 수탉(秀鷄)그림을 잘 그렸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수탉그림 한 점을 부탁했다. 일주일 이내에 그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기하고 또 연기하여 어느덧 3년이 지나가자 그 친구가 화가에게 찾아가 몹시 화를 냈다 한다. 후쿠사이는 자기 친구에게 줄 한 장의 수탉그림을 그리는데 살아 숨쉬는 수탉, 생명력이 들어간 수탉, 혼이 들어간 수탉을 그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

그리고 또 그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 화가의 작업실에 가득 쌓인 수탉그림을 보고서 그의 친구가 크게 감동했다는 일화가 있다.

다섯째, 훌륭한 인생의 스승, 멘토를 만나야 한다.

중국 당나라의 위대한 학자 한퇴지(韓退之)는 사설론(師設論)에서 스승의 세 가지 사명은 첫째 도(道)와 진리(眞理)를 전하고, 둘째 학업(學業)을 가르치고, 셋째 사리(事理)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다. 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Odysseus)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인 테리마 코스를 보살피 달라고 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테리마 코스의 친구, 선생님,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그 후로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단기 집중강좌를 받았다. 수행기간이 길다고 잘 배우는 것은 아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숙수(熟手)솜씨가 더 중요하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부친인 필리포스 2세로부터 5년간 실전교육을 받았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3년간 학문을 배웠다. 로마의 씨저는 술라 장군의 참모로 4년간 전략, 전술을 배웠고, 로마군을 떨게 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도 부친에게서 6년간 전법을 배웠다. 영국을 패망의 위기에서 구하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

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으로 어머니가 있었다.

검도에 수(守), 파(破), 리(離)의 단계가 있다.

- 첫 번째, 수(守)의 단계는 스승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는 배움의 단계이다.
- 두 번째, 파(破)의 단계는 그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 극복하는 단계이다.
- 세 번째, 리(離)의 단계는 고유의 유파를 만들어 스승의 곁을 떠나는 단계이다. 이른바 하산한다는 뜻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이 Cycle이 훨씬 크고 빨라진다고 한다.

훌륭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비인부전(非人不傳)의 철학과 냉엄한 전통이 있다. 중국의 서성(書聖) 왕희지(王羲之)가 자기 제자에게 말한 경구(警句)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스승의 안목으로 사정하여 딱 합당한 인물이 아니면 함부로 예(藝)나 도(道)를 전해줄 수 없다.”

“적임자이면 수업 기간의 다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탁할 수도 있다.”

“그 그릇이 아니면 물려주지 않는다.”

훌륭한 사제지간(師弟之間)의 관계로 선조

때 명의(名醫) 유의태(柳義泰)는 친자식으로 의원인 유도지(柳道知)가 있었지만 제자인 허준(許浚)에게 자기의 모든 의학 지식과 의술을 전하고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주면서 反胃(반위 : 위암)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발견하게 한 스승이다. **허준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선조와 광해군의 주치의가 될 수 있었으며, 1613년 불후의 의서(醫書)인 동의보감을 저술할 수 있었다.**

한국의 바둑황제 조훈현 9단은 10살 때부터 일본바둑계 최고의 원로 **세고에 겐사쿠** 문하에서 바둑수업을 받았다. 세고에는 동양의 천재 세 사람만 제자로 가르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국의 조훈현 외에 일본의 하시모토 우타로(橋本宇太郎), 중국의 **우칭우옌(吳淸元)**을 제자로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세고에는 참다운 스승의 표본이며 찾기 힘든 큰 스승으로 제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다.

세고에는 중국인 **우칭우옌(吳淸元)**이 바둑계의 거성(巨星)이 되려면 경제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바둑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소유한 집과 재산을 외국인인 그에게 다 물려주고 셋방에서 고생하면서 생활한 스승이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 줄 정도로 자신보다 제자 조훈현을 더 사랑했다. 19세에 조훈현이 병역문제로 귀국하여 한국공군에 입대하자 조훈현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바둑공부를** 좀더

하여 세계최고의 기성(棋聖)이 되어야 한다면 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유서를 남기고 자살의 길을 택했다.

“친구, 후배들에게! 한국으로 떠난 조훈현을 일본으로 다시 데려와 대성(大成)시켜 주기 바란다.”

조훈현은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에 15년간(1975~1990) 한국의 바둑황제로 등극하고 세계 바둑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이창호를 제자로 맞이하여 한국최고, 세계최고의 바둑천재로 키울 수 있었다.

4. 지금이 도전(挑戰)할 때이다.

-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후회 속에서 오래도록 닫힌 문을 쳐다보며 아쉬워한다.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헬렌 켈러)
-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투구 하라. 그러면 내일은 한층 더 진보할 것이다(뉴턴).
- 인생의 도전이란 신념을 실천해야 할 때를 말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목표를 향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 그리하여 성공을 쟁취하기 바란다(나폴레옹 힐).

미래사회에는 인간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꿈의 사회가 도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인생을 향유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지만 이러한 희망의 이면(裏面)에는 암울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고 이동성향(移動性向)의 강화로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해져 독신과 미혼모가 증가되고 보편화되어 일인가구(一人家口)가 미래 가족형태로 정착되어가는 추세이다.

미래사회는 남성의 근육질에서 나오는 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고 자녀 출산에서 조차 남자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 67억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냉동정자를 저장할 수 있고 성(性)상대로 로봇이 등장하여 남자가 물리적으로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여 남성의 역할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파워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미래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여성의 힘이 각광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된다.

사냥과 전쟁,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지만 정밀성을 중요시하는 정보화와 인공지능사회, 꿈과 감성이 중요시되는 꿈의 사회에서는 감성적 지능과 사회주변에 대한 감각이 높고 예민한 여성의 우월성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랑을 귀찮게 생각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며 대다수 사람이

심한 우울증으로 약물에 의존한 절망적 삶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적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인류의 우울한 종말이 올 수도 있다. 비극적 종말을 막으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사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바람직한 삶/명품인생을 영위하려면

1. 정열을 가져야 한다.
2.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3. 즐거움으로 몰입해야 한다.
4. 하는 일에 혼과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5. 훌륭한 인생의 스승, Mentor를 만나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앙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말처럼, 남자와 여자가 성차별과 성 구분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남자의 힘으로 기업을 운영, 일자리를 만들고, 전쟁이 없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여자의 사랑으로 아들, 딸 자손을 낳아 가정과 인류를 보존하고 세계와 국가, 사회와 가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앞으로 다가올 Dream Society가 건강과 행복, 보람이 넘치는 인류번영의 유토피아 사회로 발전하도록 초석을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12기 사관 정민남

아침의 산책길에서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작은 새 몇 마리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플요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그 아름다운 행복
작은 산새들이 조용히 플 샅을 헤치며 노는 모습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예쁜 새들의 소리에 한동안 넋을 잃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그 산새들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멈춰 서서 바라보는 저의 모습에 같이 작은 고개 짓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여준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새들은 한동안 저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참새들과 다람쥐, 토끼와 이야기를 즐겼던
프란체스코 성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성인처럼 흥내를 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그 작은 새들의 몸짓에 홀려 바라보며...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면 이 새들의 몸짓처럼,
요사이 이 새들의 작은 사랑처럼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보며 사는 것은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아침 이런 사랑의 삶을 지향하는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21기 사관 금기연

성공하는 선택 비결

사람의 일생을 B-C-D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태어나서(Birth) 끊임없이 선택(Choice)을 하다가 죽는다(Death)는 것으로 인생살이가 바로 선택이라는 사실을 한 마디로 말해줍니다.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선택을 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있을지, 아침을 먹을지 말지, 먹는다면 무엇을 언제 먹을지, 출근을 버스로 할지 전철로 할지 등등 말입니다.

이렇게 늘 하는 선택이지만 항상 즐겁고 자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롭고, 망설여지며,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고, 그도 안 되면 미루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으면 삶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운택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삶이 곧 선택이며,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은 그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느 정도 지속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선택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도 계획도 할 수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의 선택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와 보람 등을 느끼게 하는 평생의 선택이 세 번째입니다.

일상의 선택을 생각하기 위해 우선 몇 가지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사를 크게 봐서 나와 관련이 있는 유관영역과 관련이 없는 무관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영역은 다시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능영역과 그렇지 못한 불가능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텃다는 것은 일상의 나와 별 상관없이 없고, 그래서 무관영역입니다. 어느 날 그동안 해외여행을 위해 돈을 모아왔던 모임에서 좀 특이한 곳을 가보라며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택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무관영역이 아닙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관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이 간다 한들 아프리카의 날씨든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불가능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무언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기온을 알아보고, 여행사와 연락을 해서 언제 어디가 좋은지를 상의해서 시기와 목적지를 조정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영역입니다. 그러던 중 여행사에서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한 팀이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서 빈자리가 생겼다면 계획을 당겨서 일찍 가면 비용을 반으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불가능영역에 속하던 것이 가능영역으로 바뀌면 이는 잠재영역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축구공에 눈을 다쳤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결국 완전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두 어린 동생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은인을 만나 희망을 되찾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맹인처럼 안마사가 되는 대신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특수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느꼈지만 당시엔 미국에서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국비장학생이란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맹인은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규정을 바꾸어 지원이 되었고, 미국에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된 것과 미국에서 유학할 돈이 없는 것은 불가능영역이었지만 공부하고 설득하는 것은 가능영역이었습니다. 이 분은 불가능영역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영역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 결국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고, 미국의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잠재영역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선택에서는 가능영역을 찾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들 불가능영역에 속한 것을 알기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포기하고 시도조차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불가능영역과 함께 가능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능영역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가능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잡고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먼저입니다. 유능하고 성실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은 분명 불가능영역에 속하지만 성심껏 노력하면 분명 가능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 영역이 있음을 알면서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심영역을 지나치게 크고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임원도 아니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동창모임에 꼬박꼬박 나가서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자식을 포함한 온갖 세상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일 등을 곤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처지에 맞게 관심영역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수입니다.

이제 와서 아내의 무관심을 불평하지 말고 미장원에 다녀온 모습에 관심을 보이고 청소기를 대신 돌려 보세요. 부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지 말고 먼저 안부를 전해 보세요. 머리 큰 아이들이 함께 휴가를 보내지 않으려 한다고 포기하는 대신 기간과 예산을 밝힌 뒤 행선지와 일정을 정해보라고 하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돌발상황이 닥치면 **순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품이 나타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장 난 새 휴대폰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다가 마침내 건물로 비싼 차를 타고 돌진하여 몇 백 배

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대해 내키는 대로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하는 것은 **충동반응**입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이 되면 울컥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해배상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또는 평소 인격의 크기가 다름으로 해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가치반응**이라 합니다.

누구나 충동반응을 하지 말고 가치반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되면 또 울컥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을까요? 여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돌발상황이 생기면 우선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동적으로 반응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의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연습하면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방 그 효과를 실감합니다.

생도 한 명이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쿵! 하고 뒤에서 박터니 오히려 고함을 치고 야단이더랍니다. 같이 응대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내렸답니다. 깉듯이 인사를 한 다음 “저는 괜찮습니다만, 어르신,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무안해진 노인네가 실수했다며, 명함을 주고 사고처리를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치반응을 하면 상대방에게 감명을 줍니다.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 학생 말이 저의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똑같이 멱살을 잡고 야단이 났을 터인데, 덕분에 임관을 한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돌발 상황이 생기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평생의 선택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영 맘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데를 왔지? 생각해보니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하게 됩니다.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미리 지도를 봤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잠깐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지만 목표지가 분명하니 금방 바른 길로 들어섭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면 벗어나더라도 언제든지 그곳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로 한 곳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것 또는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랜 군생활로 상명하복에 익숙하다 보니 생각을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생

활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것이 분명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12살 한 초등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내 꿈은 최고의 프로야구선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대회에서 활약해야 한다. 나는 3살 때부터 야구연습을 시작했다. 3살부터 7살까지는 1년에 6개월 정도 연습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1년 365일 중 360일은 맹렬히 연습했다. 1주일에 친구와 5~6시간만 논다. 중·고등학교에서 활약하고 졸업 후엔 프로구단에 입단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억 엔이 목표이다.” 누군지 짐작이 갑니까? 바로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입니다. 일본에서 프로 데뷔 후 7년 연속 타격왕과 골든 글러브상 등 온갖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6년 연속 200 안타와 골든 글러브상, 연간 최다 안타 신기록, 2007년 올스타전 MVP에 이어 5년간 9천억 달러라는 대박을 터트린 주인공입니다.

한국 야구를 무시했던 일본인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무서울 정도로 집중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누구든지 이 정도로 노력하면 이치로 못지않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나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은 75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년 6개월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90세까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니 새롭게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습니다. 경영학의 발명가라 칭송을 받는 현대의 석학 피터 드러커는 재작년에 96세로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또, 매 3년마다 흥미를 끄는 새로운 분야에 몰두해서 소설·수필·음악·미술 등에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못 하란 법이 있습니까? 정년 퇴임 후 텀으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죽기만 기다리다 맞은 95살 생일 때 자식들에게서 생일 케이크를 받는 순간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며, 어학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10년 후에 다시 이런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작가 박완서님의 “요즈음 사람의 나이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생물학적·정신적·사회적 나이가 된다.”고 하셨다는 말씀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선택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는 가능영역에 집중하고, 돌발상황이 닥치면 가치반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평생의 선택입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여야 일상의 선택도, 순간의 선택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선택과 순간의 선택에 좋은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선택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할 때 평생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 평생의 선택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결국 현명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15기 장관 안형균

건강을 위한 하버드 의대 8가지 지침

우리는 적당한 운동과 고른 영양 섭취,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중독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병원에서 받는 선별적인 질병검사나 예방접종도 질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나 병원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도 있는 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자신이 현재 건강하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건강관리를 위한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언들을 따르면 자신의 건강을 확실히 지켜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강한 식생활

음식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즉시 몸에 어떤 해로운 증상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벌에 쏘였을 때처럼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해로운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인 쇠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 등이 많이 들어 있지만, 포화지방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한다.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일단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연령과 관계없이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하는 말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생활 지침의 ABC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력증진을 목표로 한다(Aim for physical fitness).

- ◎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 ◎ 매일 활발한 신체활동을 한다. 이는 건강 체력의 요소인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체중조절은 물론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둘째, 건강의 기초를 구축한다(Build a healthy base).

- ◎ 식품의 피라미드에 따라 식품을 선택한다.

즉, 질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의 섭취비율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함과 동시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어영양의 섭취비율을 최대화시킨다.

- ◎ 가능한 한 정제가 덜 된 다양한 곡류, 과일 및 야채를 매일 충분히 섭취한다. 이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각종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물질, 식물성화학물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함이다.

셋째, 현명하게 선택한다(Choose sensibly).

- ◎ 지방섭취량은 총열량섭취량의 2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때 포화지방(트랜스지방

포함)과 다가불포화지방 및 단가불포화지방의 비율을 각각 5% : 7% : 8%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가불포화지방에 있어서 오메가-6지방과 오메가-3지방섭취는 3 : 1의 비율로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특히 체중 증가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eicosanoids)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 맛이 좋다는 음식점을 찾지 않는다. 소위 맛으로 유명한 음식점은 남다른 조리방법도 있겠지만, 대체로 조미료 맛과 함께 지방의 맛을 잘 살리는데 그 명성의 비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맛이 좋은 음식은 대체로 조미료와 지방이 많이 들어 있다. 조미료와 지방의 맛에 중독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 ◎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식품의 섭취를 줄인다.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식품섭취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백화점’이다. 혈당을 높이는 식품의 예로는 흰 빵, 크래커, 구운 감자, 흰밥 등 정제된 곡식으로 만든 제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소화기관에서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히 높일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되어 버린 쓸모없는 음식들이다. 반면 콩류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잡곡밥 등 정제가 덜된 곡식으로 만든 음식과 야채, 과일은 소화기관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높인다.
- ◎ 소금 섭취량을 줄인다. 소금 섭취량의 증가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 술을 마실 경우 그 양을 적절히 조절한다. 알코올 과다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간질환, 유방암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는 식품의 부패와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 규칙적인 운동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곧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활동(운동)은 가벼운 걷기로부터 강도 높은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그 효과가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모른다.

예를 들면, 심장은 시인에게는 감정을, 군인에게는 용기를, 연애하는 사람에게서는 로맨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심장전문의를는 병리학적으로 심장을 바라본다. 즉, 심장전문의를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동맥이 좁아져 혈전으로 막히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아가 운동생리학자는 운동을 하면 심장동맥을 비롯하여 모든 동맥에서 산화질소(nitric oxide)가 생성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산화질소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화질소는 동맥의 내막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염증이나 동맥을 차단하는 혈전의 형성을 예방한다. 또한 산화질소는 동맥의 근육 세포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여 경련을 예방하고 동맥이 항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산화질소는 동맥을 젊게 한다. 오늘날 병원들 중에 심장전문 병원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맥과 함께 늙어가기 때문에 심장동맥에 탈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스포츠 의학회는 “모든 성인은 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가능하다면 매일 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동 과학자들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50~6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50~60분 정도 운동의 예를 들면, 5~10분 정도 스트레칭→5분 정도 걷기→5분 정도 다소 빠르게 걷기→15분 정도 천천히 달리기(조깅)→10분 정도 다소 힘들게 달리기→5분 정도 걷기→5~10분 정도 스트레칭 순서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3~4일은 이와 같이 걷기와 달리기 운동을, 2일은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설령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가능한 한 신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헬스클럽에 등록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팔 굽혀 펴기, 다리 굽혀 펴기 등, 점심시간이나 남는 시간을 활용해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 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출퇴근 때 목적지보다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아주 좋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루 종일 의자 주변만을 맴돌다가, 점심시간에 50~100m 정도 떨어진 식당에 갔다 오고, 출퇴근 때 차를 타기 위해 100~200m 안팎의 거리를 천천히 걷는 정도는 아닌가. 집에서도 소파에 누워 리모컨으로 TV 채널이나 돌려대는 구경꾼은 아닌가.

나이가 들수록 근력운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90대(87~96세, 평균 90.2세)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근력운동의 효과를 보면, 다리근력은 오른쪽이 8.0kg에서 20.6kg, 왼쪽이 7.6kg에서 19.3kg으로 평균 180% 정도 증가하였고, 근육의 크기도 11%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들도 근력운동을 통해 근력 감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운동의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 효과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이 들어 가장 염려되는 것은 근력이 약해 넘어져 골절되는 것이다. 특히 다리·엉덩이의 뼈가 부러지면 드러눕게 되고, 치료해도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근력운동이다. 지금이 바로 근력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3. 스트레스 관리

오늘날 정신신경면역학(psychoneuroimmunology)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짜증·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과 욕설이나 폭언 등 폭력적인 행동적 반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

생리적 반응의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시상하부)가 반응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그중에 아드레날린(adrenaline)과 노르아드레날린(noradrenaline)은 심장박동과 혈압 등을 증가시킨다. 알도스테론(aldosterone)은 신장에서 칼륨(K)이온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나트륨(Na) 이온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물 흡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 빈번한 혈압의 증가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진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cortisol)은 평소보다 20배 정도까지 많이 분비되는데, 이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혈액 속에 몇 시간, 심지어 몇 주 동안까지 오래 동안 남아서 우리 몸을 망쳐버린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자극하여 혈당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어렵게 한다. 또한 코르티솔은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 면역기능의 약화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특히 면역세포 중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와 세포독성 T세포(cytotoxic T cells)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기억의 창고인 뇌 속 해마에 병변을 일으킨다. 이러한 아주 단적인 예만으로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가 문제다.

◎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사건이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흔히 비행기 납치, 태풍, 홍수 등의 충격적인 대형 사건들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례적이고 드문 사건들뿐만 아니라, 사람 등을 기다리는 것,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 출근시간에 늦는 것 등과 같이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이 모두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골칫거리들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한다. 스트레스는 쌓이는 것이다. 사소한 일상의 골칫거리가 쌓이면 대형 사건보다 정신적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 스트레스는 외부환경에서 스며든다.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환경적 원인으로부터 발생된다.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소음, 오염, 밀집, 폭력, 범죄공포 등이다. 소음은 사람이 듣고 싶지 않는 소리이다. 음악을 어떤 사람은 즐겁게 들지만,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 소음으로 여긴다. 따라서 소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오염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직접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밀집은 우리가 속한 환경의 인구밀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같은 밀도에서도 개인이 느끼는 밀집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의 가난과 폭력의 압박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즉, 길거리 범죄, 조폭활동, 약물거래, 이웃 간의 불화 등 도시환경의 악화는 우울증, 적개심, 성급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 스트레스는 자기 부과적일 수 있다. 학교성적을 올리기 위해 책을 통째로 외우려 들 정도로 공부에 시달리는 학생들이나, 성공을 외치며 불가능한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도록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어진 업무량 이외 더 많은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도 있다. 출세의 사다리를 더 빨리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자신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일거리는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즉,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스트레스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스트레스는 마음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관하여 물어보면, 대부분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은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품이 나오는’ 일상적인 것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자체를 즐기다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하는데, 위층 아이가 뛰어 노는 소리 때문에 위아래 집 사이에 심한 싸움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분명히 윗집 부모는 아이를 달래도 보고 주의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의가 통하겠는가. 뛰어 놀 공간도 마땅치 않은데다가, 초등학교 이전부터 학원이다 과외다 바쁜 와중에 겨우 맘 편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은 늦은 저녁 이후뿐인데, 그 시간에 어디서 뛰어 놀란 말인가. 어린아이는 이렇게 항변한다. 맞는 말이다. 쑥쑥 자라는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정상이다. 뛰어 놀지 못하는 아이는 병들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창 자라나는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옛그제 보았던 그 녀석 참 복스럽게 생겼더군.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까짓 작은 체구에 조금 뛰어 노는 소리에 이웃끼리 감정 상하면서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말없는 아랫집 사람에게 늘 미안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특히 ‘적대감과 분노는 심혈관계에 치명타’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적대감과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이 4~5배 더 많고, 암 등의 원인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가 7배나 된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매우 주관적이다. 결국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 셈이다.

4. 중독성 약물을 멀리하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예방이 가능한 사망 원인 중에 1위에 해당된다. 비록 장기간 담배를 피워왔다고 해도 금연에 성공하면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적절량을 넘어서는 음주도 알코올 중독에 해당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리 몸에 생기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몇 가지 선별검사와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기적인 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법으로 스스로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과 같은 선별검사가 이에 해당된다. 당뇨와 같이 오랫동안 질환을 앓은 환자의 경우에는 항상 몸의 상태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6. 부상의 예방

부상은 미숙아 사망과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커다란 부상을 예방하는 첩경이다. 이러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방법들을

속지해 둘 필요가 있다.

7. 예방접종

과거 50년간 몇몇 질병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의 효과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며 성인에게도 물론 필요하다.

8. 정상체중 관리

식생활 조절만으로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식생활과 운동, 두 가지를 통해서 정상체중을 유지한다면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비만 또는 과체중은 몇 가지 암을 비롯하여 심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국민 건강의 적이다.





19기 사관 이영순

용단폭격과 왜관 낙동강

잊고 싶은 한 역사의 좌표, 지우려 하여도 지워지지 않는 한민족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6·25 한국전쟁! 하지만 반세기의 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경제성장의 급물살과 사상적, 사회적 가치관 혼돈의 소용돌이 뒤안길로 역사의 소중한 교훈들이 망각 안에 서서히 묻혀버리는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아픈 상처를 들추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 전략서의 [전쟁을 방지하려면 전쟁을 준비 하라]는 교훈처럼,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던 이 땅에서의 전쟁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일깨워준 것은 물론, 한국전에 참가한 16개국 젊은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의 넋을 한국인의 가슴에 따듯이 묻고, 그 가족과 후손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평화의 정신을 심을 수 있는 너무나 값진 보물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구호에만 그치는 호국의 고장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심정 가늘 길 없다.

나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만 4년 전, 1946년 6월 18일 왜관 아랫개(下浦) 갯빈(江邊)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 나이로 왜관에서 대구까지 피난갔던 기억 중, 몇 가지 회상은 아직도 선명히 되살아난다. 피난 후 본 집에 돌아오니 갯빈 마을은 유엔군 주둔지가 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이 지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점령을 위한 몽골군의 대한해협에서의 실패, 2차 대전 시 막강하던 독일 군이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지 못한 사례들과 견줄만하며, 그 중에서 왜관 항공작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허물어진 옛 성터의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6·25전쟁 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이 전쟁종식을 목전에 두고,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 인민군 4개 사단과 수개의 기갑 연대 병력 등 약 4만 명이 도하장비를 기다리며 왜관철교/인도교 북서쪽에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미8군 정보부의 정보판단을 접한 사단장 게이 장군은 왜관 북서지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항공폭격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의해서 8월 16일, 왜관 낙동강 북서쪽, 폭 3.5마일(6.5km), 길이 7.5마일(14km)의 27평방마일(92평방km)의 항공작전으로는 대단히 좁은 밀집지역에, B-29 폭격기 98대가 북에서 남쪽의 공격방향으로 융단폭격을 퍼부었는데, 투하한 폭탄의 양이 500파운드(227kg) 폭탄 3,084개, 1,000파운드(454kg) 폭탄 150개나 (육상 중(重)포탄 3만발에 해당) 되는 엄청난 폭탄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었으니 그 결과는 예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다음날 그 지역 항공정찰보고에 의하면 전장(戰場)에 북한인민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과(戰果)에 대해서 총공세를 위해 집결된 인적, 물량적 수치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명타를 입혀, 꼭 한 달(9월 15일) 후의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북한 공산군을 퇴각시킨, 역사적인 큰 두 작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왜관 낙동강 상공에서 이루어진 이 중요한 항공작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지역 주민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쳐 인민군이 왜관 낙동강을 도하했다더라면 인민군의 주력부대를 어디서 어떻게 격멸할 수 있었겠는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감회이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6·25한국전쟁의 고귀한 사료(史料)를 호국의 땅에서 보존하고 영구히 기리기 위해 왜관 낙동강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항공 쇼(Air Show)가 개최되고, 참전 16개국 전쟁기념관을 건립하여 혈맹의 우정을 바탕으로 외교의 보루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의 고장에 있는 현재 두 기념관은 너무도 초라하다.

나의 귓전에는 항상 철교를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6·25 혈투 속에 숨겨진 원혼(冤魂)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그 울음이 멎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외람되이 제언한다.



51기 사관 이선미

날개없는 천사

흑인 여성, 뚱뚱한 몸매, 열네 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 아기가 죽기도 했던 가난하고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진행방식으로 1984년 시카고 WLS TV의 아침 토크쇼를 맡은 이후 십여년 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해온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여성지 '오프라 매거진' 창간, 하포프로덕션 설립, 여성 케이블 TV '옥시전 미디어' 지분 보유 등으로 당당히 세계 최고의 여성 기업가로 나선 그녀.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당히 그 분야의 1인자로 등극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 '오프라 윈프리'.

본인의 이름을 타이틀로 내건 '오프라 윈프리 쇼'는 그녀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진행되며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오프라 쇼는 마약 중독자의 피폐한 삶과 같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조명하여 이슈화시키며,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솔직담백한 인생살이를 들려주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DONATION' 때문이 아닐까 한다.

오프라 쇼에 사업가, 할리우드 스타와 같은 재력가들이 출연하면 그녀는 출연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케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토론하도록 하며 그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어필한다. 자신이 쓰기에도 벅찬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가 자기 재산의 극히 일부분을 제공하여 이웃을 돕고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오프라는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부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녀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다 열심히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데 본인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한다.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물론 얼마 전에는 흑인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전액 무료의 학교를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정치인처럼 뜬구름 잡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다. 배고픈 이에겐 빵을, 잘 곳이 없는 이에겐 잠자리를 마련해준다. ‘기부’라는 제도를 몸소 실천하여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웃과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해주고 가진 자들에게는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희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녀의 마음이 오프라 윈프리를 한 나라의 대통령, 저명한 학자, 종교인보다 이 시대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게 하는 것이다.

나눔의 실천은 반드시 물질적, 경제적 가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보며 그들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자. 우리의 관심만으로도 그들을 웃게 만들 수 있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유명한 건 그녀의 경력도 재산도 아니다. 다만 더불어 사는 사회,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 때문일 것이다.





15기 사관 최광섭

안나푸르나 트래킹

10년 이상 계속 되어온 고교 친구들과의 등산길에서 네팔에 트래킹을 한번 가보자는 제의를 누군가 한 것이 2년쯤 전이었으나 실제로 네팔엘 가기 위해 2006년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 모인 건 제의를 했던 사람 외에 동기 중에는 나밖에 없었고 다른 경로로 들어 더 합류, 총 4명이 한 팀이 되었다. 네팔에는 8천 미터급 고산이 전부 열네 개나 되고 각 베이스캠프(대개 해발 4~5천 미터에 위치)까지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등산 애호가들의 트래킹 행렬이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곳이 ‘안나푸르나’ (Annapurna Base Camp - 통상 ABC로 부름, 4,130m)로 다른 곳에 비해 산행이 쉽고 경치도 뛰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 간 : 2006년 12월 31일부터 10박 11일

2. 참가자 : 4명

- 김 사장(63세, 내 고교 동기들의 등산회를 이끌고 있는 친구로 동국대 산악부장 출신이며 현재 중소기업체 경영)
- 이 상무(55세, 김 사장의 대학 후배로 동국대 산악부 OB팀의 핵심 멤버)
- 곽 고문(62세, 이 상무의 회사 동료), 그리고 나
- * 유 이사 : 김 사장의 대학 후배이며 ‘트래킹 캠프’(트래킹 전문회사)의 네팔 주재이사, 이번 트래킹의 모든 일정 및 준비 담당(트래킹은 참가하지 않았음.)

3. 일 정

- 인천공항을 출발, 상해를 거쳐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도착, 1박

- 네팔의 북쪽에 위치한 ‘포카라’ (네팔 제2의 도시)까지 항공편으로 가고 다시 ‘나야폴’ (트래킹 시작 지점)까지 미니 전세버스로 이동한 후 트래킹을 시작
- 나야폴(1,100m)에서 안나푸르나(ABC 4,130m)까지 올라가는데 4일, 나야폴까지 다시 내려 오는데 3일 등 모두 7일만에 걸친 트래킹
- 나야폴에서 포카라 시내의 호텔까지 미니버스로 이동, 시내 관광 후 1박
- 포카라에서 카트만두까지 항공편 이동, 시내 관광 후 1박
- 카트만두 출발, 홍콩 경유 인천 도착

4. 경 비 : 팁, 항공료(98만원) 등 경비 일체, 1인당 170만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환전 등 개인 일을 마치고 네 명이 check in을 위해 줄을 선 시간이 출발 두 시간 전, 맨 앞의 김 사장은 차례가 오자 여유 있게 항공기 티켓을 건네준다. 카운터 아가씨 : “여권은요?”, 순간 김 사장의 얼굴색이 변하며 앞 뒤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온 집을 뒤져서라도 지금 당장 여권을 찾아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날따라 wife에 다 큰 아들 녀석까지 온 식구가 네팔가는 가장을 배웅하겠다고 따라 나섰으니 일이 여간 잘못된 게 아니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여권을 어디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은 김 사장은 일단 집에 가서 찾아보기로 걱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급히 공항 주차장을 향해 뚝다. 다행히 우리의 중간 기착지인 상해행 비행기가 한 시간 뒤에 또 있어 최악의 경우 상해에서 팀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다. 김 사장은 12년 된 고물 무쏘(주행거리 42만 km)를 타고 최고속도로 여의도 집까지 가서 온 집안의 서랍을 마구 뒤지고 열어 본 끝에 장롱 속에서 문제의 여권을 발견했는데 그게 글썽 마누라의 핸드백 속에 잘 모셔져 있더라는 거였다. 남편이 혹시 잊어버리고 갈까 봐 그 전날부터 잘 챙겨 두고는 그만 깜박 했다던가? 다 나이든 게 죄지, 뭐... 하여튼 그 문제는 해피 엔딩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 출발 10분 전, 우리의 박수 속에 그가 탑승구에 나타났으니까...

상해를 거쳐 카트만두에 도착하니 12월 31일 밤 열한 시, 한국의 새해를 비행기 안에서 맞은 셈이다(네팔의 표준시간은 서울보다 3시간 15분 늦음).

‘트래킹 캠프’의 유 이사가 가지고 나온 고물 지프 차(이번엔 15년 짜리) 위에 짐을 포개 신고 그의 집에 도착, 늦은 저녁을 먹었다.

2007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한밤중에 좀 출기는 했어도 생각보다 날씨가 부드러워 유 이사에게 확인해 보니 네팔의 위도가 우리 제주도보다 훨씬 아래쪽, 즉 상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원래 아열대 지역이어서 이보다 더 따뜻해야 정상인데 카트만두 지역은 해발 고도가 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다소 쌀쌀해서 이 정도(우리나라의 늦가을 날씨)라고 한다. 카트만두는 도시 전체가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 전체 인구의 약 10%(250만 명)가 모여 살고 있어 공해가 대단하며 오전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어 온 도시가 뿌연 상태로 비행기의 이륙이 서너 시간 늦어지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 한다.

- 제1일 -

유 이사로부터 트래킹에 관련된 주의 사항을 몇 가지 듣고 가이드 1명, 포터 4명 등 총 5명을 소개 받아 9명이 집을 나섰다. 결국 우리도 공항에서 네 시간이나 간헐 있다다가 가까스로 포카라행 항공기를 탈 수 있었는데 답답한 것은 안개가 걷히고도 뭘 그리 꾸물대는지 한 시간은 더 지나서야 운항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포카라'로 가는 경비행기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히말라야 고봉들의 신비로운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적어도 십년은 넘어 보이는 고물차 수백 수천 대가 제각기



경적을 울리며 분주히 곡예 운전을 하고 있는 포카라의 거리 모습도 구경거리가 될 만했다. 미니버스를 대절해서 트래킹 출발지인 '나야폴' 까지 가는 데는 비포장도로로 두 시간 반이나 걸렸고 카트만두 공항에서의 지체 탓으로 계획이 많이 늦어져 오후 세시 반이 넘어서야 나아폴을 출발할 수 있었다.

갈아입을 옷이나 마실 물, 간식 등 자주 꺼내 쓰는 물건만 작은 배낭에 따로 넣어 우리가 메고 나머지는 짐은 모두 포터들 책임이다. 포터들은 가이드가 데리고 있는 인원 중에서 선발되므로 대장격인 가이드에게 깍듯이 대하여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가이드는 포터 관리와 일정 전반을 책임지게 되며 현지 말밖에 모르는 포터들과 달리 영어와 한국어를 상당 수준으로 구사한다. 우리 팀의 가이드였던 '유진' (원래의 네팔 이름이 있으나 한국팀과 일을 할 때는 유진으로 통함)은 스물아홉 살의 젊은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영어와 한국어를 잘했는데, 특히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포터들을 부드럽게 다루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었고 매사를 신중하게 잘 처리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그렇겠지만 포터들은 잘해야 낮은 운동화 아니면 맨발에 슬리퍼 차림인데, 사십여 년 전엔 우리도 지금의 저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뛰어난 지도자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 큰 행운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외국을 많이 다녀 볼 기회가 없었거나, 정말 가난했던 오륙십 년대를 살아 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의 넉넉함을 당연한 걸로 알고 그 시절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내는 데만 온 정신을 쏟는 이들도 꽤 있으니 딱한 일이다.

네팔의 포터들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머리(이마)를 쓴다. 긴 끈으로 짐을 묶고 천이나 질긴 종이로 만든 띠를 끈에 연결한 다음 등 뒤의 짐 무게는 띠를 윗 이마 쪽에 두른 채 목을 앞으로 숙이고 힘을 주어 균형을 유지하는데 등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한다. 목 디스크 같은 병이 많을 듯해서 몇 번을 확인해도 문제없다는 대답뿐이다. 하기가 머리 위에 짐을 지고 다니는 우리네 여인들 가운데 나중에 목에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으니까...

트래킹이 일반 산행과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거의 대부분 양손에 스틱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건성으로 짚고 다니면 거추장스럽기만 하나 스틱을 몸쪽에 가까이 짚고 팔에 힘을 주어 체중을 일부 실으면서 걸으면 무릎에 갈 하중의 상당 부분을 팔이 흡수하므로 무릎도 보호되고 양팔 및 상체 운동도 겸하게 되어 효과 만점이다. 내 경험으로는 그럴 경우 주행거리를 50% 정도 늘릴 수 있었다. 즉, 무릎에 오는 피로도도 볼 때 스틱 없이는 10km밖에 못 갈 거리를 양손 스틱 사용 시 15km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으므로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 '사울레바자르' 롯지(lodge)에 도착 후 그만 쉬기로 했다. 롯지는 트래커들을 위한 숙소를 말하는데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15분 정도마다 한두 개씩 있으며 고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간격도 길어진다. 롯지에서는 음식을 사먹는 게 보통이지만 돈을 내고 부엌 시설만 빌려서 자기네 음식을 직접 해먹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부엌 사용료 외에 통상의 식사대만큼 추가 요금이 방값에 붙는다. 참 이상하지만 그런대로 융통성이 있는 규칙이다. 우리 같으면 “다른 음식의 조리를 일체 금한다”고 하고 말았을 상황인데 “꼭 자기네 음식을 먹어야 하겠다면 해 먹어도 좋다. 단, 그 경우 부족한 부엌시설을 혼자 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되니 호사를 누리는 만큼 돈을 더 내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롯지에는 방이라고 해 봐야 나무판자로 된 벽,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1인용 침상이 두 개씩 있는데 침상 위에는 매트리스와 시트, 그리고 베개가 있을 뿐 덮고 잘 것은 아예 없어 각자 책임이고 히팅도 전혀 없다. 해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극심하므로 한밤중, 특히 새벽에는 매우 춥다. 따라서 질 좋은 침낭과 우모 복(거위기슴털을 넣어 만든 겨울 등산용 보온 재킷)이 꼭 필요하고 또 미리 준비해 간 보온 물통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침낭 속에 넣어 두면 네다섯 시간쯤은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

- 제2일 -

한밤중에는 제법 쌀쌀했으나 아침에 해가 뜨면서 너무 청명한 날씨로 바뀐다. 트래킹을 시작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면 나무와 풀들이 산과 들에 가득하고 원숭이들이 괴성을 지르며 나무 위를 뛰어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익숙한 1월 초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이곳의 여름은 너무 무더운데다 계속되는 우기 때문에 트래킹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9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트래킹의 성수기라고 한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네팔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자주 씻지를 못해서인지 깨끗한 용모들은 아니나 모두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까무잡잡한 녀석들은 우리가 보이면 길 옆에 두 손바닥을 벌리고 나란히 서서 웃는 얼굴로 한마디씩 던진다. “나마스떼! any sweets?”. “나마스떼”가 우리로 치면 “안녕하십니까?”라니까 사탕이나 과자 좀 달라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애들이 멀뚱하게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보다야 얼마나 보기가 좋은가? 웃는 얼굴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보는 대로 주다 보니 애들이 끝도 없이 몰려든다. 저 높은 데를 가는 동안 초콜릿이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 어느 정도 주고 난 후부터는 나도 “나마스떼, sorry!”하고는 시침을 떼고 마는데 이 착한 아이들은 그 한마디에 그만이다. 돌아오는 길에 남은 게 있으면 다 주겠다고 생각을 하며 안된 마음을 달랜다. 6·25사변 때 우리도 미군만 보면 되지도 않은 영어로 “쫘쫘렛 기브미”를 외치고 다녔는데...



두 시간쯤 걸은 후에 중간 휴식을 위해 릿지에서 쉬면서 밀크 티(홍차에 우유를 듬뿍 넣은 아주 뜨거운 차)를 천천히 불어가며 큰 머그잔으로 한잔 마셨더니 몸이 다 풀리는 것 같다. 다시 느슨한 경사 길을 두 시간쯤 걷다가 점심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아 한 릿지에서 식사를 주문했다. 볶음밥과 감자칩, 에그 프라이, 그리고 밀크 티가 우리의 점심 메뉴다. 식사 후에는 6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1,000m 가까이 치고 오르느라 세 시간이 좀 넘게 걸려 체력 소모가 많았고 정말 힘이 들었으나 해발 2,170m에 자리 잡은 '촛뿔'의 한 릿지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나니 이젠 좀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난다.

- 제3일 -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 사장이 옆방에서 웬 젊은 친구의 무릎을 치료하고 있다. 절룩거리며 걷는 일본인 솔로 트래커를 보고는 그의 무릎을 타이핑 요법으로 치료해 주고 있었는데 그 방법을 간호사였던 wife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오랜 기간 산에 다닌 이 친구는 평소 등산 시에도 누구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꼭 도움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일본인은 그 다리로도 네팔에만 열 번 이상 트래킹을 왔다는데 대개 혼자 다닌다고 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5,500m) 같은 데를 가려면 산행에만 11일에서 12일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을 동료 하나 없이 다닌다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츄롱'을 출발 후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계곡까지 2,200개나 되는 계단을 내려가 개천을 건넌 후 2,920m에 있는 룻지까지 올라가야 한다. 코스가 크게 가파르지는 않으나 크고 작은 언덕을 수 없이 오르내리며 점차 고도를 취하게 되므로 그리 만만한 일정은 아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가다가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일단 "나마스떼" 하고 현지 말로 인사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생김새나 행동으로 어딘가 느낌이 와서 "안녕하세요?"하고 다시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면 99%는 반갑게 "아! 안녕하세요"한다. 이 배달민족이 너무도 진취적이다 보니 네팔을 비롯해 온 세계를 안가는 데가 없고 그러다보니 트래킹 코스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셋 중 하나는 의례 한국 사람이다. 인도에 배낭여행을 왔다가 네팔 트래킹이 좋다는 이야길 듣고 이곳까지 온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고 한국에서 십여 명씩 한 팀으로 온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젊은 여성이나 사오십 대의 부인들이 혼자 혹은 둘이서 인터넷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해 용감하게 도전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오늘 낮부터 우리 일행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여성이 둘 있었는데 그들에 의하면 인도 전역을 몇 달씩 배낭여행하는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이 수천 명도 넘을 거라고 하며 이들은 혼자, 혹은 둘이 같이 와서 여행을 다니다가 계획이 서로 맞으면 며칠씩 함께 다니기도 하고 방향이 달라지면 곧 바로 각자의 목적지로 갈라진다고 한다. 이 여성들도 두달여 전에 각자 인도 배낭여행을 왔다가 열흘 전쯤 만나 네팔 여행을 함께 하는 사이로 이번 트래킹이 끝나면 다시 인도로 가서 각기 한달 반쯤 더 머물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푹푹 뭉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들이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 또한 기대해도 좋지 않겠는가?

트래킹 코스가 7,000m급 고산인 '히운추리' 봉의 거대한 산허리를 우측으로 끼고 돌면서 점차 고도를 높이게 되어 있고 코스의 아래쪽 계곡에는 큰 개천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삼백 미터를 넘는 낭떠러지 바로 위로 길이 나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어찌다 발 아래쪽으로 까마득한 개천이 보이면 아찔한 기분이 들기도 했으나, 분명한 것은 만용을 부리지 않는 한 트래킹이 안전하다는 사실이다. 2,000m 정도를 지나면서 대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꽤 오랫동안 계속된다. 원숭이들의 괴성과 새 소리가 잠잠해지려는가 싶더니 고도가 2,500m를 넘어 서고 있었고 '히말라야' 룻지(2,920m)에 도착한 것은 해가 거의 넘어 갈 무렵이었다.

- 제4일 -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 아침 여덟시 반에 롯지를 출발했다. 3,000m 이후에는 고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보행 속도를 늦추라는 것이 주의 사항 중 하나였으므로 천천히 걷기로 했다. 무성하던 나무와 풀들이 어느 틈에 사라져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 있고 3,500m를 넘어서니 트래킹 시작할 때 20도에 가깝던 기온이 많이 낮아져서 섭씨 5도 정도로 느껴지고 주변에는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육칠천 미터급 고산들이 병풍처럼 양쪽으로 버티고 있는 골짜기를 따라 걷다 보니 화창한 날씨에 한낮인데도 햇볕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예정보다 다소 이르게 MBC(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3,700m)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에서 묵으려던 계획을 바꿔 최종 목적지인 ABC(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130m)까지 계속 가기로 했다. 이곳부터 ABC까지는 넓고 완만한 구릉으로 되어 있어 걷기에 편한데도 고산 지대의 특성 때문인지 숨이 좀 가쁘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 부지런히 두 시간쯤 걸어 ABC에 도착하니 롯지와 그 주변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롯지의 뒤쪽으로 안나푸르나 남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인다. 그러나 안나푸르나의 주봉(8,091m)은 베이스캠프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 제5일 -

저녁 식사 후 롯지 식당에서 무사 도착을 축하하는 폭탄주를 두세 잔씩 하고 자리에 들었는데 김 사장은 고산병 증세 때문에, 그리고 나는 술 때문인지 컨디션이 썩 좋지를 않아 밤새 고생을 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들어서 포터 하나만을 데리고 서둘러 ABC를 출발했다. ‘데우랄리’ 롯지(3,230m)까지 천 미터 가까운 고도를 부지런히 내려와 일행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쉬며 아침식사를 하고 낮더니 거의 회복이 되었다. 늦은 아침 덕분에 점심을 거른 채 하산을 계속, 저녁 무렵에 ‘시누와’ 롯지(2,340m)에 도착했다. 2,900m 이상에는 전기가 없어 모든 게 불편하고 엉성했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와 따뜻한 물을 조금씩이나마 쓸 수 있고 좌식 변기도 있어 문명 세계로 다시 온 듯했다.

- 제6일 -

느즈막하게 롯지를 떠나 하산을 계속했다. 천 미터 가까운 고도를 내려갔다가 계곡을 지나 다시 2,200계단을 올라가야 ‘츄룽’을 지나게 되는데 일단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려니 힘이 많이 든다. 가다 보니 김 사장과 나만 뒤로 처졌으므로 온천이 있다는 ‘지누단다’ 롯지까지 부지런히 걸었다.

점심 식사 후 노천 온천이 있다는 계곡으로 300여 미터를 내려 갔더니 들던 대로 넓직한 노천

온천탕 세 개가 계곡의 한쪽으로 나란히 자리 잡고 있고 관리인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깨끗이 유지되고 있다.

손을 담그어 보니 물은 40℃ 정도로 목욕을 하기에 더 없이 좋았으나 수영복을 준비 못한 게 문제다. 이런 탕에는 보통 다 벗고 들어가지 않는 게 관례인데 오가는 사람이 없다면야 여름철 북한산 계곡에서 슬쩍 벗고 목욕하던 실력을 발휘해 보겠지만 여긴 사정이 많이 다르다. 우리는 일단 목욕부터 하고 나서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하고 팬티를 입은 채 탕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눈을 감으니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서양 사람들 몇 명이 오더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우리의 위쪽 탕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도착한다. 잠시 형세를 살피는 듯 하더니 부인 쪽에서 말을 걸어온다. “저… 아저씨! 옷은 어떡하죠?” 허, 이거 우리도 팬티를 입은 채 들어온 주제에 뭐라 할 말이 없어 좀 망설이다가 겨우 대답을 한다. “팬티를 입고 그냥 들어오시지요. 뭐!” 부인의 이어지는 질문: “브래지어는요?” 아참, 여자들은 그게 또 있지!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우물거리다 생각을 해보니 이걸 그 부인이 얼떨결에 해본 소리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제정신이 있는 여자라면 처음 보는 남자에게 할 리가 없는 질문이니까…

게다가 사실 그분은 그리 대단하게 가리고 뭐고 할 것도 없어 보였다.

하여튼 목욕을 잘 하고 나니 몸은 날아 갈 듯 시원한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갈아입을 팬티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의논 끝에 저녁에 룯지에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그냥 노 팬



티로 바지만 입고 하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의외로 엄청 시원하고 여러모로 편해서 좋았다. 두 시간을 더 내려와 ‘뉴브리지’ 룯지(1,340m)에서 하루 밤을 쉬었고 이튿날은 개천을 따라 여섯 시간을 더 걸어 출발지인 ‘나야꿀’에 도착, 총 7일간의 트래킹을 끝냈다. GPS에 찍힌 왕복 거리가 총 89km라고 한다.



18기 사관 이봉길

인도 속으로

뉴델리 가는 비행이 있는 날이었다.

승무원들 사이에는 ‘예나 지금이나 인도는 고행길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도행은 멀고 힘든 비행이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찾아 나서는 행로였다.

그 즈음 조종사들에게 뉴델리 비행은 별로 인기가 없는 노선이었다. 우선 건디기 힘든 그곳의 기후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문제였다. 다음으로 중국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8시간 동안 날아가야 하는 비행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문화가 그랬다.

나도 처음 몇 회는 더위를 무릅쓰고 같이 간 승무원들과 인도음식도 맛보고 관광을 즐겼으나 얼마 안가서 싫증이 났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휴식은커녕 건디기 힘든 기후와 생활환경에 지치고 말았다. 한낮에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기온과, 바람이 일 때마다 황토 먼지가 휩쓸고 지나가는 건조한 기후와 불결한 거리가

호텔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발을 묶었다. 어쩌다 창밖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호텔 문을 나서면, 따가운 햇살과 숨 막히는 열기에 몇 발짝도 떼지 못하고 얼른 되돌아오곤 했다. 기온이 좀 수긋한 오후 시간에 시내를 나가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뉴델리와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울드델리의 거리를 건다보면 난생 처음 보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에는 흙먼지 속에 사람과 차가 뒤섞여서 서로 몸을 부딪고 다니며, 자동차의 경적과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에 그저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길가에는 간이 이발소, 노점상, 외국인만 보면 따라다니며 물건을 사라고 조르거나 관광 안내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또한 길거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보면 옷자락을 붙들면서 구걸하는 아이들과 마주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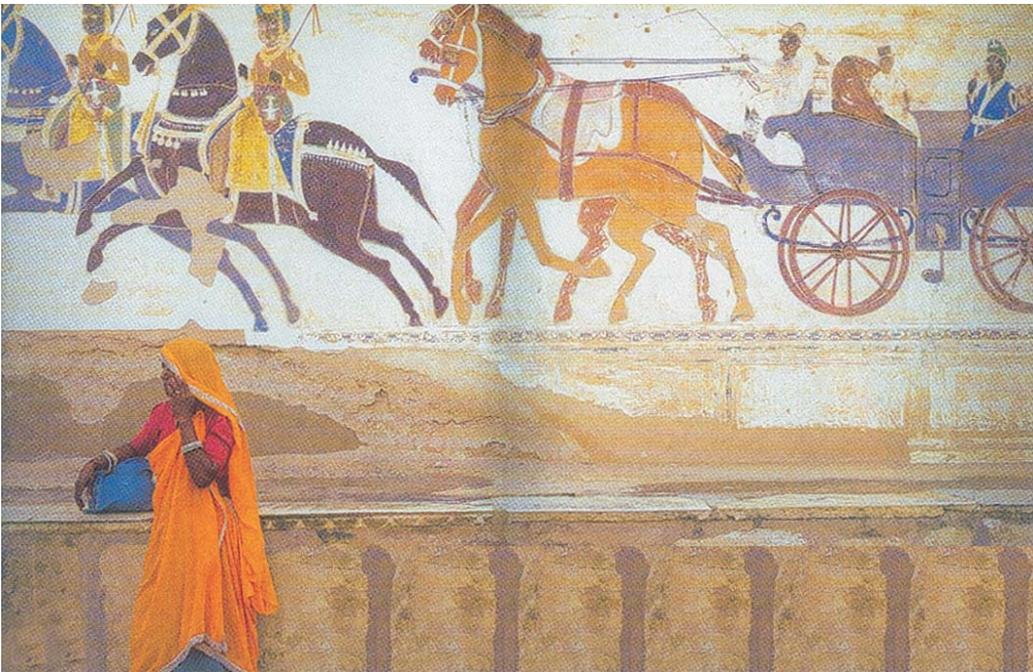
끼니때가 되어도 시내에서는 입맛에 맞는 마땅한 음식점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한번은 깨끗한 식당 한 군데를 찾아 먹을 만한 음식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양념과 향신료가 든 커리와 밥이 나왔다. 그런데 수저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손으로 먹고 있었다.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나는 숟가락을 달라고 해서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쫓기듯 식당을 나왔다.

주택가를 지나게 되었다. 마을 한쪽에는 블록 담벼락이 둘러진 집들이 있었다. 담 안쪽에는 이삼 층 현대식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딸린 저택이 늘어서 있었다. 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고급 외제 승용차에 기대앉아 경비원의 깎듯한 인사를 받고 있었다. 담 바깥쪽에는 그 담벼락에 의지해서 오두막을 짓고 길가에서 밥을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최상의 것과 최하의 것, 극단에서 극단까지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직접 인도에 가서 보고 겪은 것들은 그동안 내가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딴 세상 같았다. 마하트마 간디와 수많은 성자의 나라, 신비와 명상, 그리고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는 무질서와 혼돈, 가난과 버림의 거리를 보았을 뿐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겨울날 뉴델리행 비행을 하게 되었다. 통상 이 항로는 자정 무렵에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겨울에는 그 지역의 심한 밤안개 때문에 몇 시간 앞당겨 저녁시간에 착륙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날은 몇 시간 일찍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느즈막한 오후시간에 인도 상공을 날게 되었다.

캘커타를 지나고 인도 땅 깊숙이 들어왔다. 멀리 몇 조각의 뜬구름 사이에 눈부시게 희고 빛나는 한 무리의 구름덩어리가 보였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종석 오른편 창으로 또렷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히말라야 산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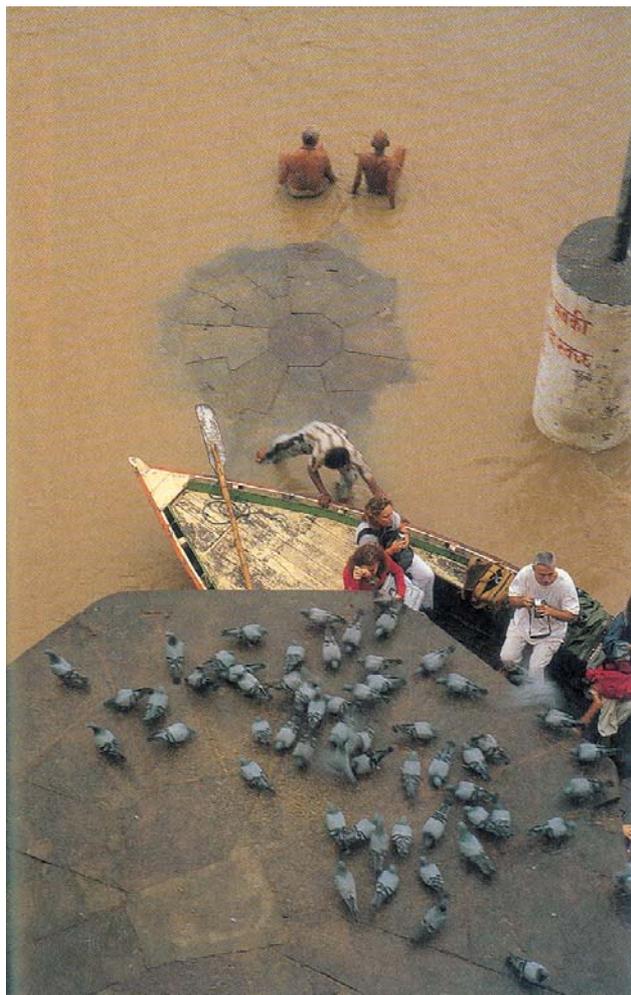
조종석에 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만년설을 쓰고 있는 칠팔천 미터 높이의 우람한 산들이 키를 다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못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동안 비행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부신 설산만 내 눈에 가득했다. 눈 덮인 산들은 하늘에 닿아있었고 그를 쳐다보는 나는 까마득히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지구의 지붕 파미르를 머리에 이고 동서로 2,500킬로미터나 뻗어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나란히 나르며 어둠이 깔릴 때까지 웅장한 자태로 솟아있는 산들만 쳐다보았다.

왜 위로 쳐다보았을까? 당시 항공기가 날고 있던 고도는 12,000미터였고 산들은 8,000미터 높이인데. 위대한 것은 높게 보인다고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던 산들이 지금도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높고 위대해 보이는 눈 덮인 고봉들

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없이 낮은 곳에 있는 무한히 작은 존재로 느껴졌다.

그날은 여느 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하였으나 낮에 보았던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감동으로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튿날 나는 혼자 올드델리로 나갔다. 늘 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이번에는 시내버스를 탔다. 땀 냄새와 향료 냄새,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가득 찬 만원버스에서 마땅히 붙잡을 곳이 없어 이리저리 흔들렸다.



거리는 여전히 차와 사람이 뒤섞여서 왁자지껄했고, 먼지와 소음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발 닿는 대로 이 거리 저 거리,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길가에서 파는 음료수를 사 먹고, 다리가 아프면 그늘에 모인 사람들 틈에 끼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쉬었다. 어제 히말라야를 바라보며 스스로 비춰본 자신의 작은 모습이 나를 다시 이 거리로 나오게 했고 그들의 생활 속으로 견게 만들었다.

노상에서 간판도 없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가 하나 있다. 거기서 일하는 열두어 살 되어 보이는 소년이 맨손으로 기계를 만지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고장난 차에 기대선다. 기름때가 묻은 그의 손에는 새까맣게 그을린 캔 컵이 하나 들려 있다. 짜이라고 하는 흥차를 후후 불면서 마시는 얼굴에는 천진한 미소가 흐르고 있고, 차를 마시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무척 즐기는 표정이다.

거리마다 구경할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았다. 노점에서 물건도 사고 먹고 싶은 과일도 샀다.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보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다.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 문을 열었다. 창가에 있는 빈자리에 앉아 물 한잔을 쭉 들이켜고 나니 목마름이 가신다. 밥과 고기가 섞인 커리가 나왔다. 역시 수저나 포크는 없었다. 나도 그들처럼 손가락으로 질퍽질퍽한 커리와 밥을 적당히 버무리 초밥만한 크기로 만들어 입에 넣었다. 매콤하

고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났으나 고기가 부드럽고 밥맛도 괜찮았다. 한참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멧쩍게 웃었고 그들은 두 팔을 들어 올리며 어서 먹으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들의 음식을 그들이 먹는 방식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 마음이 느긋해지고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의자도 편하다. 창밖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이 간다.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식구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사들고 짊어짐으로 지나가는 여인네들이다. 우리네 생활과 무엇이 다른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동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몇 번은 어색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먹는 것이 금속 숟가락을 쥐는 것보다 쉽고 편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주보고 웃으며 서로 마음을 열었다. 여태까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구하려 다녔던가?

인도는 가난하고 더럽다고들 한다. 그들은 뒤를 보고나서 왼손을 사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는다. 코를 풀고 눈곱을 떼는 것도 왼손이 하는 일이다. 목욕은 오른손으로 상체를, 왼손으로는 하체를 닦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다. 단지 수저로 밥을 떠먹고 화장지를 쓰는 우리들과 생활방식이 다를 뿐이다. 음식은 먼저 눈으로 음미하고 그 다음은 손가락으로, 그리고 혀로 맛을 느낀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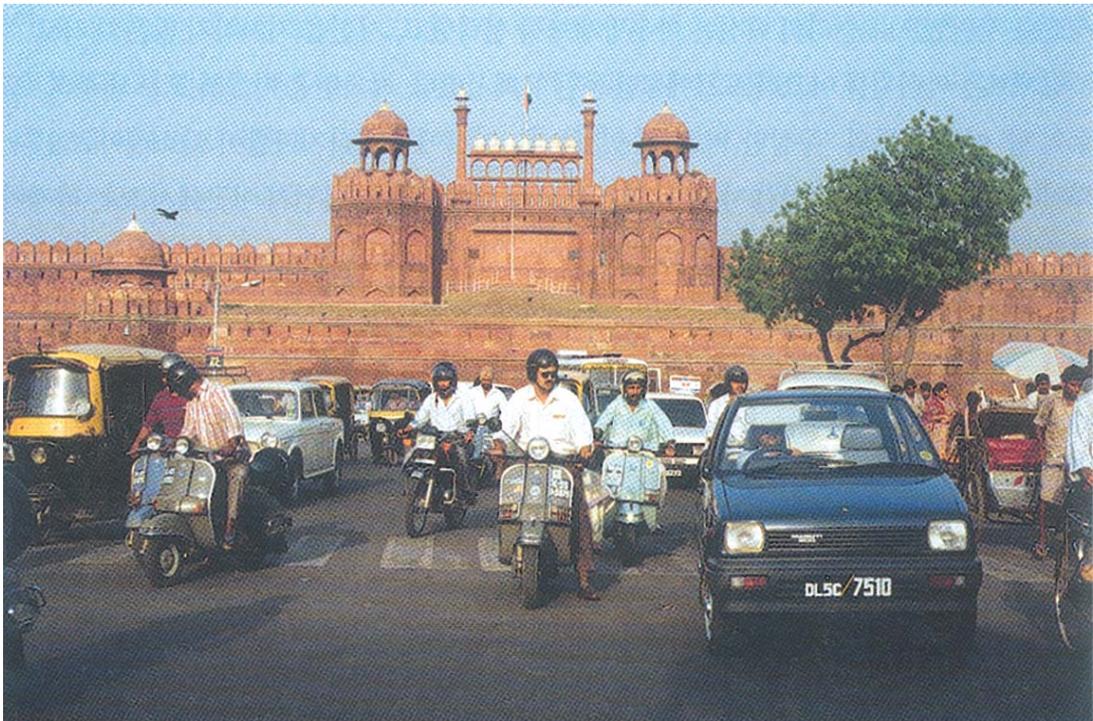
손으로 제 몸을 다스리는 인도인을 누가 더럽다고 말할 것인가.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가진 사람은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없어서 구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게 해주었으므로 고마움을 표시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에는 인구수만큼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믿음을 인정하는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궁극적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전통적인 계급사회를 폐지했다지만, 그 계급 속에 끼지도 못하는 천민이 있다. 간디가 '신의 아이들'이라는 뜻의 '하리

잔'이라 불러 준 사람들, 그들은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 중간에 선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이라고 한다. 네 가지 계급 중에서 마지막 노예 계급인 수드라와 하리잔이 전체 인구의 반이나 된다고 하니, 어찌 잠시 걸모습만 보고 그들의 삶을 알 수 있을까. 윤회를 믿고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없다면 하루도 살기 힘든 땅, 그래서 인도는 무거운 땅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안고 태어난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면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믿고 있다. 이승의 생은 짧은 것이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것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도인은 여유롭고 그들의 표정은 편안해 보인다.



사람들은 인도에서 신비한 세계를 찾으려고 한다. 신과 믿음, 사랑, 요가, 명상 등 인도에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삶 자체가 신비인 것 같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그들의 일상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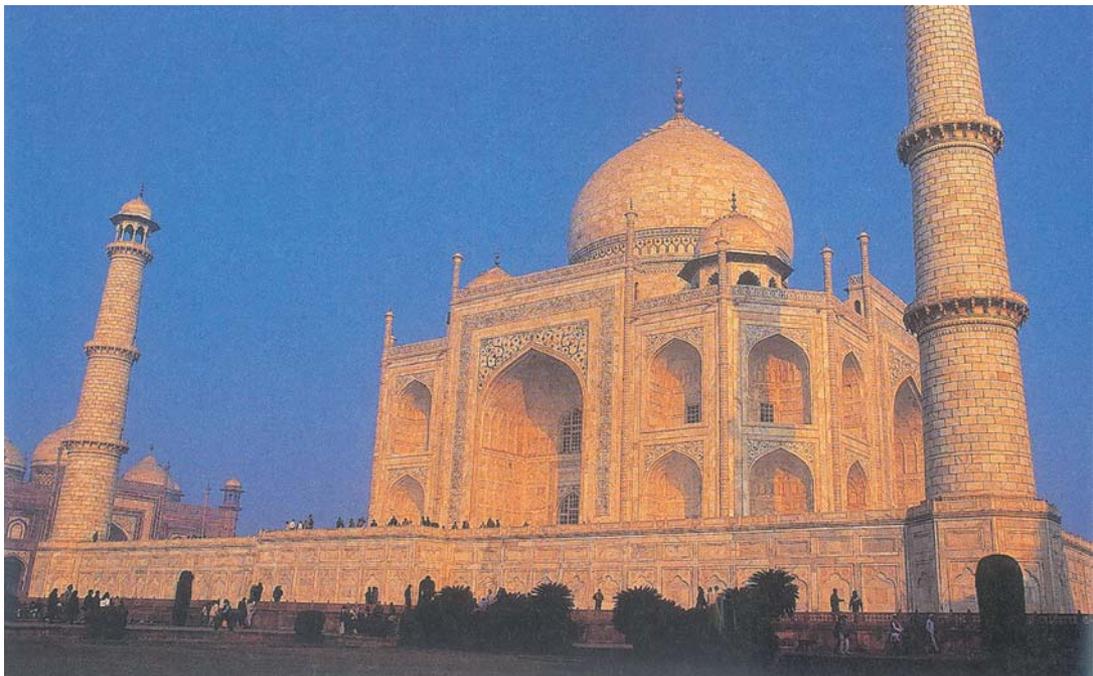
그동안 나도 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신비로운 어떤 정신세계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인도에서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얻고 자기 만족하려는 것 자체가 사치

요 허망한 일인 것 같다.

욕심 때문이었다.

진정 인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짧은 지식과 몇 번 오가며 혼잡한 거리와 그들이 사는 걸모습만 보고 느낀 잡다한 생각들을 모두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다 털어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그들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이보다 인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도는 내게 광활한 숲과 같다.





15기 사관 김성덕

가보자, 해보자, 달려보자

여행, 그 중에서도 세계를 누비는 여행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평소 “가보자, 해보자, 먹어보자”를 모토로 살아오면서 유난히 여행을 좋아했던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을 누벼보리라 했었지만 몇 년 전 내게 찾아온 “오십견”으로 여행이고 뭐고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 무거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도 아프던 어깨, 즉 오십견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때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몰라. 나이도 그렇고...”하는 생각이 들게 된 나는 즉시 아내와 함께 세계여행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어쩌면 오십견의 아픔이 나의 세계여행을 실현시켜 준 일등공신일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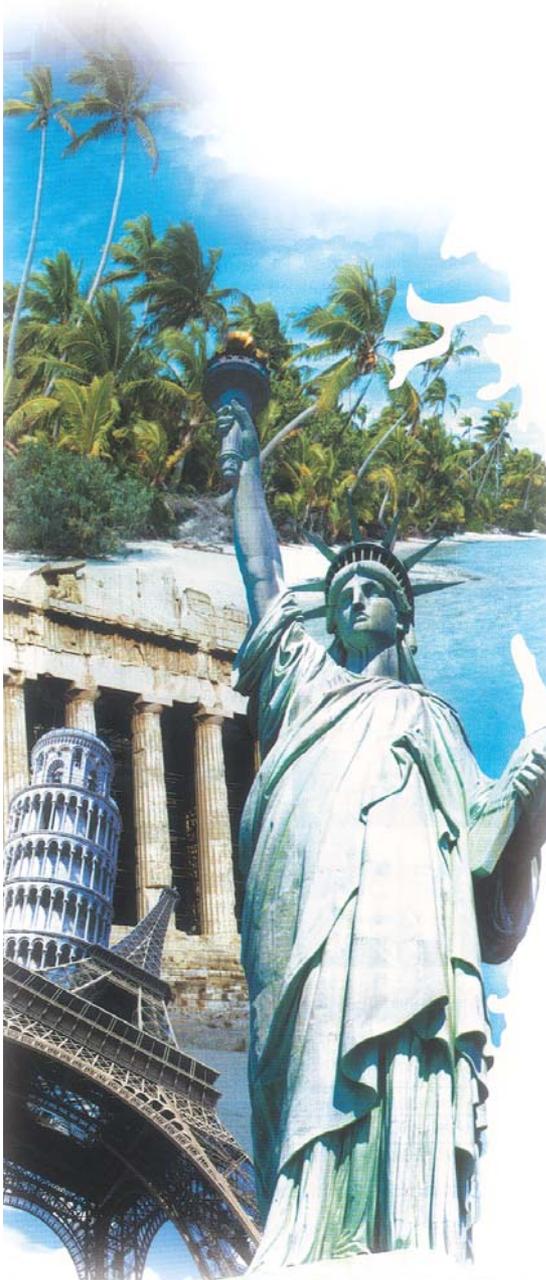
즉시 인터넷을 뒤져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파는 1년간 유효한 세계일주 티켓을 일인당 1,300달러에 구입하고(서울-샌프란시스코/뉴

욕-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싱가포르/싱가포르-서울 이렇게 4번 탈 수 있는 표) 미국에서는 방문비자로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처음 6개월은 미국, 캐나다에서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유럽에서 지내기로 하였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배낭여행으로는 여러 군데를 구석구석 다녀보기도 어렵고 또 1년간 여행에 필요한 도구를 다리도 튼튼치 못한 형편에 지고 다닐 수도 없기에 자동차 여행을 생각하게 되었다.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340일간 다녔던 미국과 유럽의 여행 중에서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본다.



- 2004년 상반기 미국대륙에서의 6개월간의 여행 -

미국 샌디에이고에 사는 여동생 집을 베이스캠프로 생각하고 여행 동안 사용할 옷이며 생활도구 등을 배편으로 미리 부쳐놓고는 여행 다니면서 어린 시절 했던 여름방학 숙제처럼 그림일기 대신 사진일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노트북을 하나 샀다.

2004년 1월 18일 동생의 집, 즉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6개월간 타고 다닐 중고자동차 한 대를 6천8백 달러에 구입하고, 여행 도중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자동차협회(AAA)에 입회비 68달러를 내고 가입했다. 이곳에서는 회원이 여행 시 필요하다는 지도는 물론 여행 루트 등도 알려주는데 편의점 같은 곳에서 1장에 4달러 정도하는 지도를 50여 장이나 무료로 받았다.

또한 AAA에 가맹한 전국의 모텔이나 호텔은 회원들에게 숙박료의 10~15% 할인도 해주어서 6개월간 100회 이상 모텔 호텔을 이용한 우리는 1,000달러 정도는 절약을 한 셈이다.

그리고 여행 중 베이스캠프 또는 친구나 친지, 한국의 아이들과 통화할 핸드폰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장만했고 국제전화까지 가능한 전화카드도 샀다. 장기간 여행이다 보니 끼니마다 매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한국식품

가게에서 쌀, 고추장, 된장, 즉석 국, 김치, 양념, 김 등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선편으로 부쳤던 생활용품과 옷가지 등과 함께 준비했고, 자동차 여행이라서 자칫 운동부족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기회 닿는 대로 여행 중 만나게 될 친구, 친지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 골프채도 두 세트 차에 싣고 떠났다.

우리가 여행을 시작한 계절은 1월 말. 미국 북부는 너무 추울 것 같아 우선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으로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지를 거쳐 남동쪽의 플로리다, 다시 북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메인을 지나 캐나다의 동북쪽 끝 일부를 거쳐 미국 북부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고 다시 서남쪽의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2004년 1월부터 7월 초까지 6개월간 미국을 한 바퀴 돌고나니 약 5만km를 달렸다.

여행 중에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우리 두 사람의 친구나 친척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보고 같이 골프도 즐기고 그들이 추천해 주는 주위의 명소들을 마음껏 둘러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가보고 싶은 박물관, 미술관,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공연이

나 영화 외에는 주로 국립공원을 위주로 찾아가 보았다.

미국은 땅도 넓지만 국립공원은 그 하나하나가 색다른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다. 미국 내의 국립공원은 한번 입장료가 5~15달러 정도 되는데 50달러를 내고 미국 국립공원 패스를 하나 사면 1년간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에 입장을 할 수 있다. 우리는 6개월간 적어도 30군데를 둘러보았으니 300달러어치를 50달러에 해결한 셈이다.

우리의 여행을 부러워하던 나의 친구 중 여행 출신인 친구 한명은 금년 봄 미국 서부지역을 한달간 여행하고 돌아오더니 이번 여행에서 9천6백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을 한다. 이야길 들어보니 둘러본 경치가 1억 원어치쯤 되는데



여행비용이 4백만 원 들었더니... 아무튼 각각의 국립공원에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독특하고 멋진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가 다녀본 중에 비록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공군출신인 나의 흥미를 매우 자극했던 곳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2004년 4월 9일,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한 지역에 골프장 350개가 모여 있고 레스토랑은 1,000개가 넘어 매일 세 끼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더라도 1년이 꼬박 걸려야 모두 돌아볼 수 있다는 작은 도시 머틀 비치(Myrtle Beach)에서 이틀간 머무른 후에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자 라이트 형제가 100년 전 비행실험을 했다는 키티 호크(Kitty Hawk)를 향해 페리를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찾아갔다.

라이트 형제는 그들이 만든 글라이더 형태의 비행기를 띄우는 실험을 위해 미국 기상청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 세 군대를 추천받고 답사해 본 결과 그 중 키티 호크의 킬 데블 힐(Kill Devil Hill)이라는 높이 27m의 언덕을 찾아냈다. 이 언덕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모래로 되어 있어서 글라이더를 끌고 올라가서 날아내려 오다가 떨어저도 몸을 다치거나 글라이더가 크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정하여 실험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라이트 형제의 기념장소(Wright

Brothers National Memorial)로 지정되어 있다.

라이트 형제는 68kg 정도 되는 글라이더를 언덕 위로 끌어올린 후 타고 내려오면서 작동 방법, 양력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고 한다. 천 번도 넘게 그 언덕을 오르내렸던 그들은 드디어 1903년 12월 27일 처음으로 시험비행을 성공하였는데 이날 4번째의 비행시도에서 59초간 260미터를 날았다고 한다.

킬 데블 힐 언덕 아래에 있는 광장에는 당시 그들이 날았다가 착륙한 지점 네 곳에 1차시도 몇 초간 몇 미터, 2차시도 몇 초간 몇 미터 비행... 등이 새겨진 큰 돌을 세워 놓았다.

광장 한쪽에는 라이트 형제의 최초비행으로부터 현재의 우주항공시대까지 발전되어온 과정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기념관이 있고 당시 사용했던 글라이더 모형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동력으로 전환했는지 등을 설명해주는 곳도 있어 흥미롭다.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해 보였다.

이런 끈기와 모험심, 연구심 등이 오늘날의 우주항공의 역사를 이룬 기초가 되었다니 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국공군들도 미국방문기회가 있을 때

이곳을 꼭 둘러보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우주항공에 앞장 설 우리공군의 모험심과 연구하고 노력 하는 마음가짐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키티호크의 킬 데블 언덕에는 오늘도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리라.

6개월간 북미대륙을 한 바퀴 돈 후 베이스캠프로 돌아온 우리는 동생내외들과 함께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로 내려가 원시생활이나 다름없는 캠핑과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그간의 피로를 풀었다.

6개월간 5만km의 기나긴 여행을 마쳤는데도 고장 한번 없었던 중고차를 4천 달러에 팔고 가벼운 마음으로 황인영 동기생이 있는 독

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행하는 동안 거의 실시간으로 사진이며 일기를 홈페이지에 열심히 올렸고 친구, 친지들은 우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사도 나누고 격려도 해 주고 가 볼 곳을 추천도 해주어 거의 같이 여행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었다. 귀국 후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우리의 여행을 같이 따라하지 못했던 주위사람들의 성화에 힘입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을 토대로 “가보자, 해보자, 달려보자” 미국 편과 유럽 편 등 책 두 권을 출간하였고, 지금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우리의 홈페이지(<http://www.gaboza-haeboza.com>)에는 아직도 자세한 일기와 사진이 올라 있다.





1기 사관 동정



62회 UN의 날을 맞이하여 공사총동창회 후원으로 1기 사관 출격조종사와 참전용사 18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6·25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고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참전 16개국의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협조로 부산에 있는 UN묘지를 전 참모총장 장성환 장군을 모시고 참배하였다. 1기 사관 명의의 조화를 장성환 총장님과 1기 사관 회장이 같이 헌화하고 모두가 같이 묵념하였다. 4만여 명의 UN군 전몰장병들의 보지 못했던 참혹한 그들의 모습이 선하게 나타나 주는 것만 같았다. 참배 후에는 김현천, 홍순상, 이부식 3명의 공동 스폰서들이 오늘 모임을 위해 회 정식으로 성대한 오찬을 베풀어주었고, 안내장교의 안내로 무사히 귀경케 되었다.

오늘 1기 사관 회원들이 참배한 뜻은 비록 노병이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아직도 남아있고, UN묘지를 항상 기억하고 계속 추모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5기 사관 동정

전우회에서 각 기생별로 할당하던 골프 팀이 2007년도를 끝으로 제외됨에 따라, 20여 년 간의 동호회 역할로 기생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었는데 아쉬움과 모임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로 마지막 골프 회를 서울 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지난 10월 22일 거행하였다. 5기 사관 임관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재미 동기생 내외가 모국 방문한 기회를 통해서 기생회 주관으로 운영위원 15명이 참석한 환영 및 환송을 겸한 오찬모임을 공군회관에서 화려하게 열었다.

일시 : 2007. 9. 30. 12:30

재미동기생 : 박진숙 내외

참석 : 5기 사관 기생회 대표 15명

선물 : 한국공군, 사관학교를 상징하는 모자, 운동복, 배지 등 일체





9기 시관 동정

건강한 70대를 보내고자 9기 은하회는 산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매주 화요일은 등산의 날’로 정하고 부부동반하여 산행을 즐기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우나 더우나 눈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GO’라는 슬로건 아래 가끔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년 반 동안을 이어 오면서 전천후 등산가족이 되어 가고 있다.

만나면 우선 반갑고, 산길을 오르면서 땀을 빼고, 내려오면서는 한 주간 쌓인 회포를 말끔히 씻어버리려는 듯 큰 소리로 떠들고, 하산 후엔 한잔 술에 옛 추억을 찾아 실컷 웃어보며 불참자에 대한 씬는 맛 또한 술맛을 더해주는 뒤편이, 계절따라 이산 저산을 넘나들며, 이번엔 내가 쏜다. 다음엔 내가 예약하자...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의 건강이 70대를 넘어 80대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14기 시관 동정



제14차 공사총동창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였던 14기 시관은 추가로 획득된 광고자금을 모아 9월 18일 동기생 대표, 전임회장 이용석, 총무 박진재, 전임 총동창회회장 이억수, 전임 사무총장 김길상 등 4명은 공군사관학교장(소장 박종헌)을 방문하여 일금 500만 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15기 시관 동정



성익회(15기 사관)는 1년간('07. 7. 1.~'08. 6. 30.) 제15차 공사총동창회 회무를 맡아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총동창회장 김주식, 사무총장 최영상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성익회원 모두는 전원 부회장 및 운영이사 역할을 분담하여 공사총동창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7. 7. 28.은 44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한 김대욱 동기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다시는 볼 수 없는 슬픈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남은 40여 명은 먼저 가신 동기들(10명)의 못 다한 몫까지 챙기며 살자고 뜻을 모았다.

건강증진과 친목강화를 위해 등산(매주 1회), 골프(월 3~4회), 여행(반기 1회) 등 취미활동을 동호인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16기 시관 동정

16기생은 여러 가지 취미활동 등산회(함중하 동기), 골프회(배충정 동기), 바둑회(이재기 동기) 등을 통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매월 16일은 '승운의 날'로 정하고, 취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동기생을 포함한 전 동기생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은 집에 경사가 있거나 한턱 내고 싶을 때 이용하며, 모임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운영된다.

일산과 분당에 사는 동기생들의 교통편의를 고려, 교대역 부근에서 점심때 만나며 매번 10~15명 정도로 참여율도 좋다. 당일 사당역에서 집결하여 우면산을 죽 돌아 교대역까지 두어 시간 화제도 즐겁게, 발걸음도 가볍게 실시하는 우정산행, 이것이 16기생들에겐 기다려지는 작은 행복이 아닐까!!





아시아나항공 동문 동정



‘색동날개회’ 활동 소개 (아시아나항공 은퇴조종사 모임)

1998년 아시아나항공 창사 이래 운항승무원(기장, 부기장)으로 역임하다가 정년 퇴임한 공사동문(5기~19기)은 약 50명이다. 2005년 11월 이들 은퇴자 가운데 뜻을 같이한 32명이 ‘은퇴조종사 모임’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이름을 ‘색동날개회’로 명명하였다.

초대 회장은 11기 전세일 동문이, 2대 회장은 12기 강영식 동문이 회무를 맡아서 은퇴한 선후배 동문 간의 친목과 현역 아시아나항공 동문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며 작금에 이르고 있다. 현역 아시아나항공 동문 운항승무원은 약 360명으로서 운항부서의 주요직책은 물론, 운항승무원으로서 주역이 되고 있다. 색동날개회는 매월 1회 등산 활동을 통하여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향후 색동날개회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되는 후배 동문들의 몫이기도 하다.

총동창회 알림

- ♣ 총동창회 이사회
- ♣ 평생회비 적립현황
- ♣ 제15차년도 찬조금 현황
- ♣ 공사 교육진흥재단 소개
- ♣ 전역자 현황
- ♣ 결혼/부음
- ♣ 주소변경
- ♣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 ♣ 편집후기/기고안내



총동창회 이사회



회칙 제5장 제17조에 의거 지난 2007년 7월 26일(목) 18:00 공군회관에서 제15차년도 총동창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제1기에서 제6기까지의 원로 이사와 제7기에서 제35기까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보고에 이어 제15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자금 조성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 회무보고 내용

- 공사총동창회 회원 현황
- 평생회비 적립기금 현황

◇ 제15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연속사업

- 졸업생도 표창
- 부대 격려 방문
- 3사 총동창회 교류
- 친선 바둑대회
- 졸업/임관 50주년 기념 및 홈커밍데이
- 자랑스런 공사인 선정/표창
- 현역 후배기수와 의 좌담
- 성무지 발행
- 조문 활동



◇ 제15차년도 주요 사업계획 - 신규사업

-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 보완
- 공사총동창회 예비역 명부 발행

◇ 소요 예산 : 총 71,600,000원

- 사업비 : 3,300만원
- 운영비 : 3,860만원

◇ 운영기금 조성계획

(단위 : 만원)

	내 용	수 입	비 고
1	기별 분담금	1,580	7~14기 : 40만원 15~35기 : 60만원
2	찬조금 - 일반 찬조 - 운영기수(15기) 찬조	380 4,500	총장, 이억수, 김관호 임용원 1,000 김대욱 500
3	광고비	500	
4	이월 운영금	200	제16차년도 운영기수
	계	7,160	

◇ 주요 역점사업



- 회원 간 정보교류 및 동창회 참석 권유
- 회원 간 친목도모/상부상조
- 명예 계승과 모교발전 참여
- 총동창회 활동 배가



평생회비 적립현황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씩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1기, 24기 완납



◇ 제15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007. 7. 1.~2007.11.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22	103	61	42	오규열						
23	107	56	51	최병선						
24	126	126	0	박준포, 이정섭, 이기준, 이만우, 이태공, 전병욱, 최영설						
25	124	44	80							
26	120	53	67	박식래, 성일환						
27	124	31	93	이광제						
28	121	80	41	김성근, 김영민, 박강수, 박연석, 박재구, 이대원, 이주석, 정재영						
29	141	71	70	권오봉, 박장경, 박충민, 이수역						
30	154	44	110	이종식						
31	166	49	117	김정철, 조병수, 채관석, 한상훈						
32	168	24	144							
33	173	34	139	윤병훈, 정남진						
34	165	18	147	윤기철, 임 원, 정병학						
35	252	16	236							
36	255	9	246							
37	251	7	244							
38	233	14	219	이동민						
39	221	14	207							
40	240	12	228							
41	239	3	235							
42	274	23	251							
43	270	3	267							
44	216	5	211							
45	211	18	193							
46	227	1	226		47	201	0	201		
48	192	105	87	최근수	49	199	1	198		
50	193	1	192		51	202	0	202		
52	202	0	202		53	211	0	211		
54	193	0	193		55	186	0	186		
합	현재인원 : 7,708			납부인원 : 2,218				미납인원 : 5,483		

※ 평생회비를 납부하셨으나 기수를 기재하지 않으신 박상진(1/31) 회원은 기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06.12.21. 납부하신 회원은 기수와 성명을 29기 김(1/30)으로 납부하신 회원은 성명을 총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823-1091



◇ 기 납부자 현황

(2007. 7. 1. 이전)

기수	납 부 자 명 단
22	강수준, 강원호, 권영락, 김명태, 김병근, 김은기, 김인식, 김장호, 김정근, 김재승, 김종세, 김준현, 김철구, 남궁혁, 남백우, 노장갑, 노창래, 류양수, 민형기, 배효직, 백계근, 부중배, 손중열, 송인선, 심강윤, 안중엽, 연철봉, 오봉진, 오원용,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강현, 이경환, 이광희, 이승희, 이영하, 이용구, 이용익, 이원필, 이정식, 이희용, 임영옥, 임인빈, 장영현, 장현섭, 전병만, 정갑순, 정 양, 정왕립, 정장교, 조영기, 주형철, 최병운, 최승열, 최호준, 한영렬, 한웅섭, 한중호, 홍재근, 황병호
23	강성철, 강치행, 강희창, 구본담, 권오봉, 김경순, 김동명, 김상문,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재용, 김종열, 김진필, 김창환, 김형선, 류연도, 박성순, 박정배, 박종철, 박종화, 서구범, 신용필, 유재복, 이강무, 이계훈, 이동호, 이상진, 이수현, 이영덕, 이영옥, 이은수, 이인기, 이정욱, 이정환, 윤남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장창연, 정경도, 정규덕, 정대주, 정희균, 정희진, 조원진, 채홍원, 최상익, 최종창, 최주식, 최진수, 하창호, 한규섭, 함경만, 허일영
24	강일규, 강입구, 강철혁, 경인수, 고재봉, 권영우, 권오석, 권태환, 공윤석, 김광목, 김규선, 김기욱, 김남수, 김동진, 김득환, 김명익, 김상철, 김수원, 김신원, 김언용, 김영선, 김영조, 김영한, 김완창, 김익경, 김제철, 김태열, 나용근, 나재남, 남위진, 노성래, 유동수, 민경식, 박동문, 박상목, 박승락, 박종현, 박준홍, 박진열, 박충제, 백영남, 백윤호, 변현태, 서성훈, 설중일, 손동주, 송한복, 신승덕, 신진섭, 신 철, 송광호, 송기백, 안인규, 안창수, 안민용, 엄상영, 염경식, 오승춘, 오연근, 유광원, 유상양, 유영홍, 유원봉, 유지왕, 윤동열, 이기용, 이남진, 이만휘, 이봉운, 이상만, 이상재, 이월중, 이영재, 이영중, 이용길, 이용상, 이윤상, 이상세, 이정근, 이정원, 이정진, 이재강, 이준우, 이철순, 이해청, 임인구, 임호순, 전남채, 전북진, 전윤환, 정남주, 정명훈, 정인성, 정성화, 정점초, 정진도, 정철원, 정필훈, 조길현, 조진경, 조현규, 주신희, 주중수, 천두봉, 최규철, 최봉선, 최삼조, 최재호, 최재희, 최종용, 최홍진, 표상수, 하원훈, 한성수, 허봉재, 현일수, 홍순화, 황근택, 황원동
25	강신환, 고덕천, 구도권, 권용국, 김국휘, 김동진, 김병용, 김상진, 김진태, 김종흙, 김정렬, 김종원, 김찬환, 김호식, 류홍규, 박용규, 박우성, 박춘환, 서상철, 상신모, 손명환, 심재명, 양해구,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윤학수, 이귀형, 이석찬, 이석호, 이성우, 이상재, 이승구, 이정표, 인선석, 임시영, 임우규, 장희태, 조성구, 최미탁, 최승규, 최형기, 하왕규, 홍진표
26	강충순, 강희규, 공진구, 기예호,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태영, 문길주, 문팔암, 박성남, 박성보, 박인규, 박중석, 박천규, 박화영, 배충영, 변종돈, 성삼식, 송길수, 심상철, 오문영, 오법석, 오희석, 이봉준, 이상길A, 이상길B, 오중기, 유지훈, 윤덕중, 윤병학, 은진기, 임탁봉, 임상현, 장래환, 전병구, 전성관, 전영구, 정영빈, 정진기, 조정호, 조희연, 진주원, 채재승, 최광우, 최병학, 최지수, 허중준, 황정선
27	고덕규, 고용하, 구명수, 구본쾌, 권영철, 권오성, 김만호, 김병산, 김상도, 김용상, 남은우, 박경규, 박준형, 박창권, 박한진, 손태용, 신용탁, 신해철, 신현기, 이무섭, 이수철, 이영만, 이제훈, 임판식, 정동철, 최동환, 최영순, 한병국, 한정렬, 홍성은
28	강승규, 김관호, 김남수, 김달재, 김도호, 김동수, 김명현, 김명호, 김명환, 김영석, 김영철, 김인동, 김재훈, 김주언, 김학수, 김형수, 김형철, 박경진, 박민환, 방명환, 박종복, 박철규, 서근영, 선기훈, 신영덕, 안재모, 오상희, 우상천, 유길형, 유태일, 윤국진, 윤범여, 윤 우, 음종민, 이경석, 이경찬, 이명우, 이명환, 이상욱, 이석원, 이성길, 이용표, 이재원, 이재필, 이태운, 임성욱, 임종춘, 장대홍, 전덕수, 정덕호, 정동학, 정형래, 조규형, 조민식, 조현재, 지윤규, 이태용, 정재부, 천홍우, 최병주, 최상일, 최승관, 최치규, 탁효수, 하태직, 한창환, 함선필, 현성규, 홍성표, 홍순협, 황신섭, 황위준
29	강동운, 강명홍, 구용우,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중, 김성진, 김순노, 김영권,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희영, 김용희, 김철생, 김홍은, 나충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재복, 박춘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근, 오영봉, 오한두,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남진,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조병호, 차영현,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최용준,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기수	납 부 자 명 단
30	강구영,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원규, 김용환, 김종선, 김진완, 박국서,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휘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양승주, 엄동선, 윤기성, 이연수, 이종돈, 이지영, 이학주, 장덕진, 장석현, 장현동, 정경두, 정규호, 정 수,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채덕상, 채종목, 최성규, 한상덕
31	강경환, 강윤성, 김남호, 김동철, 김수복, 김시완, 김철승, 김홍준, 마권용, 문승주, 박승필, 박우일, 박항윤, 박해룡, 방은상, 배순근, 손상준, 신기균, 신재현, 오재현, 유병길, 유보형, 이병목,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재환, 이준희, 임봉수,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병승, 정석환, 정재형, 조승균, 조현기, 조환기, 최병섭, 최승준, 허기주, 현용희, 황명균, 황중서
32	김석운, 김성환, 김영수, 김정룡, 김진호, 김현곤, 박동창, 박승룡, 박호영,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신익현, 심부수, 원인철, 윤석준, 이진완, 이종선, 전종일, 정만해, 천상필, 최원기, 최재영, 하성룡
33	김동수, 김수태, 김유정, 김유현,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심동섭, 오창규, 유준중,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홍, 임경수, 장경식B, 장병노, 정영철, 정희주, 조성호, 최병호, 최현규, 한상균
34	김수봉, 강우석, 김학준, 박홍식,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종, 이성호,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35	강규식, 강성규, 강정운,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신형철, 엄태화, 은용섭, 윤재룡,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진광호, 최기명
38	강재성, 공도현, 김성준, 김정수, 박종환, 박창규,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규, 권성범, 김병선,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임정규,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만우, 이길주, 이현희,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임장석
42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규, 심대철, 은재섭, 이강녕,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임유식, 장희준, 정우진,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오동식, 이종원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전용성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궁규, 이길영, 이인규,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분근,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식, 나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익,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합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안성민
	51~55기 납부자 없음.



제15차년도 친조금 현황

◎ 기별 분담금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우리는행 1002-534-653630
 예금주 : 김주식(제15차 총동창회)

◇ 기별 분담금이란 총동창회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기수에게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당연 직 임원기수에서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7~14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15~35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운영기수가 총동창회를 담당하는 시기인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15차년도 기별 분담금 납부현황(임원기수 : 7기~35기)

(2007. 11. 30. 현재)

기 수	금 액	납 부 현 황
7기~14기	40만원	완납
15기~35기	60만원	완납 : 15~29기, 31~35기 미납 : 30기

◎ 특별찬조금 : 430만원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 김은기	300만원
전 총동창회장 : 이역수	50만원
30기 사관 : 심인태	50만원
28기 사관 : 김관호	30만원

◎ 운영기수 찬조금 : 4,500만원

- 15기 전원이 찬조하였음(임용원 1,000만원, 김대옥 500만원).



공시 교육진흥재단 소개



오늘날 교육환경은 지식/정보의 홍수와 함께 다양한 교육매체가 등장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 교수 교육 및 연구활동 진작, 우수한 학생유치, 학생들의 학업 성취 고취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면서 빠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대학들은 대학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교와는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기관으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국가예산에만 의존해서는 국내외 우수 대학들과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이 어려운 교육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군 사관학교 재단현황〉

2007. 11. 30. 기준

	육사	해사	공사
재단설립일	1996년 3월 22일	1995년 6월 8일	1996년 6월 10일
총 기부금	127억원	39억원	39억원
'07년 예산	8억 2천2백만 원	1억 2천만원	2억 5천2백

본교와 같은 해에 출범한 육군사관학교재단은 이미 127억여 원을 모금하였고, 해군사관학교는 39억여 원을 모금하여 본교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기금이 제일 풍부한 육사의 경우 재단기금만으로 재교기간 중, 생도 1인당 3회 정도 국제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 국제학술활동비, 화랑문예전, 국제심포지엄 행사지원을 포함한 목적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수생도 유치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1996년 3억여원의 설립재산으로 시작한 본교 재단은 11년이 지난 오늘 약 39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해 준 1,800여 명의 동문과, 기업 및 사회단체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지정기부제의 도입으로 기부자가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재단 기부금 출연 현황〉

구분	출연자	출연금비율	
개인	동문	이종학(공사3기) 외 1,490명(기생회 포함)	31%
	비동문	양창근 외 356명	6%
단체	삼성테크윈 외 45개 단체	63%	
고액출연자	삼성테크윈(10억원), 대우그룹(5억원), (주)삼양화학공업(2억 8백만원), 이종학 교수(2억 6천2백만원), 최동환 C.T.K건설회장(1억원), (주)보잉(1억원)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의 이자수익으로 재단 목적사업은 운영된다. 재단 지원 주요사업으로는 생도학술/문화/체육활동지원사업, 생도국제교류사업,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교육·도서·연구기자재 확충사업과 기타 기부자가 목적을 명시한 사업이다. 재단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도국제교류사업은 해외전사적지견학, 외국사관학교방문, 해외문화체험 등을 통해 생도들의 생도의식고양과 자신감 함양, 국제적 시각을 갖추기 위한 입체적 교육효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도대외경기 참가지원사업도 적은 지원규모에 비해 큰 성과를 올리는 사업이다. 2007년 재단예산 지원으로 생도들이 참가한 대회와 성과를 보면, 전국대학생안보토론대회, 행·패러글라이딩대회, 전국궁도대회,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등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공군사관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러한 각종 목적사업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군사관학교는 장차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될 정예공군장교 양성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연안내】

일 반 출 연

- 무통장 입금
 - 국민은행 : 401-01-0662-701
 - 농 협 : 303-01-345036
 - 우 체 국 : 300038-01-003768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 자동이체 신청 :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신청을 대행 하여 드립니다.
- 지로입금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용지를 우송하여 드리며, 각 은행에 비치된 용지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지로번호 : 7629316
- 학교내방

특 별 출 연

- 하늘사랑기부보험 가입

종신(생명)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시 가입자의 명의로 보험금(1,000만원)을 공사재단에 기부하는 방법

 - * 가입문의 : 1566-1202
 - * 홈페이지 : <http://www.skyloveinsu.com>
- 공군사랑카드 가입

공군사랑국민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재단발전기금으로 적립

 - 혜택: GS칼텍스 리터당 70원 할인, 백화점 및 할인점 할인, 가입비 면제
 - * 국민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재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교사랑 한마음 운동 참여

모교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동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 기생별로 10년간(매월) 일정액을 출연하는 운동

 - * 51기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 락 처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1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우) 363-849
 TEL : 043-290-5916, 5917 FAX : 043-298-0922
 E-mail : kafafund@afa.ac.kr



전역지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07. 7.31.	준장	권영우	조종	24	'07.10.31.	소령	은재섭	조종	42
	준장	전복진	조종	24		소령	김태관	조종	42
	대령	권대환	교육	24		소령	류상락	조종	42
	중령	김희동	무기정비	27		소령	임준엽	조종	42
	중령	염기천	교육	32		소령	이원규	조종	42
	소령	김현길	조종	41		소령	양동광	조종	42
'07. 8.31.	중장	배창식	조종	21		소령	정찬수	조종	42
	중장	이찬	조종	21		소령	이길춘	조종	42
	중장	이영하	조종	22		소령	신동문	조종	42
	대령	조현규	관리	24		소령	이민주	조종	42
	대령	공진구	정훈	26		소령	김도우	조종	42
	소령	박춘식	조종	40		소령	백승석	조종	42
'07. 9.30.	중령	권천만	무기정비	27		소령	김상윤	조종	42
'07.10.31.	대령	임인구	조종	24		소령	백성욱	조종	42
	대령	남은우	교육	27		소령	조일권	조종	42
	소령	이경훈	조종	40		소령	한준희	조종	42
	소령	김진하	조종	41		소령	박상오	조종	42
	소령	최영삼	조종	42		소령	임광기	조종	42
	소령	김성재	조종	42		소령	맹창범	조종	42
	소령	손창업	조종	42		소령	조재형	조종	42
	소령	오관배	조종	42		소령	박승호	조종	42
	소령	윤종천	조종	42		소령	최원규	조종	42
	소령	장희준	조종	42		소령	서진우	조종	42
	소령	안병중	조종	42		소령	신동호	조종	42
	소령	박용수	조종	42	소령	김태성	조종	42	
	소령	가재도	조종	42	소령	박준홍	조종	42	
	소령	동상경	조종	42	소령	김민성	조종	42	
소령	황현석	조종	42						



결혼/부음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007. 7.~12.)

월	기수 / 성명 / 관계
7월	21기 김영배 장남, 22기 이충훈 장남, 24기 김익경 장녀, 24기 백윤희 장녀
8월	21기 배창식 장녀, 24기 이영종 장녀
9월	9기 최영열 차녀, 17기 유정웅 장남, 19기 김 규 장녀, 19기 유병관 차남, 21기 마순복 차남, 22기 김명대 장녀
10월	7기 홍인규 자녀, 13기 이기현 장녀, 15기 유성봉 장남, 21기 남현균 장녀, 21기 윤희철 장남, 21기 정한철 장녀, 22기 민형기 장녀, 22기 배효직 장녀, 22기 이용익 장녀
11월	4기 박병순 차녀, 13기 김준언 장남, 18기 오병한 차녀, 18기 윤관중 차녀, 19기 서경수 장남, 19기 정선구 장녀, 20기 김오비 차녀, 20기 박용우 장남, 21기 강한중 장녀, 22기 유치호 장남, 24기 강철혁 장남, 24기 김재철 장녀, 24기 최영설 장녀, 25기 천성희 장남
12월	18기 박찬태 자녀, 18기 이태섭 장남, 18기 장용주 장녀, 24기 강철혁 장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 일	기수	성명	비고	월 일	기수	성명	비고
7월 5일	20기	연제영	별세	8월 6일	19기	하석태	별세
7월 20일	40기	이규진	순직	8월 22일	2기	김유옥	별세
	52기	박인철	순직	9월 5일	4기	박용진	별세
7월 28일	15기	김대옥	별세	11월 12일	1기	조남섭	별세

월	기수 / 성명 / 관계
7월	24기 이재강 모친상, 31기 채관석 부친상
8월	11기 박용이 모친상
9월	5기 박용대 모친상, 15기 최광순 모친상, 19기 이달호 모친상, 24기 김규선 모친상, 26기 장래환 부친상, 32기 최재영 부친상, 38기 이동민 장인상
10월	13기 최길용 장모상, 16기 김현석 장인상, 20기 권동섭 모친상, 24기 염경식 모친상, 24기 전복진 부친상
11월	24기 이철순 부친상

※ 총동창회장 명의의 조기를 보내 전 회원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본인이며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까지도 해당됩니다.
- 국내 어디에라도 당일에 전달 가능하니 총동창회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휴일에는 사무총장 최영상 017-729-2431, 회장 김주식 011-9827-2224로 연락 바랍니다.)



주소 변경

(2007년 7월~11월)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이명휘			
3	박우식			
3	백낙승			
3	윤진환			
3	이필원			
3	이학수			
4	김용주			
4	조시중			
7	김준수			
11	양종택			
12	백광현			
14	김세영			
15	백남철			
15	송홍식			
15	전광문			
18	김종식			
18	이진학			
19	유병구			
20	김택기			
23	정대주			
23	채홍원			
24	노성태			
24	염경식			
24	이월중			
25	양대철			
26	윤재규			
29	풍태현			
33	한고희			
36	김응문			
37	김성수			
46	박정원			



기수별 동기생회 임원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1기	회장	최규순		14기	회장	석영우	
	총무	.			총무	박진재	
2기	회장	김동호		15기	회장	권기동	
	총무	.			총무	최용환	
3기	회장	정규혁		16기	회장	최명상	
	총무	김필원			총무	박영기	
4기	회장	조시중		17기	회장	장호근	
	총무	조봉구			총무	이철희	
5기	회장	정제식		18기	회장	천기광	
	총무	손정희			총무	구세환	
6기	회장	이방택		19기	회장	이강욱	
	총무	김원근			총무	김영철	
7기	회장	강상원		20기	회장	김성일	
	총무	박대환			총무	최병철	
8기	회장	윤대봉		21기	회장	이 찬	
	총무	백상희			총무	조오현	
9기	회장	한광희		22기	회장	민형기	
	총무	이강홍			총무	정감순	
10기	회장	송중호		23기	회장	이계훈	
	총무	김시호			총무	류연도	
11기	회장	박용이		24기	회장	박종헌	
	총무	심기섭			총무	최규철	
12기	회장	강영식		25기	회장	윤용현	
	총무	엄수남			총무	이정보	
13기	회장	문기철		26기	회장	문길주	
	총무	김진석			총무	오중기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기수	구분	성명	연락처	
27기	회장	권오성		42기	회장	이종서		
	총무	홍진기			총무	이동현		
28기	회장	최차규		43기	회장	오동식		
	총무	박철규			총무	이종원		
29기	회장	이명길		44기	회장	고준기		
	총무	정덕용			총무	.		
30기	회장	박국서		45기	회장	양동혁		
	총무	조보근			총무	김도산		
31기	회장	김정철		46기	회장	김용진		
	총무	한상훈			총무	서정민		
32기	회장	조준로		47기	회장	이영진		
	총무	송인수			총무	문성훈		
33기	회장	정남진		48기	회장	고종진		
	총무	최현국			총무	원기탁		
34기	회장	박원서		49기	회장	이정영		
	총무	김학준			총무	.		
35기	회장	이동규		50기	회장	송준협		
	총무	박종연			총무	전수진		
36기	회장	손경수		51기	회장	유진규		
	총무	유문근			총무	김성경		
37기	회장	염성진		52기	회장	유영광		
	총무	이경봉			총무	이동제		
38기	회장	윤병호		53기	회장	장지용		
	총무	김경민			총무	윤종성		
39기	회장	홍봉선		54기	회장	조원기		
	총무	김재권			총무	권선영		
40기	회장	한경환		55기	회장	이재환		
	총무	김중기			총무	강수정		
41기	회장	이형현		* 임원 변동 시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이광조						



편 집 후 기

우리 회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창회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편집관련 일을 시작하였고 마감일에 맞추어 글이 속속 도착하면서 저희들의 원고 검토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글을 쓴 분들이 사용한 표현과 의도를 최대한 살린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저희 나름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으나 부득이 일부 수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하신 필진들의 관심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틈틈이 써 오신 주옥 같은 글을 십여 차례에 걸쳐 저희 동창회 사이트에 올려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초고를 보낸 후 무려 아홉 번이나 수정문을 추가하실 만큼 정성에 정성을 다해 주신 회원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본지의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재창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편집상의 문제와 지면의 제한으로 이번에 신지 못한 여러 편의 좋은 원고들은 저희들이 두 번째 발행할 성무지 제37호에 게재토록 분류되어 있음을 밝혀 둡니다.

〈편집인〉

기 고 안 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 지는 연 2회(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걸쳐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생활 잡기(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7호 성무지 원고는 2008. 4. 3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 행 일 : 2008. 1. 1.
발 행 인 : 김주식
편 집 인 : 최영상
발 행 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항공소년단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및 후원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사회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봉사활동



■ 후원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한국항공소년단)

※ 기부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6-81 4층 Tel. 02)953-7543 / www.yfk.or.kr

사람과 사람이 만나 Humansia가 됩니다

함께 할수록 기쁨이 됩니다
함께 할수록 행복이 됩니다



Humansia (후먼시아)는 Human(인간, 인류)과 sia(삶은 대지, 공간의 합성어입니다. Humansia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주거공간을 창출해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는 주택공사의 도시브랜드입니다.

아름다운 기업-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김포↔홍차오(상하이) 취항

이제 상하이도 김포공항에서 떠나세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두 번째 해외노선, 상하이-
아시아나가 홍차오공항 도착으로 상하이 도심까지 1시간 더 빠르게 모십니다.
김포→홍차오 노선은 역시 아시아나입니다.

문의 및 예약 · 1588-8000 · flyasiana.com

김포 ← 매일 16:15(출발) 17:15(도착) OZ3615 → 홍차오
매일 18:15(출발) 21:05(도착) OZ3625

* 상기 운항 시간표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로 가시는 길도
서울로 오시는 길도 1시간 빠르게!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